

보험동향 2012년 봄호

Ⅰ 총괄	윤성훈 (선임연구위원)
Ⅰ 경제금융 동향	경제총괄 윤성훈 (선임연구위원) 세계경제 이정환 (선임연구위원) 국내경제 오병국 (연구원) 금융경제 오병국 (연구원)
Ⅰ 국내보험시장 동향	보험총괄 황진태 (연구위원) 생명보험 김세중 (선임연구위원) 이혜은 (연구원) 손해보험 최 원 (선임연구위원) 김동겸 (선임연구위원)
Ⅰ 해외보험시장 동향	미 국 김세중 (선임연구위원) 영 국 이정환 (선임연구위원) 일 본 최 원 (선임연구위원) 중 국 왕양비 (연구원)

■ 목차

I. 테마진단

지수형 날씨보험 활성화에 대한 소고 / 1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 관련 동향과 시사점 / 16

II. 경제금융 동향

1. 세계경제 / 33

2. 국내경제 / 57

3. 금융경제 / 67

III. 국내보험시장 동향

1. 보험산업 총괄 / 73

2. 생명보험 / 76

3. 손해보험 / 95

IV. 해외보험시장 동향

1. 미국 동향 / 123

2. 영국 동향 / 129

3. 일본 동향 / 138

4. 중국 동향 / 145

V. 국내외 보험·금융 주요 뉴스 / 156

VI. 통계표 / 168

I. 테마진단

◆ 지수형 날씨보험 활성화에 대한 소고

황진태 연구위원, 조재린 연구위원

1. 날씨 관련 보험시장 현황

이상기후가 직접적인 물적·인적 피해를 입히는 경우는 드물지만 일상생활 및 기업활동에 큰 영향을 줌. 따라서 기상현상으로 인한 예기치 못한 손실을 줄일 수 있는 날씨보험의 역할이 중요함. 그러나 우리나라의 날씨보험은 여전히 초보 수준임.

■ 짧은 시간 동안 기상이변으로 특정지역에 막대한 물적·인적 피해를 입히는 자연재해와는 달리 이상기후는 직접적인 피해는 덜하지만 일상생활 및 기업활동에 큰 영향을 줌.

○ 예를 들어, 냉난방산업, 병과산업, 의류산업, 레저산업 등의 경우 제품에 대한 수요가 날씨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으므로 날씨에 따라 수익성이 좌우될 수 있음.

○ 즉, 이상기후 현상은 생산시설이나 제품 등 재산상의 직접적인 피해를 야기하는 경우는 드물지만, 소비자들의 소비패턴에 변화를 일으키는 등 수요변화를 야기할 수 있음.

■ 이러한 이상기후 현상에 따른 예기치 못한 손실에 대해 각 경제주체들이 날씨보험 가입을 통해 해당 피해를 줄일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안정적인 재정계획 수립도 가능함.

○ 날씨보험은 통제 불가능한 기상요인으로 발생하는 위험을 보험회사에 전가하는 상품임.

■ 실제 경제활동을 하는 모든 주체가 외생적 날씨변화에 영향을 받는다고 할 수 있으나, 특히 농업, 에너지 및 리조트 산업이 크게 영향을 받음.

○ 날씨리스크 요소로 주로 기온, 강우, 강설을 들 수 있음.

- 천연가스, 전력 등 에너지 산업이나 빙과 및 음료업의 경우 여름 또는 겨울철이 예상보다 시원하거나 따뜻할 경우 매출액 감소를 경험하게 됨.
 - 테마파크는 강우일수가 많을 경우 입장객 감소로 매출액이 감소함.
 - 농·과수업은 이상저온이나 가뭄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로 재산적 피해를 입을 수 있음.
 - 스키장의 경우 강설량이 너무 적은 경우 입장객이 감소하거나 인공눈을 만드는 비용이 증가하여 손해를 입을 수 있음.
- 아울러, 대체에너지 설비 증가로 일조량 또는 풍량 등도 점차 관련 산업의 날씨리스크가 될 수 있음.
- 태양광 발전소나 풍력발전소 등은 일조량 또는 풍량의 영향을 많이 받음.

〈표 1〉 산업별 날씨리스크 형태

산업	날씨리스크 요소	형태
에너지 공급	기온	따뜻한 겨울, 시원한 여름에 매출 감소
에너지 소비	기온	혹한 겨울이나 혹서 여름에 냉난방비용 상승
빙과 및 음료업	기온	추운 여름에 매출 감소
유통업	기온, 강우, 강설	날씨변화에 따른 상품매출 감소 및 매장고객 감소
제조업	기온	냉난방기 제조업의 경우 기온변화에 따라 매출 감소
건설업	기온, 강우, 강설	나쁜 날씨에 따른 건설기간 연장
스키장	강설	평균보다 적은 강설량에 따른 매출 감소
테마파크	강우, 기온	강우일수가 많을 경우 입장객 수 감소
농·과수업	기온, 강우, 강설	기온이나 강우량 변화에 따른 수확량 감소

자료: 삼성금융연구소(2004), 『날씨파생상품(Weather Derivatives)의 국내 도입 필요성 및 주요과제』, 발표자료.

■ 전통적 날씨보험은 1990년대 후반에 도입되었으나 여전히 초보적 수준이며, 현재 일부 정책성 보험 위주로 판매되고 있는 실정임.

- 농작물 재해보험, 풍수해 보험, 양식수산물재해보험 등 정책성 보험이 판매 중임.
- 정책성 보험 외에 주로 상금보상보험과 행사취소보험 등 이벤트 위주의 보험상품이 판매되고 있음.
- 실제 연평균 가입 건수가 50건도 넘지 못하는 수준임.
- 에버랜드의 경우 강우로 인한 영업손실을 담보하는 보험에 가입하고 있음.

■ 지수형 날씨보험은 2006년 처음으로 출시되었지만, 현재까지 판매실적은 미미한 수준에 머물러 있음.

- 삼성화재의 경우 기온, 강수량, 강설량을 대상으로 지수형 날씨보험상품을 출시
- 현대해상은 태양광 발전소를 상대로 지수형 날씨보험상품을 판매

2. 날씨리스크 인수 부진 이유

날씨보험시장이 미미한 이유로 피보험이익이 있는 보험수요자의 날씨리스크 해징에 대한 인식 부족과 보험회사의 다양한 날씨 관련 지수개발 미비로 인한 소비자 니즈에 적합한 상품의 개발 및 공급의 부진을 들 수 있음.

가. 수요측 원인

■ 앞서 언급된 것처럼 다수의 경제주체들이 외생적 날씨변화에 많은 영향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이익이 있는 보험수요자의 날씨리스크 해징에 대한 인식이 여전히 부족함에 따라 그 수요가 미미한 실정임.

- 날씨변화에 따른 기업의 매출 및 이익 변동에 대한 분석이 부재한 상태임.
- 일상적인 날씨변화에 따른 손실을 보전하는 상품이므로 일반적인 보험상품에 비해 사전발생 빈도가 높아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고액에 해당되어 각 경제주체에 부담이 큼.
- 날씨보험상품의 주된 수요자일 수 있는 대기업의 수요가 미미함.

나. 공급측 원인

■ 공급측 원인으로는 다양한 날씨 관련 지수개발 미비로 소비자 니즈에 적합한 상품개발 및 공급이 부진함.

- 전통적 날씨보험의 경우 날씨변화에 따른 매출액 변동에 대한 손해사정 경험부족으로 실손보상이 쉽지 않음.

- 지수형 날씨보험의 경우 상품개발 면에서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으나, 지수개발 미비로 상품개발이 활성화되고 있지 못함.
 - 기상청 및 기상산업체와의 적극적 협력 모형 부재로 다양한 날씨 관련 지수개발이 미비함.
 - 또한, 지수형 날씨보험 상품개발에 필요한 전문인력 및 날씨관련 손해의 분석시스템 등 인프라 부족도 한 원인임.

■ 이에 본고는 날씨보험 활성화 차원에서 지수형 날씨보험의 정의 및 지수형 날씨보험이 확대 보급되고 있는 해외사례를 살펴보고, 지수형 날씨보험 활성화를 위한 관련 시사점을 제시함.

3. 지수형 날씨보험 정의 및 상품구조

지수형 날씨보험은 특정기간 동안 특정지역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날씨지수를 이용하여 날씨변화에 따른 재무적 손실을 보상하는 상품이며, 전통적 날씨보험에 비해 여러 가지 장점이 있음.

가. 지수형 날씨보험의 정의

- 전통적 날씨보험은 날씨변화에 따른 재무적 손실을 실손보상하는 보험상품임.
 - 즉, 동 상품의 경우 재무적 손실을 입증해야만 보험금을 지급함.
 - 우리나라의 경우 주로 상금보상보험, 행사취소보험 등의 형태로 단발성 사건 발생 위험을 담보함.
- 전통형 날씨보험은 실손보험이라는 특징으로 인해 여러 가지 단점이 있음.
 - 날씨로 인한 재무손실 분포의 추정이 어려워 보험료 산출이 어려움.
 - 많은 경험과 자료가 필요함.
 - 실손보험의 특성상 역선택 및 도덕적 해이의 가능성이 있음.
 - 날씨와 재무손실의 인과관계 증명이 어려워 손해사정이 어려움.

■ 이에 반해 지수형 날씨보험은 특정기간 동안 특정지역에서 발생하는 기온, 강우량, 강설량 등 측정 가능한 날씨변화를 대상으로 이들의 변동을 지수화하여 사전에 정한 지수와 실제 관측결과 간 차이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는 상품임.

- 날씨변화에 대한 사건 발생 자체가 거래의 조건이며, 사건의 발생이 재무적 손실을 주었는지는 중요하지 않음.
- 따라서 역선택 및 도덕적 해이 가능성이 없으며, 손해사정이 필요 없다는 장점이 있음.
- 날씨지수의 종류는 기온, 강우량, 강설량, 일사량 등 다양한 지수가 가능함.
 - 가입자에 따라 여러 가지 날씨지수를 혼합한 지수도 사용 가능함.
- 단, 보험의 원리(실손)에 따라 과도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여야 함.
- 고객의 다양한 니즈를 반영한 맞춤형 상품 설계가 가능함.
 - 날씨지수와 재무적 손실의 상관관계를 반영한 상품도 가능함.

〈표 2〉 전통적 날씨보험 vs. 지수형 날씨보험

구분	전통적 날씨보험	지수형 날씨보험
대상위험	날씨로 인한 손해	-
보상형태	실손보상	지수변동에 의한 정액보상
보상기준	보험사고로 인한 실손	Trigger Event
손해사정	필요	불필요
가입주체	피보험 이익이 있는 자	-

나. 상품구조 및 가격결정 방법

■ 지수형 날씨보험의 예는 아래와 같음.

- 날씨지수: 6~8월 강우량
- 보험금 지급 기준 지수: 강우량 100mm
- 지수 한도: 강수량 50mm
- 보험가입금액: 500만 원
- 지급보험금: $(100 - \text{실제 강수량}) / (100 - 50) \times 500\text{만 원}$

■ 지수형 날씨보험 순보험료 가격결정 방법에는 Black-Scholes 모형, Burn analysis, 시뮬레이션 방법 등이 있음.

- 그러나 금융파생상품에 적용되는 Black-Scholes 모형은 지수형 날씨보험에 적합하지 않음.
- Burn analysis는 해당 기간의 날씨지수 분포가 과거 수년간 날씨지수 자료의 집합을 모집단으로 하는 분포를 따른다고 가정하여 보험료를 산출하는 방법임.
 - 최근 기후변화 패턴 또는 측정지점의 상태변화를 반영하지 못함.
- 시뮬레이션 방법은 기초자산(온도, 강우량 등)의 움직임을 잘 나타낼 수 있는 통계적 모형을 설정하고, 과거 자료를 이용하여 계수를 추정함.
 - 상기 모형과 추정한 계수를 이용하여 시뮬레이션을 한 결과를 통해 날씨지수 분포를 추정하고 순보험료를 계산함.

4. 지수형 날씨보험의 해외사례

지수형 날씨보험은 농작물 관련 보험을 중심으로 세계 여러 나라에서 확대 보급되고 있는 중임. 그 중 캐나다는 가뭄에 대비한 사료용 작물을, 멕시코는 가뭄 및 초과 강우량에 대비한 농작물을 대상으로 지수형 날씨보험을 보급하고 있음. 이들 해외사례를 통해 볼 때 지속가능한 지수형 날씨보험시장을 위해서는 날씨지수 산출 전문기관의 확보와 고객의 다양한 니즈에 적합한 상품개발이 중요함.

가. 해외 활용사례¹⁾

■ 지수형 날씨보험의 경우 농작물 관련 보험을 중심으로 캐나다, 미국, 멕시코, 인도, 중국 등 세계 여러 나라에 확대 보급되고 있음.

1) 자세한 내용은 Hazell, P., J. Anderson, N. Balzer, A. H. Clemmensen, U. Hess, and F. Rispoli(2010), *Potential for Scale and Sustainability in Weather Insurance for Agriculture and Rural Livelihoods*, IFAD and WFP, Rome 참조하기 바람.

- 이들 국가에서 판매되거나 시행되고 있는 지수형 날씨보험 관련 프로그램명은 아래와 같음.
 - Forage Rainfall Plan(캐나다), PRF-RI (Pasture, Rangeland, Forage Rainfall Index) Pilot Program과 PRF-VI(Pasture, Rangeland, Forage Vegetation Index) Pilot Program(미국), AGROASEMEX(멕시코), PepsiCo contract farming program(인도), WRMF index insurance pilot(중국) 등이 있음.
- 이들 국가 중 본고는 캐나다와 멕시코 사례를 중심으로 지수형 날씨보험 활용사례를 살펴보고 동 사례를 통한 시사점을 얻을 것임.

1) 캐나다

■ 캐나다의 경우 2003년 Forage Rainfall Plan(FRP)²⁾이 정부가 주관하는 생산물보상보험(PI: Production Insurance) 프로그램의 한 분야로서 실시됨.

- PI 프로그램은 온타리오주 5개 카운티를 중심으로 시작되었으며, 2003년 말에는 7개 카운티와 2개 지구로 확대됨.
 - PI 프로그램은 GPPF(Growing Forward Policy Framework)하에서 지속적으로 운영됨.³⁾
- 동 프로그램 실시 목적은 날씨리스크(예: 가뭄)로 발생 가능한 수확량 감소나 농작물 손실에 대해 농민을 보호하기 위한 것임.
- 그 적용 대상자는 온타리오주 지역 내에서 사료용 작물을 재배하는 농민, 지주, 소작인임.
 - 부보 대상 작물은 풀, 콩류로 구성된 사료용 작물이며, 건초지역 및 목초지도 포함함.

2) 실제 2000년부터 온타리오 주정부 내 소규모 지방정부들이 가뭄으로 인한 농민들의 사료용 작물 손실에 대한 재무적 보상을 위해 Forage Pilot 프로그램을 최초로 시범 실시하였으며, 2003년 들어 동 프로그램이 지속적 보험산업으로 전환 운영되면서 프로그램명도 Forage Rainfall Plan으로 변경됨.

3) GPPF는 2008년 캐나다 농업발전을 위한 장기 프로젝트 차원에서 농업 및 관련 농산품에 대한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전반적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정부 주도 사업인 Agricultural Policy Framework(APF) 업무를 인수하였으며, 날씨로 인한 소득 감소분 보전을 위하여 새로이 AgriInvest and AgriStability 프로그램도 개발함.

■ 한편, AgriCorp는 보험회사로서 FRP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사료용 작물 손실에 대한 보상을 위해 지수형 날씨보험상품을 설계 및 판매함.

- AgriCorp은 온타리오 주정부의 대리인(agent)으로서 PI 프로그램, 농업 및 식품산업 관련 프로그램, 기타 농작물 보험을 판매 및 운영하는 회사임.
- 동 회사는 지수형 날씨보험과 관련하여 날씨 관련 자료를 Environmental Canada와 계약을 맺고서 모든 강우량 자료를 수집함.
- 그리고 AgriCorp 직원들은 보험중개인(insurance agent)으로서 온타리오주 지역 내에서 PI 프로그램 관련 상품을 판매하는 125명 보험판매원(field staff)과 함께 활동함.

■ FRP에 대해 구입의향을 가진 사료용 작물 재배자들은 그들의 니즈에 적합하도록 상품을 설계할 수 있음.

- 동 재배자들은 보험가입금액(amount of insurance), 보장옵션(coverage option), 강우 측정 관측소를 자신들의 니즈에 맞게 선택할 수 있음.
- 아울러, 농장 형태와 경영방식에 입각한 보장플랜도 선택할 수 있음.

■ 한편, 350개에 달하는 온타리오주 관측소를 통해 강우량 지수가 만들어지며, 관측소는 매 15 킬로미터 간격으로 위치함.

- 장기 월평균 강우량이 과거 강우량 자료를 통해 계산되며, 동 강우량 평균은 온라인상에 참고자료로 게시됨.

■ 보험료의 경우 주정부가 60%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담하며, 운영비용은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60:40으로 나누어 부담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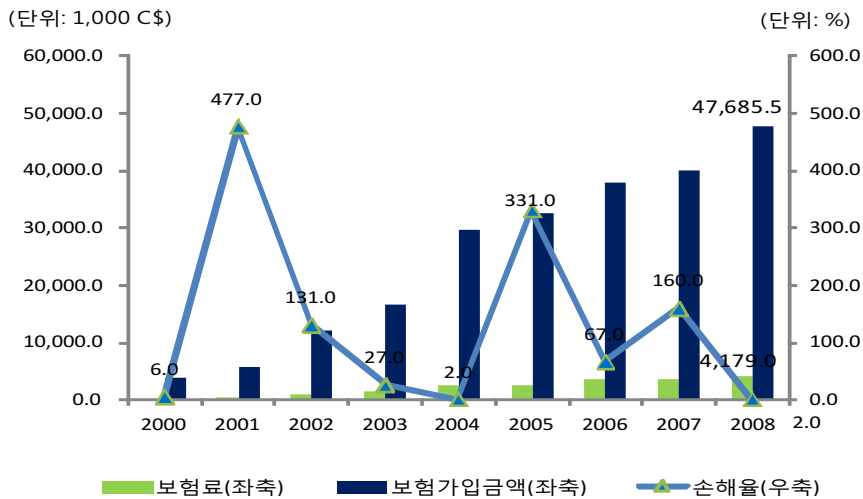
- 보험금은 특정 기간 동안 강우량(capped actual rainfall)이 과거 장기평균 강우량의 80%에 미치지 못할 때 지급됨.
- 그리고 FRP 프로그램 보험료는 소득공제 혜택이 있음.

■ FRP 프로그램이 점차 확대되는 추이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손해율 등락폭이 크게 나타남.

- FRP 계약 건수와 보험료 수입이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2008년에는 보험가입금액은 4,769만 캐나다 달러, 총 보험료 수입이 417만 9,000 캐나다 달러를 기록함.

- 보험금은 주로 가뭄으로 인한 사료용 작물 수확 감소를 보전하기 위해 지급됨.
- 한편, 손해를 변동성이 크게 나타나는데, 이는 리스크 풀링이 어려워 발생한 결과로 볼 수 있음.

〈그림 1〉 캐나다 FRP의 부보확대 추이



자료: Hazell, P., J. Anderson, N. Balzer, A. H. Clemmensen, U. Hess, and F. Rispoli(2010), *Potential for Scale and Sustainability in Weather Insurance for Agriculture and Rural Livelihoods*, IFAD and WFP, Rome.

2) 멕시코

■ 멕시코는 2002년 Guanajuato주 내 여러 지역을 대상으로 지수형 날씨보험 프로그램을 최초로 시범 실시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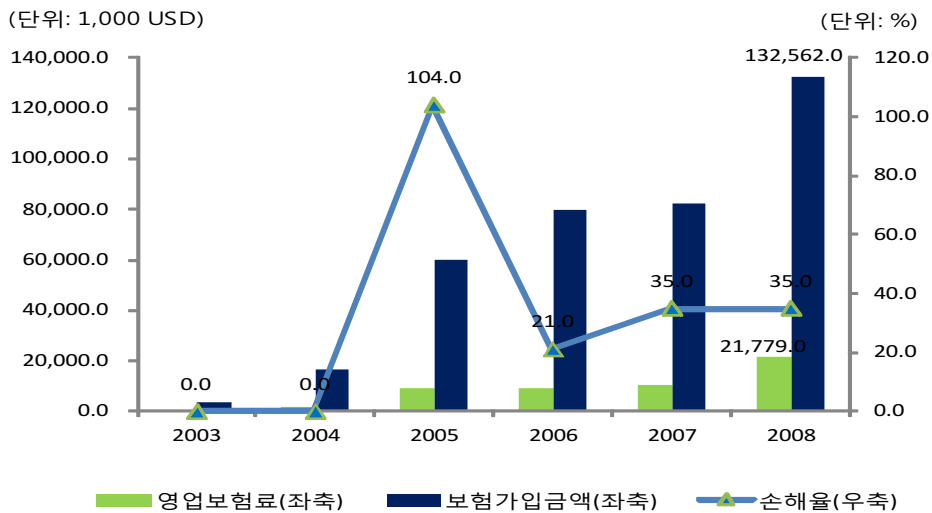
- 동 프로그램은 맥아, 수수 재배지역을 대상으로 부보하였으며, 5개 기상관측소의 강수량 지수를 사용함.

■ 그 후 제2차 시범실시에 해당하는 2003년 공적보험 프로그램 AGROASEMEX가 농작물 관련 대재해 리스크를 자본시장에 전가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수형 날씨보험을 개발함.

- AGROASEMEX는 멕시코 연방정부 산하 국가보험기관이며, 농작물 보험시장에 재보험을 제공함.

- 동 프로그램은 농산물의 상품화 과정도 포함하고 있으며, 국제 재보험시장에 농작물 관련 리스크도 전가하는 활동을 수행함.
- Guanajuato 주정부는 17만 7,600 헥타르에 달하는 옥수수, 수수 재배지역에 대해 보험 계약을 체결함.
- 2003년 총 보험가입금액은 350만 달러, 영업보험료 수입은 33만 8,000 달러를 기록함.
- 2004년 들어 Puebla주의 일부 지역도 동 프로그램에 포함되어 부보 대상 농작물에 보리도 포함됨.
- 또한, 부보지역, 관측소 수, 보험가입금액 모두 확대됨.

〈그림 2〉 멕시코 AGROASEMEX 프로그램의 부보확대 추이



자료: Hazell, P., J. Anderson, N. Balzer, A. H. Clemmensen, U. Hess, and F. Rispoli(2010), *Potential for Scale and Sustainability in Weather Insurance for Agriculture and Rural Livelihoods*, IFAD and WFP, Rome.

- 그 결과 2008년에는 부보지역 190만 헥타르, 기상관측소 251개, 총 보험가입금액 1억 3,256만 달러, 영업보험료 수입 2,178만 달러에 달함.
- 보험료의 경우 연방정부가 주정부의 상황에 따라 70~90%에 해당하는 보조금을 지원함.
- 동 상품의 트리거(trigger)는 가뭄과 초과 강우량으로 매년 평가되어 그 수준이 변경됨.
- 또한, 트리거 수준은 농작물, 지역, 농작물 성장단계에 따라 각기 다름.

■ 날씨 관련 자료 제공은 멕시코 국립수자원위원회(National Water Commission(CONAGUA))가 담당함.

○ 동 기관은 기상관측소에 대한 운영 책임을 맡고 있으며, 강우량 관련 주간리포트를 제출함.

〈표 3〉 지수형 날씨보험 해외사례 종합

종류	캐나다	멕시코
프로그램명	Forage Rainfall Plan	AGROASEMEX
주관기관	Agriculture & Agri-Food Canada	AGROASEMEX
고객 또는 피보험자	온타리오주 사료용 작물 재배자	연방 및 주정부 (저소득 농민 지원)
보험자	AgriCorp	AGROASEMEX
보험 대상	풀, 콩류로 구성된 사료용 작물	옥수수, 콩, 수수, 보리
담보위험	가뭄	가뭄, 초과 강우량
날씨리스크 지수	강우량	강우량
날씨지수 제공자	Environmental Canada	National Water Commission (CONAGUA)
보험료	• 정보보조금과 플랜에 따라 다양 • 소득공제 혜택 있음	각 주정부의 등급에 따라 연방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
가입자 수	• 1,751명(2007년) • 1,945명(2008년)	• 65만 명(2007년) • 80만 명(2008년)
규제감독기관	-	National Insurance Commission (CNSF)

자료: Hazell, P., J. Anderson, N. Balzer, A. H. Clemmensen, U. Hess, and F. Rispoli(2010), *Potential for Scale and Sustainability in Weather Insurance for Agriculture and Rural Livelihoods*, IFAD and WFP, Rome.

■ AGROASEMEX 프로그램 실시 후 재해 시 직접 지급하는 주정부의 보상금보다 해당 지수형 날씨보험 구입을 통해 소요되는 비용이 더 적게 드는 것으로 나타나 프로그램의 지속적인 성장 가능성을 엿볼 수 있음.

나. 해외사례를 통한 교훈

■ 캐나다 및 멕시코의 지수형 날씨보험 사례를 볼 때 초기 단계이기는 하나, 지수형 날씨보험을 활용한 날씨리스크 부보가 점차 확대되고 있는 추세임.

- 캐나다의 경우 2000~2008년 간 보험료가 연평균 169.1%, 멕시코는 2003~2008년 간 영업보험료가 1,268.7% 증가함.
- 그러나 일정한 지역 내에서 날씨리스크 풀링이 어려워 손해율 변동성이 심한 것으로 나타남.
 - 이에 실제로 멕시코의 경우 국제 재보험시장에도 농작물 관련 리스크를 전가하고 있음.

■ 지수형 날씨보험이 정착되기 위해서는 캐나다와 멕시코 사례에서도 나타난 바와 같이 날씨지수 산출 전문기관과 고객의 니즈에 적합한 상품 개발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남.

- 지수형 날씨보험 상품이 판매되기 위한 전제요건은 신뢰성 있는 날씨지수이며, 이를 산출하기 위한 전문적 기관이 필요함.
 - 예를 들어, AGROASEMEX 프로그램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경작지 기준 부보범위는 여전히 제한적인데, 그 이유로 효율적인 기상 관련 자료와 리스크 평가 프로세스가 가능한 기상관측소의 부족이 지적되고 있음.
- 한편, 캐나다 FRP의 경우 사료용 작물 재배자의 니즈에 적합하도록 지수형 상품이 개선되어 왔으며, 이에 경작지 형태와 보험금 지급에 따라 다양한 옵션이 개발됨.
 - FRP는 사료용 작물 재배자들이 경작하는 토지의 형태와 경작환경에 따라 보장범위를 달리함.
 - 일간 강우량 상한(daily rainfall cap)도 70mm에서 50mm로 하향 조정하였는데, 이는 많은 강우량의 경우 사료용 작물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므로 동 차이만큼을 일간 강우량으로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사료용 작물 재배자들에게 유리하도록 제도를 수정함.

〈표 4〉 Forage Rainfall Plan의 보장옵션

보장플랜 옵션	비고
base plan	5~8월 동안 강우량에 대한 동일한 가중치 적용
monthly weighting	5월: 130%, 6월: 120%, 7월: 120%, 8월: 70% 적용
three-month plan	5~7월 동안 동일 가중치 적용
bimonthly plan	5~6월과 7~8월로 두 개의 보장기간을 통해 보험금을 지급하는데, 5~6월 보험금 청구의 60%, 7~8월에는 보험금 청구의 40%를 합하여 지급

- 또한, 사료용 작물 재배자들로 하여금 온라인을 통해 강우량을 상시 모니터링할 수 있게 함으로써 자신들의 보험금을 산출해 볼 수 있게 하는 등 캐나다의 FRP 프로그램은 지수형 날씨보험 정착의 모범적 사례로 평가되고 있음.

■ 멕시코의 경우에도 지수형 날씨보험 확대를 위해 보험금 지급 옵션이나 판매방식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음.

- 멕시코 AGROASEMEXS의 경우 농작물 피해가 소액일 때 실손보상의 원칙에 입각하여 부분적 보험금 지급 옵션 등을 고려하고 있음.
- 또한, 정부 대신 농민들에게 직접 지수형 날씨보험을 판매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음.
 - 농촌지역에 생산자조합과 같은 단체를 통해 단체보험의 형태로 지수형 날씨보험을 판매하는 것을 고려함.
 - 구체적 방안으로 해당 지역에 기반을 둔 대형 중개기관에 지수형 날씨보험 판매를 위탁하는 방식을 고려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운영비용 및 도덕적 해이 가능성을 줄이고자 함.
 - 아울러, 파트너/대리인 형태의 지수형 날씨보험 운영방안을 고려중인데, 이 경우 보험회사는 리스크를 취급하여 관리하며, 소액금융(microfinance)을 담당하는 대형기관은 판매와 고객서비스를 담당함으로써 시너지 효과 창출을 꾀함.

5. 지수형 날씨보험 활성화를 위한 제언

지수형 날씨보험은 활성화되고 있지 못한 전통적 날씨보험의 대안으로서 날씨리스크 부보를 위해 중요성을 가짐. 그리고 지수형 날씨보험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적극적 홍보활동, 날씨지수 개발, 관련 인프라 구축, 제도적 보완 등이 필요함. 아울러, 상품 표준화와 고객의 다양한 니즈 충족을 절충할 수 있는 상품개발과 날씨지수 개발을 위한 공신력 있는 기관과의 협력 모형 구축 등도 중요할 것임.

■ 지수형 날씨보험은 전통적 날씨보험이 활성화되고 있지 못한 상태에서 각 경제주체의 날씨리스크를 부보할 수 있는 상품으로서 중요성을 가짐.

- 손해사정이 어려운 대재해 및 전통형 날씨보험의 특성으로 해당 상품거래가 부진함에 따라 지수형 날씨보험이 이들의 대체 상품으로 거론되어 옴.
- 멕시코의 예처럼 지수형 날씨보험을 통한 비용이 재해 시 주정부의 직접적 보상금 지급보다 더 저렴했다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동 상품의 유용성에 더욱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음.

■ 한편, 지수형 날씨보험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일반 경제주체에 대한 적극적 홍보활동, 날씨 관련 지수개발 및 전문인력 등 인프라 구축, 제도적 보완 등이 필요함.⁴⁾

- 적극적 홍보와 마케팅 활동으로 각 경제주체, 특히 대기업의 날씨리스크 헤지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전통적 날씨보험 형태만으로는 손해사정이 어려운 데다 시장성도 낮으므로 지수형 날씨보험을 통해 상품의 표준화와 고객의 다양한 니즈 충족을 절충할 수 있는 상품 개발이 중요한 것임.
 - 멕시코 사례에서처럼 농민과 각종 기업체를 대상으로 지수형 날씨보험을 단체보험 형태로 판매하는 방안과 다른 보험상품과의 통합 판매를 통해 사업비를 절감하는 방안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아울러, 지수형 날씨보험의 투기상품 변질 가능성에 대비해 우리나라도 손실에 따른, 특히 소액 손실일 경우 부분적 보험금을 지급하는 옵션 등 손실보상 원칙에 입각한 보험금 지급 옵션 도입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이러한 상품개발 및 판매에 앞서 신뢰성이 높으면서도 다양한 날씨 관련 지수개발이 전제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전문성과 공신력이 있는 기관과 적극적 협력 모형을 구축해야 함.
- 이에 보험회사들도 날씨 관련 지수형 상품 개발을 위해 관련 전문인력 및 분석시스템 확보 등 인프라 구축을 적극 검토해야 함.
- 마지막으로 지수형 날씨보험 판매로 인해 보험회사가 보유하게 되는 날씨리스크의 효율적 전가를 위해 보험회사의 날씨파생상품 취급 허용 등 관련 제도적 장치 정비와 개선이 필요함.

4) 보험회사 내부자료를 참고함.

〈참 고 문 헌〉

류성경 · 박근홍 · 이광호 · 허준(2004), 『날씨파생상품(Weather Derivatives)의 국내 도입 필요성 및 주요과제』, 삼성금융연구소.

민경욱(2010. 2), 「기후변화관련 신상품의 도입 검토」, 『KRX Market』, 한국거래소.

박철호(2011), 「날씨파생상품 도입에 대한 소고」, 『자본시장 Weekly』 제1호, 자본시장연구원.

보험개발원(2006. 4), 『날씨위험에 대한 손해보험회사의 역할 강화 방안』, CEO Report.

이태열 · 김진억(2006), 『보험기능 파생상품의 상품구분과 규제차익』, 보험개발원.

Barrieu, P. and O. Scaillet(2008. 1), "A Primer on Weather Derivatives", *Mimeo*.

Hazell, P., J. Anderson, N. Balzer, A. H. Clemmensen, U. Hess, and F. Rispoli(2010), *Potential for Scale and Sustainability in Weather Insurance for Agriculture and Rural Livelihoods*, IFAD and WFP, Rome.

Tindall, J.(2006. 5), *Weather Derivatives: Pricing and Risk Management Applications*, Institute of Actuaries of Australia,.

_____ (2010. 5), *Weather and Carbon Derivatives: Pricing and Managing Risk in ART Market*, Institute of Actuaries of Australia.

<http://economy.hankooki.com/lpage/society/201002/e2010020218141993830.htm>

http://www.aflnews.co.kr/aflnews/news/news_contents.asp?news_code=2010102109104&c_code=0906

<http://www.investopedia.com/articles/optioninvestor/05/052505.asp>

<http://www.wrma.org/default.asp>

http://www.wrma.org/risk_history.html

<http://media.daum.net/economic/industry/view.html?cateid=1038&newsid=20060601140805083&p=Edaily>

◆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 관련 동향과 시사점

변혜원 연구위원

1. 검토 배경

최근 금융산업에 대한 신뢰도 하락이 주요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이행을 통해 소비자 신뢰를 회복하고 기업 또는 산업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해야 할 필요가 있음.

■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으며, 이러한 관심이 기업의 성과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면서 기업경영에서 고려해야 할 중요한 요소가 됨.¹⁾

■ 아울러 금융위기 이후 금융산업에 대한 신뢰도가 하락하면서, 기업들은 변화된 소비자보호 관련 규제를 준수하는 동시에 사회적 책임 이행을 통해 소비자 신뢰를 제고할 필요성이 높아짐.

○ 일례로 Goldman Sachs에 임원이었던 Greg Smith의 뉴욕타임즈 기명 논평 페이지 기고문은 금융회사의 윤리경영에 대한 문제를 부각시켰으며, 금융산업에 대한 불신을 심화시킴(2012년 3월).

■ 국내 기업들, 특히 보험회사의 사회적 책임 이행이 활성화되어 있다고 하기는 어려우며, 관련 활동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도 부족한 것으로 판단됨.

○ 보험회사들도 사회적 책임 활동의 일환으로 사회공헌기금 조성을 통한 공익사업을 추진하거나 일부 보험회사들은 저소득층 및 다자녀 우대 보험상품을 판매함.

1) Ioannou and Serafeim(2010)에 의하면 16년간의 미국 내 상장사 자료를 살펴 본 결과, 최근 사회적 책임을 이행 전략을 사용한 기업은 예전에 비해 증권분석가로부터 더 호의적인 추천을 받았다는 결과를 보임.

- 그러나 관련활동이 일회성 행사로 그치는 경우가 많으며, 최근 도입된 서민우대 자동차보험의 경우에도 홍보부족과 까다로운 가입조건 등으로 인해 비판을 받고 있음.

■ 보험회사들도 사회적 책임 이행의 당위성에 대해서는 동의하나, 보험회사가 책임활동에 대한 경제적 유인을 갖느냐에 대해서는 비관적 의견이 지배적임.

- 아울러 회사의 주요 의사결정자가 단기적 성과에 의해 보상받는다든 점, 이윤극대화 측면에서의 사회적 책임 이행의 효과 측정이 어렵다는 점도 사회적 책임 이행의 장애 요인으로 작용함.

■ 이에 본 연구는 사회적 책임이라는 개념과 관련 연구, 사회적 책임 이행의 구체적 방안들을 살펴보고자 함.

2.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이란 기업 활동이 이해당사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책임을 담당하고자 하는 행위라고 정의할 수 있으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크게 경제적 책임, 법적 책임, 윤리적 책임, 재량적 책임으로 분류할 수 있음.

가.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²⁾의 정의

■ 사회적 책임이란 기업의 활동이 고객, 공급자, 피고용인, 주주, 지역사회, 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책임을 담당함으로써 사회의 이해를 고려하는 기업의 자율규제 형태라고 정의할 수 있으나, 학자, 기관에 따라 다소 상이하게 정의되기도 함.

- 세계은행(World Bank)은 사회적 책임을 영업, 지속가능발전, 크게는 사회 전체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그들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모든 이해당사자와 협력함으로써 윤리적으로 행동하고 지속가능한 경제발전에 공헌하겠다는 기업의 공언이라고 정의함.

2) 문헌에 따라서는 사회적 책임은 기업시민권(Corporate Citizenship)이라고 불리기도 함.

- 한편, EC(European Commission)는 사회적 책임을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사회적, 환경적 관심을 영업활동과 그들의 이해당사들과의 상호작용에 통합시키는 개념이라고 정의하였음.

■ 관련 문헌에서는 Carroll(1979)의 사회적 책임 개념이 널리 사용되고 있는데, 그는 사회적 책임을 크게 경제적 책임, 법적 책임, 윤리적 책임, 재량적 책임으로 분류함.

- 경제적 책임이란 기업이 사회가 원하는 제품과 서비스를 생산하여 적절한 가격에 판매하고 이윤을 창출할 책임을 의미함.
- 윤리적 책임은 법적으로 강제되지는 않으나, 기업이 모든 이해당사자의 기대와 기준 및 가치에 부합하는 행동을 해야 하는 책임을, 재량적 책임은 기부나 사회공헌 등과 관련된 책임을 의미함.
- 한편, 네 가지 분류는 상호배타적인 것은 아니며 경제적인 관심사와 사회적 관심사의 스펙트럼을 반영한 분류라고 할 수 있음.

〈그림 1〉 사회적 책임의 범주

재량적 책임(Discretionary Responsibilities)
윤리적 책임(Ethical Responsibilities)
법적 책임(Legal Responsibilities)
경제적 책임(Economic Responsibilities)

자료: Carroll(1979).

■ Locke(2002)는 여러 문헌에서 사용되고 있는 사회적 책임의 정의를 관련 활동의 동기와 수혜자 차원에서 네 가지 모형으로 분류함.

- 미니멀리스트 모형의 대표적인 예는 Friedman의 정의라고 할 수 있는데, Friedman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주주의 부를 증가시키는 것이라고 보는 견해
 - 기업은 부의 창출을 위해 효율성에 초점을 맞추어야 하며, 최적의 경제성과를 달성하는 것이 기업이 사회에 공헌하는 방법이라는 것임.
- 자선적 모형의 관점은 주주의 부와 효율성의 최적화를 기업의 주 관심사로 두면서, 도덕적 또는 윤리적 동기에 의해서 개별 관리자, 주주, 또는 회사가 자선활동에 참여하는 형태를 띤.

- 한편, 경영은 주주뿐 아니라 기업의 행위에 의해 영향 받을 수 있는 피고용자, 소비자, 공급자, 지역사회 등 다른 집단에 대해서도 책임이 있다고 보는 견해가 포괄적 모형의 관점임.
-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의 수혜자를 기업의 결정에 의해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집단을 넘어서 사회 전체로 두는 개념이 사회운동가모형임.

〈표 1〉 Locke(2002)의 사회적 책임 모형

수혜자 \ 동기	수단적 동기	도덕적 · 윤리적 동기
주주	미니멀리스트 모형	자선적(philanthropic) 모형
이해당사자	포괄적(encompassing) 모형	사회운동가(social activist) 모형

자료: Locke(2002).

■ 이처럼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정의가 상이하므로, 연구 또는 학자에 따라 기업의 행동 중 어디까지를 사회적 책임 이행 활동으로 볼 것인가에 대한 기준도 상이한데, 본고는 Kitzmüller and Shimshack(2012)의 기준을 따르도록 함.

- 이들은 사회적 책임은 관찰가능하고 측정가능한 행동이나 결과물의 형태로 나타난다는 점과 CSP(Corporate Social Performance)는 법에 의해 강제되는 의무적 규제나 표준에 의해 세워진 수준을 능가한다는 점을 사회적 책임의 주요 요소로 이해됨.
- 다시 말해 사회적 책임 이행은 해당 시장이나 경제의 법적 또는 규제력을 지닌 요건 이상의 기업의 사회적 또는 환경적 행위라고 할 수 있음.

나. 사회책임투자(SRI)의 정의

■ 사회적 책임과 함께 자주 사용되는 개념이 사회책임투자(SRI: Socially Responsible Investment)인데, 기업은 SRI를 통해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기도 함.

■ SRI는 재무적 요소뿐 아니라 비재무적 요소인 환경, 사회, 소유 · 경영구조(ESG: Environmental, Social and Governance)를 고려하는 투자를 의미함.

- ESG 관련 이슈가 기업의 가치와 지속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인식되면서 SRI는 지속가능책임투자(Sustainable and Responsible Investment)로 사용되기도 함.
- 또한, 최근에는 SRI를 책임투자(RI: Responsible Investment)로 사용하기도 하는데, 이는 수탁자의 책임을 더욱 강조하는 의미로 이해될 수 있음.

■ 일반적으로 SRI의 실행전략은 크게 선별(Screening), 주주행동주의(Shareholder Activism), 지역사회 투자(Community Investing)로 분류할 수 있으며, 유럽, 호주 등에서는 선별방식을 세분화하여 핵심(Core)SRI와 광의(Broad)SRI로 나누기도 함.

다. 사회적 책임 관련 지표

■ Kinder, Lydenburg, Domini(KLD)지수는 사회적 책임 관련 문헌에서 사용되는 대표적인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 측정 지표인데, 800여 개의 기업들을 아홉 개 분야의 사회적 활동 측면에서 순위를 정하는 방식을 취함.

- 아홉 가지 분야에는 지역사회 관계, 피고용인 관계, 환경 관련 성과, 상품특징, 여성과 소수민족에 대한 대우, 군사계약, 알코올 또는 담배 생산, 도박산업 관련, 핵에너지 관련, 인권 관련 논란에 대상이 되는 분야에의 투자여부 등이 포함됨.

■ SRI의 지표로서 사용되는 Dow Jones Sustainability Indexes(2010)는 기업의 지속가능성 평가기준을 크게 경제, 환경, 사회부문으로 나누어 적용하고 있음.

- 경제부문에는 기업의 소유·경영구조, 위험관리, 행동규칙/규정준수/부패 및 뇌물수수 관련, 산업의 특수성을 고려한 조건 등을 포함
- 환경부문에는 환경부문 보고와 산업의 특수성을 고려한 조건, 사회부문에는 인적자본 개발, 인력의 재능보유, 노동행위지표 등을 포함
- 현재 우리나라와 관련된 지표는 2009년부터 발표된 Dow Jones Sustainability Korea Indexes(DJSI Korea)와 Dow Jones Sustainability Korea 20이 있음.

- 이 밖에도 FTSE4Good Index³⁾는 국제적인 사회적 책임 기준을 만족하는 기업들의 성과를 측정하기 위해 고안된 지표가 사용되기도 하며, Forum Ethibel⁴⁾의 PIONEER와 EXCELLENCE Label, 기업의 사회적 책임 중 기후변화와 관련된 책임에 초점을 둔 Newsweek Green Ranking도 존재함.

3. 사회적 책임 이행의 효과

사회적 책임 이행이 기업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기존 연구들은 분석에 따라 다소 상이한 결과를 제시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연구들은 기존 연구들과 비교할 때 사회적 책임 이행이 실제로 기업성과에 긍정적 영향을 가져온다는 증거를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이해당사자들의 관련 이슈에 대한 관심이 증대된 것에 기인한다고 판단할 수 있음.

가.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도입하는 이유

- Kallenbach(2010)은 기업이 사회적 책임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이유는 크게 도덕적 의무, 지속성, 영업을 하기 위한 필요조건, 명성 등으로 정리함.
- McWilliams and Siegel(2001)은 사회적 책임을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설명하였는데, 사회적 책임을 준수하는 기업의 제품에 높은 가격을 지불할 용의가 있는 소비자들을 주 고객으로 하는 경우 기업은 사회적 책임으로 인한 추가적 비용을 감수한다고 설명
- Kitzmüller and Shimshack(2012)은 전략적 사회적 책임이 제기되는 채널을 크게 시장, 정치 등으로 나누어 설명함.
 - 사회적 책임은 고용자와 피고용자와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고 고전적 노동시장 결과를 변화시킬 수 있으며, 사회적 소비자의 선호 또한 사회적 책임을 유도할 수 있음.

3) http://www.ftse.com/Indices/FTSE4Good_Index_Series/index.jsp

4) <http://forumethibel.org/content/missie.html>

- 더욱이 광고 및 마케팅 연구에서는 CSR을 상품차별화 방법의 하나로 보고 있음.
- 또한, 기업들은 잠재적 사회운동이나 정부의 감독으로 인한 비용상승, 수요감소, 경쟁열위 등의 위험을 미리 방지하기 위해 사회적 책임 이행을 사용하기도 함.

나. 사회적 책임 이행과 기업성과

■ 기존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재무성과 간의 관계를 다룬 분석 결과들은 일관된 실증적 결과를 제시하고 있지는 못하고 있으며, 사회적 책임의 범위나 성과의 측정방법 등의 차이에 따라 다소 다른 분석 결과를 보여 왔음.

- 이러한 실증분석들은 기업의 활동이 직접적 이해당사자 이상으로 확대될 경우, 기업의 부를 창출하는 경제적 생존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 연구가 대부분⁵⁾
- 여기서 좁은 의미의 주요 이해당사자에는 주주, 피고용인, 기타 자원 공급자(other resource suppliers), 고객, 지역사회, 자연환경이 포함됨.⁶⁾

■ 최근 한 연구에 의하면 지속성장 경영 문화를 자발적으로 도입한 기업들이 주식시장과 회계적 성과 측면 모두에서 장기적으로 다른 기업들을 능가하는 성과를 보여주었다는 결과를 보임.⁷⁾

- 동 연구는 1990년 중반부터 환경 및 사회 관련 제도를 도입한 90개의 기업(고지속가능성 기업: High Sustainability Firms)과 그러한 제도를 거의 도입하지 않은 기업(저지속가능성 기업: Low Sustainability Firms)의 포트폴리오를 비교함.
- 시장 가격 측면에서 1993년 초 고지속가능성 기업의 가치가중(value-weighted)포트폴리오에 투자한 1 USD는 2010년 말 22.6 USD가 되었을 반면, 저지속가능성 기업의 포트폴리오에 대한 동일한 투자는 2010년 말 15.4 USD가 되었을 것이라는 결과를 제시
- ROE 및 ROA 관점에서도 고지속가능성 기업이 저지속가능성 기업보다 높은 성과를 보인다는 결과를 보임.

5) Hillman and Keim(2001).

6) Clarkson(1995).

7) Eccles et al.(2011).

■ IBM의 고위간부들을 대상으로 한 환경 및 지속가능성 관련 설문조사 결과에 의하면 응답자의 69%가 사회적 책임 이행이 새로운 이익창출 기회를 마련한다고 응답함 (Riddleberger and Hittner 2009).

- 설문대상 중 우수기업들의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소비자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관심을 잘 이해하고 있었으며 그들의 사회적 책임 목표 달성을 중요시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 Hillman and Keim(2001)은 이해당사자 관리(Stakeholder Management)는 주주 가치 창출(Shareholder Value Creation)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지만, 사회이슈 참여(Social Issue Participation)는 주주가치 창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결론을 제시함.

- 1994~1996년 사이 308개 회사의 데이터를 사용하였으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CSP: Corporate Social Performance)을 크게 이해당사자 관리와 사회이슈 참여로 나누어 분석함.
- 주주가치 창출의 측정치로서는 MVA(Market Value Added)를 사용하였으며, 이해당사자 관리의 측정치로서는 Kinder, Lydenburg, Domini(KLD)지수를 사용함.
 - MVA는 시장가치(market value)와 자산(capital)의 차이로 계산하는데, 여기서 시장가치는 주식시장에서의 회사가치를, 자본은 그 회사의 부채와 자본을 의미함.

4. 사회적 책임 이행 현황

최근 이해당사자들의 사회적 책임 이행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으며, 사회적 책임을 투자 결정 요인으로 고려하는 사회책임투자 관련 시장도 확대되고 있는데, 이러한 추세는 계속될 것으로 예상됨.

가. 국제기구 차원의 사회적 책임 이행 유도 노력

■ 2000년에 발족된 UN Global Compact는 인권, 노동기준, 환경, 반부패와 관련된 10대 원칙을 위한 전략정책계획이라고 할 수 있음.

- 동 계획에는 135개국의 6천여 개 기업을 포함하여 8천 개 이상이 가입하였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129개의 기업이 가입하고 있음(2011년 7월 기준).
- 보험회사 중에는 교보생명, 동부화재가 각각 2010년과 2011년부터 동 계획에 참여하고 있음.

■ 국제 표준화 기구(ISO: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는 사회적 책임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기 위해 자발적 국제표준인 ISO 26000: Guidance for Social Responsibility를 발표⁸⁾함.

- ISO 26000은 자발적 규준이며, 자격기준으로 사용되는 것은 아님.
- 동 표준은 사회적 책임의 핵심 사안으로서 조직 거버넌스(Organization Governance), 인권, 노동관행(Labour Practices), 환경, 공정운영관행(Fair Operating Practices), 소비자 관련 사안, 지역사회 참여 및 발전 등의 7가지 요소를 고려하고 있음.⁹⁾
- 2010년 7월 기준으로 ISO/WG SR(ISO Working Group on Social Responsibility)은 99개 회원국과 42개의 liaison 조직으로부터 450명의 전문가들과 210명의 참관인으로 구성되어 있음.

■ OECD는 다국적기업에 대한 지침(OECD Guidelines for Multinational Enterprises) 이행지원과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국제투자 향상 노력의 일부로 사회적 책임을 다루어 왔음.¹⁰⁾

■ UN의 Principles for Responsible Investment Initiative(PRI)는 여섯 개의 책임투자 원칙(Principles of Responsible Investment)을 실행하기 위해 구성된 국제적 투자자 네트워크임.¹¹⁾

- 2005년에 UN 사무총장 주도 하에 세계 대형 기관투자자들이 참여하여 개발하였으며, 12개국의 20개 기관투자자들이 동 그룹에 참여하기로 동의함.

8) http://www.iso.org/iso/iso_catalogue/management_and_leadership_standards/social_responsibility/sr_discovering_iso26000.htm

9) KSA 한국표준협회(2010).

10) http://www.oecd.org/department/0,3355,en_2649_33765_1_1_1_1_1,00.html

11) <http://www.unpri.org>

- 책임투자 원칙은 투자자들의 의사결정과 소유권 실행에 있어 환경, 사회, 소유·경영 구조(ESG) 이슈들을 고려하도록 하는 자발적 체계를 제공함.
- 6개 분야로 나누어져 있으며, 33개의 주요 실천 프로그램으로 구성됨.
- 2011년 10월 기준으로 915개 이상의 투자기관이 서명하였으며, 이들의 자산관리 규모는 약 30조 원에 해당됨.

■ 사회적 책임의 중요성이 증대되면서, SRI 관련 네트워크들을 통하여 책임투자 원칙이 마련되었으며, 관련 시장의 규모도 확대되고 있음.

- 대표적인 SRI 관련 네트워크로는 UN의 PRI, 유럽사회책임투자포럼(Eurosif), 캐나다사회책임투자포럼(SIO), 미국사회책임투자포럼(USSIF), 호주 아시아사회책임투자포럼(RIAA) 등이 있음.

나.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 현황 및 SRI 시장규모

■ Fortune Global 250 기업 중 반 이상이 사회적 책임에 관한 정기적 보고를 하고 있고, 미국 대기업을 1/3 이상은 사회 및 환경 관련 자격(certifications)을 가지고 있으며, 전문적으로 관리되는 투자의 약 11%가 SRI로 인증된 투자인 것으로 나타남¹²⁾(2005년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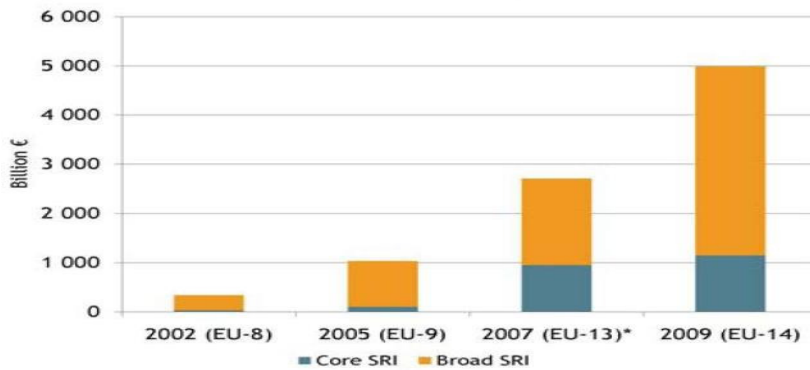
■ 유럽의 SRI 자산규모는 5조 유로(2009년 12월 말 기준)로 추정되는데, 이 중 Core SRI가 1조 2천억 유로, Broad SRI가 3조 8천억 유로임(유럽사회책임투자포럼[Eurosif], 2011).¹³⁾

- 2005년 2조 7천억 유로 규모였던 유럽 SRI 시장은 2009년 5조 유로로 성장하여 87%의 성장률(CAGR 37%)을 보임.

12) Kitzmueller and Shimshack(2012).

13) <http://www.eurosif.org/about-eurosif/mission>

〈그림 2〉 유럽의 core, broad SRI: 2002~2009



주: 2002년에는 8개국, 2005년에는 9개국, 2007년에는 13개국, 2009년에는 14개국이 포함됨.

자료: Eurosif European SRI Survey(2010).

다. 해외 보험회사의 사회적 책임 이행 현황

■ 보험회사들은 각사의 웹페이지를 통해 사회적 책임 보고를 하고 있는데, 사회적 책임 관련 핵심 지표 및 지표 달성 현황과 함께 보유하고 있는 사회적 책임 관련 공인자격들, UN Global Compact 관련 원칙들을 공시하고 있음.

■ Aviva의 경우 사회적 책임 핵심 지표들을 신뢰 및 투명성, 기후변화 및 환경, 인재 모집 및 유지, 지역사회에 범주로 분류하여 공시하고 있으며, 보유하고 있는 공인지표들도 소개하고 있음.¹⁴⁾

○ 국제 기업 지속성장 지수의 하나인 DJSI과 FTSE4Good에 11년 동안 포함되었으며, 2003년 이래로 Ethibel PIONEER와 Ethibel EXCELLENCE로 선택되었음.

- 이 밖에도 Aviva는 CDP(Carbon Disclosure Project)가 평가하는 기후변화리스크관리 관련 성과에서 보험부문에서 4위를 차지하였으며, Newsweek 2011 Green Rankings에서도 세계 500개 회사 중 28위를 차지함.

○ 특히 Aviva는 ClimateWise 원칙(ClimateWise Principle for Insurers)의 공동저자이며 창립 서명인데, 동 원칙은 손해보험회사, 재보험회사, 보험중개자, 생명보험회사, 자산관리 분야를 모두 포괄함.

14) AVIVA(2011).

■ Allianz는 70여개의 세계 시장에 존재하는 조직들의 효과적 사회적 책임 전략 이행을 위해 2011년에 Allianz4Good Network를 설립함.¹⁵⁾

○ Allianz는 소액보험 부문에서 3,450만 파운드의 수입을 얻었으며, 260만 명의 소액보험 가입 고객을 보유하고 있음(2011년 기준).

○ 또한, 2011년 기준으로 재생에너지 프로젝트에 약 13억 파운드를 투자하였으며, 경영진 중 여성의 비율, 관리자 중 여성의 비율, 피고용인 교육투자 규모 등도 공시하고 있음.

■ Munich Re는 사회적 책임과 관련하여 전략 및 거버넌스, 보고와 소통(reporting and communication), 사회적 책임 관련 상품, 환경관리 시스템 및 탄소중립, 사회적 공헌 등의 다섯 가지 핵심 활동을 제시하고 있음.

■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해외 주요 보험회사들은 사회적 책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특히 기후변화 관련 이슈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고 있음.

○ 보험회사들은 지속성장을 위해 재생에너지 사업에 직접 투자하기도 함(〈표 2〉 참조).

〈표 2〉 보험회사의 SRI 투자

회사	투자 내용
Allianz	독일에 3개 풍력발전 시설 소유, 운영, 이탈리아에 네 번째 풍력발전 시설을 개발 중 (이들 시설들에 대한 투자는 2억 2,000만 달러 규모)
AIG	스페인에 18메가와트 태양광발전 시설에 투자
Swiss Re	1996년부터 대체에너지, 수질 및 폐기물 처리, 재활용 등에 직접투자 포트폴리오를 구성(2006년 기준 3억 2,000만 달러 규모)
Prudential	2007년 말까지 풍력 생산에 5억 달러를 투자함 (약 50만 가구에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정도)
Allstate	환경 친화적인 투자에 2억 달러를 사용하였으며 규모를 두 배로 늘릴 계획

자료: Mills(2009).

■ 이 밖에도 보험회사들은 개발도상국에 소액보험(microinsurance)을 제공함으로써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기도 하는데, 소액보험은 위험의 발생가능성과 비용에 비례하는 보험료를 받고 특정한 손인으로부터 저소득 계층을 보호하는 보험상품으로 정의됨.¹⁶⁾

15) Allianz Group(2012).

- 개발도상국의 소액보험 잠재시장 규모는 15억에서 30억 건으로 추정되며, 현재는 잠재시장의 약 5% 정도가 소액보험에 의해 보장받고 있음.¹⁷⁾
- LIMRA(2010)의 조사에 따르면 아시아, 남미, 캐리비언 지역을 포함하는 설문대상 회사 중 32%만이 소액보험 영업을 하고 있었으며, 나머지 회사 중 약 30%가 곧 소액보험 영업을 시작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독일 Allianz, 네덜란드의 Eureko Re, Munich Re, Swiss Re 등 여러 보험회사들이 소액보험을 제공하고 있으며, AIG의 경우 2007년 225만 건의 계약으로부터 4,500만 달러의 보험료를 거수함.¹⁸⁾

라. 국내 보험회사의 사회적 책임 이행

■ 생명보험 사회공헌위원회는 청소년 보험금융교육 홈페이지¹⁹⁾를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 초에는 고금리 학자금 대출 대학생을 대상으로 전환대출을 시작함.

- 학자금 저금리 환승사업의 경우 저소득층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생명보호협회가 대출재원을 제공하고 사회연대은행이 지원자를 선정함.
- 지난 1월 금융감독원은 ‘1+1 보험료 기부제도’를 추진하기로 하였는데, 보험계약자가 납입보험료의 1%에 해당하는 금융을 특약형으로 기부하는 경우, 보험회사가 그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기부해 기금을 조성하는 방식임.²⁰⁾
 - 기금은 저소득층 어린이를 위한 무료 의료비보험 가입 등 사회공헌 활동에 활용할 예정임.

■ 작년 10월에 저소득층을 지원하기 위해 출시된 서민우대자동차보험의 경우 올해 1월 기준으로 가입자 수는 약 2천 명인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이는 금융감독원이 추정한 대상자 200만 명의 0.1%에 불과한 수준임.

16) 유경원(2010).

17) Moura and Williams-Baron(2010).

18) Mills(2009).

19) <http://www.lifeinsedu.or.kr>

20) 서울경제(2012. 1. 17).

- 중고자동차를 1대 소유하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보험료를 17% 할인해 주는 상품임.
- 기초생활수급자는 누구나 가입가능하며, 저소득계층 중 10년 이상 경과한 1,600cc 이하의 일반승용차 또는 1톤 이하 화물차량을 소유한 사람은 가입 가능함.
- 도입 초기 홍보부족과 가입절차의 어려움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었으며, 관련 사항들을 개선하고 있는 과정에 있음.

■ 요약하면 우리나라의 사회적 책임 이행은 Carroll의 분류 중 주로 재량적 책임에 중점을 두어 적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SRI나 기후변화 관련 책임 이행 활동은 활성화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5. 요약 및 시사점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는 사회적 책임 이행 여부가 기업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력을 강화시킬 것으로 예상됨. 따라서 국내 보험산업 또한 관련 사안에 대한 이해를 높일 필요가 있으며, 이행 방안 중 실행 가능하고 효과적인 방안을 검토하고 해당 방안을 우선적으로 적용해야 할 것임.

■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이란 기업이 고객, 공급자, 피고용인, 주주, 지역사회, 환경 등 관련 이해당사자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의사결정을 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크게 경제적 책임, 법적 책임, 윤리적 책임, 재량적 책임으로 분류할 수 있음.

■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범위가 어디까지인가에 대해서는 이견이 존재하는데, 기업의 책임은 이윤극대화를 통해 주주의 부를 증가시키는 것이라는 견해와 주주 이외의 이해당사자들, 더 나아가서는 간접적 영향을 받는 사회 전체를 고려해야한다는 견해도 존재함.

- Friedman은 기업은 부의 창출을 위해 효율성에 초점을 맞추어야 하며, 최적의 경제성 과를 달성하는 것이 기업이 사회에 공헌하는 방법이라고 주장함.

- Locke(2002)는 사회적 책임에 관한 정의들을 Friedman의 견해에 해당되는 미니멀리스트 모형, 자선적 모형, 포괄적 모형, 사회운동가적 모형 등 네 개의 범주로 분류함.
- 현재 기업들이 따르고 있는 모형은 대부분 자선적 모형과 기업의 의사결정에 주주뿐 아니라 다른 이해당사자들도 고려해야 한다고 보는 포괄적 모형이라고 할 수 있음.

■ 그러나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은 소비자의 수요나 잠재적 고용자들의 취업 의사 결정 등을 통해 기업의 이윤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으며, 결국 도덕적 동기가 아닌 이윤극대화만을 고려하는 기업일지라도 의사결정 시에 사회적 책임을 고려하게 될 것임.

- 사회적 책임 이행에 대한 관심은 증대되고 있으며 사회적 책임을 투자 결정 요인으로 고려하는 사회책임투자 관련 시장도 확대되고 있는데, 이러한 추세는 계속될 것으로 예상됨.

■ 따라서 국내 보험산업 또한 관련 사안에 대한 이해를 높일 필요가 있으며, 이행 방안 중 실행 가능하고 우선 적용이 가능한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임.

- 실제로 주요국의 대규모 기업들은 사회적 책임 관련 공시 등 관련 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으며, 보험회사들도 소액보험사업 및 기후변화 관련 활동 등을 통해 사회적 책임 이행을 실천하고 있음.
- 국내 보험회사들도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상품을 도입하거나, 금융교육을 제공하는 등 사회적 책임 활동을 하고 있으나, 조금 더 적극적인 책임이행 방안들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참 고 문 헌〉

금융감독원·금융투자협회(2011. 10), 「금융투자회사의 윤리·준법경영 및 사회공헌활동 추진」, 보도자료.

금융감독원·전국은행연합회(2011. 3), 「은행 사회공헌활동 공시 기준 강화」, 보도자료.

노희진(2007. 6), 「SRI의 국제 동향과 국내 발전 방향」, 한국증권연구원.

서울경제(2012. 1. 17), 「보험료 기부제도 시행: 가입자가 일정비율 낸 만큼 보험사도 기금 적립」.

연태훈(2012. 2), 「최근의 사회책임투자(SRI) 동향과 시사점」, 금융포커스, 금융연구원.

유경원(2010), 「저소득계층의 보험접근성 제고를 위한 소액보험 활성화 방안」, 『보험동향』 2010년 여름호, 보험연구원.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2008), 『사회책임투자 지속가능한 미래를 열다』, 한국사회책임투자 포럼.

한국표준협회(2010), 「ISO 26000 이행수준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Allianz Group(2012), *Highlights: Sustainability Performance 2011*.

AVIVA(2011), *Securing Our Future: Corporate Responsibility Report*, 2-11.

Carroll, Archie(1979), "A Three-Dimensional Conceptual Mode of Corporate Performance," *The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4(4).

Clarkson, Max(1995), "A Stakeholder Framework for Analyzing and Evaluating Corporate Social Performance,"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20(1).

Craig, Susanne and Landon Thomas Jr.(2012. 3), "Public Rebuke of Culture at Goldman Opens Debate", *The New York Times*.

Dow Jones Sustainability Indexes(2011), "Dow Jones Sustainability World Indexes Guide Book," Dow Jones Indexes.

Eccles, Robert, Ioannis Ioannous, and George Serafeim(2011), "The Impact of a Corporate Culture of Sustainability on Corporate Behavior and Performance," *Working Paper*, 12-035, Harvard Business School.

- Eurosif(2010), *European SRI Study 2010*, Eurosif.
- Hillman, Amy and Gerald Keim(2001), "Shareholder Value, Stakeholder Management, and Social Issues: What's the Bottom Line?" *Strategic Management Journal*, 22.
- Ioannou, Ioannis and George Serafeim(2010), "The Impact of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on Investment Recommendations," *Working Paper 11-017*, Harvard Business School.
- Kallenbach, Scott(2010),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LIMRA's MarketFacts Quarterly*, LIMRA.
- Kitzmueller and Shimshack(2012), "Economic Perspectives on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Journal of Economic Literatures*, 50(1).
- Locke, Richard(2002), "Note on Corporate Citizenship in a Global Economy," memo, Sloan School of Management and Department of Political Science, MIT.
- McWilliams, Abigail and Donlad Siegel(2001),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A Theory of the Firm Perspective," *The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26(1).
- Mills, Evan(2009), "From Risk to Opportunity: Insurer Responses to Climate Change 2008," *Ceres Report*.
- Moura, Claudia and Ruthine Williams-Baron(2010), "Microinsurance: Beyond Social Responsibility," LIMRA.
- Riddleberger, Eric and Jeff Hittner(2009. 7),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Much More Talk Than Action," *Forbes. com*.

Ⅱ. 경제금융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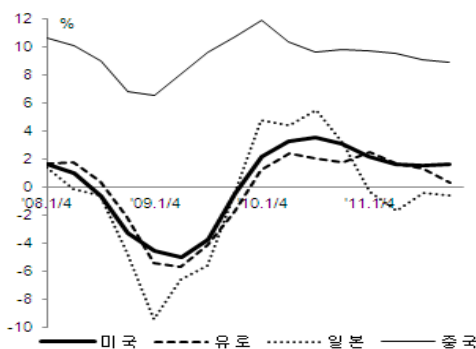
1. 세계경제

2011년 4/4분기 세계경제 성장률은 구조적 요인¹⁾에 의한 선진국의 경기 부진과 이에 따른 신흥국의 수출 감소 등의 영향으로 전분기에 이어 둔화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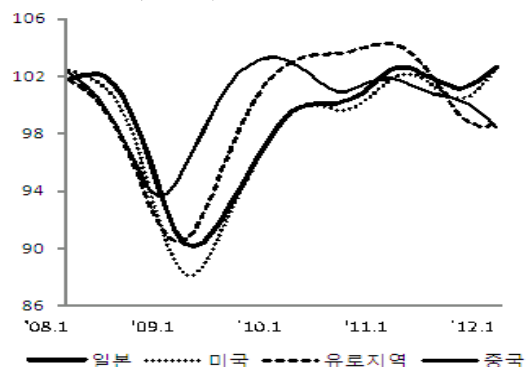
■ 세계경제 성장률은 2011년 4/4분기 들어서도 선진국의 경기 부진 등으로 전분기에 이어 하락함.

- 선진국은 고용여건 개선 지연, 주택경기 부진, 정부와 민간의 동반 긴축 등 경제성장에 걸림돌이 되는 구조적 요인으로 전분기대비 제로 성장률에 근접함.²⁾
- 신흥국은 유로지역의 재정위기 심화로 금융과 무역 부문이 영향을 받으면서 성장속도 둔화가 지속됨.

〈그림 1〉 주요국 경제성장률



〈그림 2〉 주요국 경기선행지수



1) 고용여건 개선 지연, 주택경기 부진, 정부와 민간의 동반 긴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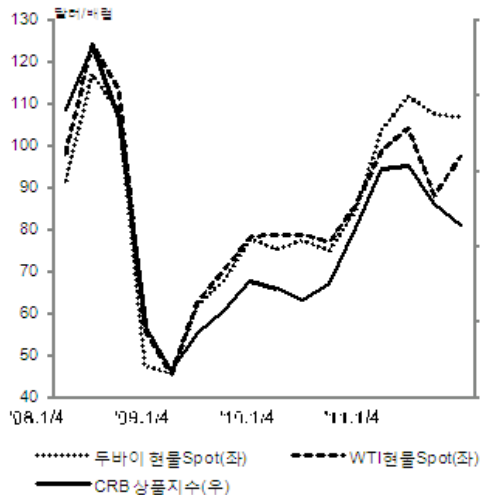
2) 주요 선진국(OECD)의 실질 GDP 전분기대비 증가율은 3/4분기 0.6%에서 4/4분기 0.1%로 하락

- 경기선행지수의 경우 유로지역과 중국은 하락하였으나 미국 등은 상승세로 전환되면서 혼재된 모습을 보임.³⁾

■ 2011년 4/4분기 세계 소비자물가는 국제유가가 중동지역의 지정학적 분쟁으로 상승하였으나 곡물 및 원자재 가격 하락과 세계경제 부진으로 상승률이 다소 하락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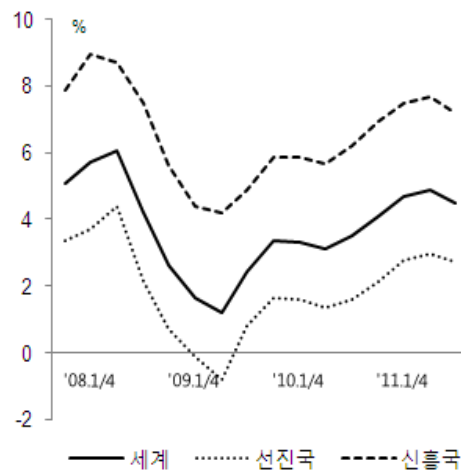
- WTI 및 두바이 국제유가는 4/4분기 배럴당 평균 102.0달러를 기록하여 전분기대비 5.1% 상승하였으나 CRB지수⁴⁾는 전분기대비 4.5% 하락함.
- 세계 소비자물가 상승률(전년동기대비)은 3/4분기 4.9%에서 4/4분기 4.5%로 낮아짐.
- 선진국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경기부진과 예비 생산여력 상존으로 3/4분기 3.0%에서 4/4분기 2.7%로 낮아졌고, 신흥국의 경우 세계경기 둔화로 같은 기간 7.7%에서 7.2%로 하락함.

〈그림 3〉 국제유가 · 원자재가격 추이



주: CRB 상품지수 1967=100
자료: Bloomberg.

〈그림 4〉 세계 소비자물가 상승률 추이



주: 전년동기대비 상승률.
자료: IM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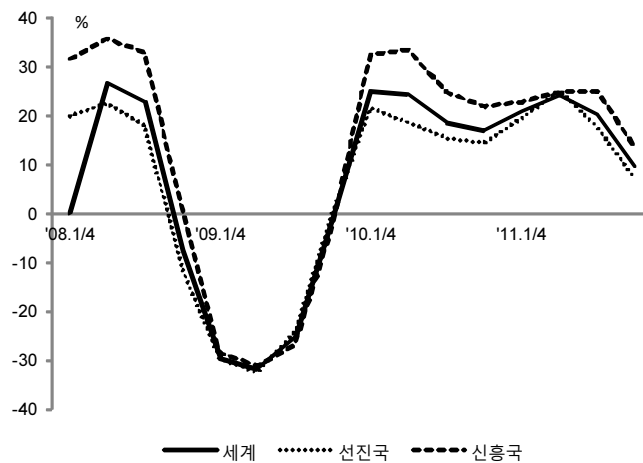
3) Markit의 글로벌 생산 PMI(구매자관리지수)는 2011년 12월 경기회복 기준인 50 이상으로 상승하였고 2012년 1월과 2월 54.6, 55.5로 높아짐에 따라 제조업의 경우 완만한 회복세를 보임.

4) 곡물, 원자재, 원유 등의 가격지수

■ 2011년 4/4분기 세계무역액은 세계경기 부진과 재정위기에 따른 유럽의 수입 수요 감소에 영향을 받아 증가율이 크게 하락함.

- 세계무역액(수출액+수입액) 전년동기대비 증가율은 세계경기 둔화로 3/4분기 20.1%에서 4/4분기 9.4%로 낮아짐.
- 4/4분기 선진국과 신흥국의 무역액 전년동기대비 증가율은 3/4분기(17.7%, 24.9%)보다 각각 10.6%p, 11.3%p 낮아진 7.1%와 13.6%로 나타남.

〈그림 5〉 세계 무역액 증가율 추이



주: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자료: IMF.

가. 미국경제

2011년 4/4분기 미국경제는 고용여건 개선과 민간소비 증가에 힘입어 완만한 회복세를 이어감. 소비자 체감경기는 2011년 중반 수준으로 회복되었고 수출, 고정자본 투자, 생산은 완만하게 늘어남. 반면, 주택시장은 가격하락으로 여전히 침체 국면을 벗어나지 못함.

〈최근 동향 및 전망〉

■ 2011년 4/4분기 미국경제는 대내외 부문에서의 활력이 다소 회복되면서 전분기대비 0.7% 성장함.

- 민간소비는 고용여건 개선, 실질임금소득 증가 등에 힘입어 서비스부문 지출이 전분기대비 1.2% 증가하였고 재화부문 지출이 1.2% 증가하여 전분기대비 0.5% 늘어남.
- 고정자본투자는 설비투자자와 주택투자 지출이 전분기대비 각각 0.7%, 2.8% 증가하여 전분기대비 1.1% 늘어났으며, 전체 민간투자는 민간 재고조정 증가에 힘입어 전분기대비 4.8% 증가함.
- 수출과 수입은 전분기대비 각각 1.0%, 0.9% 늘어나 세계경기 부진에 여전히 큰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정부지출은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지출 긴축 노력으로 전분기대비 1.1% 감소함.

〈표 1〉 미국의 실질 GDP 증가율

(단위: 전분기대비 증가율, %)

구분	2010	2011	2010				2011			
	연간	연간	1/4	2/4	3/4	4/4	1/4	2/4	3/4	4/4
실질GDP	3.0	1.7	1.0	0.9	0.6	0.6	0.1	0.3	0.5	0.7
민간소비	2.0	2.2	0.7	0.7	0.7	0.9	0.5	0.2	0.4	0.5
서비스	0.9	1.4	0.2	0.6	0.4	0.3	0.2	0.5	0.5	0.2
재화	4.3	3.7	1.6	0.9	1.2	2.0	1.2	-0.4	0.3	1.2
민간투자	17.9	4.7	7.1	6.0	2.2	-1.8	0.9	1.6	0.3	4.8
설비	4.4	8.7	1.5	4.4	2.7	2.1	0.5	2.5	3.7	0.7
주택	-4.3	-1.3	-4.1	5.3	-7.8	0.6	-0.6	1.0	0.3	2.8
수출	11.3	6.8	1.8	2.4	2.4	1.9	1.9	0.9	1.1	1.0
수입	12.5	4.9	3.0	5.0	2.9	-0.6	2.0	0.3	0.3	0.9
정부지출	0.7	-2.1	-0.3	0.9	0.2	-0.7	-1.5	-0.2	0.0	-1.1

자료: U.S. Department of Commerce(2012, 2), Bureau of Economic Analysis.

■ FOMC⁵⁾는 2월 들어 1월 전망과 달리 글로벌 금융시장 경색 완화, 고용여건 개선, 소비 및 고정투자 지출 증가에 힘입어 미국의 완만한 경기 회복세가 2012년 초반에도 유지될 것으로 전망함.

○ FOMC는 2012년 1월 전망에서 고용여건 개선 부진, 세계경기 둔화 등의 이유로 2012년 성장률을 2.2~2.7%로 하향 조정한 바 있음.

〈표 2〉 미국의 주요 경제지표

구분	2011	2010			2011				2012	
	연간	2/4	3/4	4/4	1/4	2/4	3/4	4/4	1월	2월
실업률 ¹²⁾ (%)	9.0	9.6	9.5	9.6	9.0	9.0	9.1	8.7	8.3	8.3
(u-6) ¹¹⁾ (%)	15.9	16.7	16.7	16.8	15.9	16.0	16.2	15.6	15.1	14.9
비농업취업자 증감 ¹⁾ (천 명)	460	588	-136	461	576	389	383	492	284	22.7
실업수당 청구자수 ¹⁴⁾ (만 명)	40.9	46.7	46.3	43.6	40.7	42.6	41.4	39.2	37.7	35.6
소비자물가 상승률 ²⁾ (%)	3.2	1.8	1.2	1.3	2.1	3.4	3.8	3.3	2.9	2.9
근원 소비자물가 상승률(%)	1.7	0.9	0.9	0.7	1.1	1.5	1.9	2.2	2.3	2.2
생산자물가 상승률 ²⁾ (%)	6.0	4.4	3.8	3.8	4.9	6.9	6.8	5.4	4.1	3.3
근원 생산자물가 상승률(%)	2.4	1.1	1.5	1.4	1.8	2.2	2.6	2.9	3.0	3.0
소매판매 증가율 ³⁾ (%)	7.9	1.6	0.9	3.2	-3.8	10.0	-1.1	6.8	-2.0	-
소비자신뢰지수 ⁷⁾	58.2	58.2	50.9	57.0	66.9	61.8	50.3	53.6	61.5	70.8
주택착공호수 증가율 ⁵⁾ (%)	6.7	-2.1	-2.9	-7.8	10.1	3.7	0.1	9.4	3.5	-
주택가격지수 ⁶⁾	140.0	147.4	146.1	142.8	141.3	141.1	140.2	137.4	-	-
산업생산지수 상승률 ⁹⁾ (%)	4.2	1.7	1.6	0.8	1.2	0.2	1.5	0.9	0.4	0.4
산업생산가동률 ¹³⁾	77.3	74.0	75.5	76.1	76.8	76.7	77.6	78.1	78.8	78.7
ISM제조업PMI	55.6	57.6	55.2	57.9	61.1	56.6	52.1	52.4	54.1	52.4
출하대비 재고율 ¹⁰⁾ (%)	1.33	1.32	1.33	1.33	1.31	1.33	1.33	1.33	1.33	-
경기선행지수 ⁸⁾	-	109.8	109.7	111.3	113.4	114.7	93.8	94.1	94.9	-

주: 1) 전분기대비 증감, 월별통계는 3개월 이동평균 증감, 2) 1982-84=100,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3) 계절조정, 전분기 대비 증가율, 월별통계는 3개월 이동평균 증가율, 4) 전분기대비 증가율, 월별통계는 3개월 이동평균 증가율, 5) S&P/Case-Shiller 20대 도시 주택가격 계정조정, 2000. 1=100, 6) 1985=100, 7) 1985=100, 8) 2004=100, 2011 3/4분기부터 지수항목 조정, 9) 전분기대비 상승률, 월별통계는 3개월 이동평균 증가율, 10) 제조업부문, 계절조정, 11) 구직포기자, 비자발적 파트타임 취업자 포함, 16세 이상, 계절조정, 12) 16세 이상, 계절조정, 13) 2007=100, 14) 해당 기간의 청구자수 평균.

자료: U.S. Department of Commerce; Bureau of Labor Statistics; The Conference Board.

5) FOMC(2012. 2), Minutes of the Federal Open Market Committee.

〈고용과 물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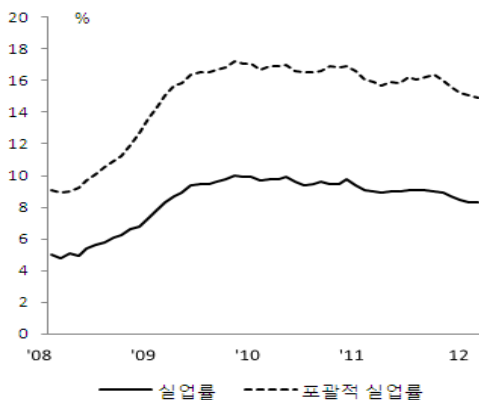
■ 2011년 4/4분기 고용여건은 실업률 하락, 비농업 취업자 증가, 실업수당 청구자 감소 등 개선되는 모습을 보임.

- 4/4분기 중 실업률은 전분기보다 0.4%p 하락한 8.7%를 기록하였으며, 포괄적 실업률(U-6)⁶⁾은 전분기보다 0.6%p 하락한 15.6%를 기록함.
- 비농업 취업자 수는 3/4분기 38만 3천 명에서 4/4분기 49만 1천 명으로 증가함.
- 신규 실업수당 청구자(월 평균)는 3/4분기 41만 4천 명에서 4/4분기 39만 2천 명으로 감소함.

■ 2011년 4/4분기 소비자물가는 근원소비자물가 상승으로 전년동기대비 3.3% 상승하였으나 상승률은 에너지 가격 상승률 둔화로 전분기보다 0.5%p 낮아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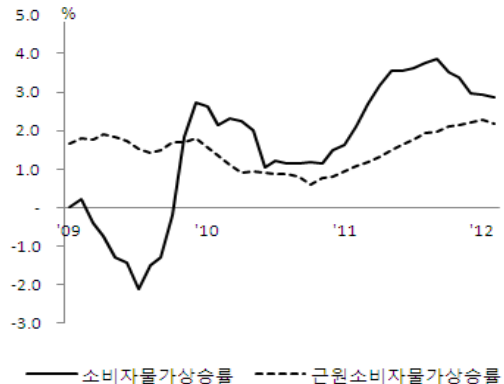
- 4/4분기 근원소비자물가는 의료비, 교육, 여가, 통신 등의 가격 상승으로 전년동기대비 2.2% 상승하였고 상승률도 전분기보다 0.3%p 높아짐.
- 4/4분기 에너지가격은 전년동기대비 11.1% 상승하였으나 상승률은 전분기보다 7.8%p 낮아짐.

〈그림 6〉 실업률 추이



주: 포괄적 실업률 = U-6
자료: U.S. Census Bureau,

〈그림 7〉 소비자물가 상승률 추이



주: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자료: U.S. Census Bureau,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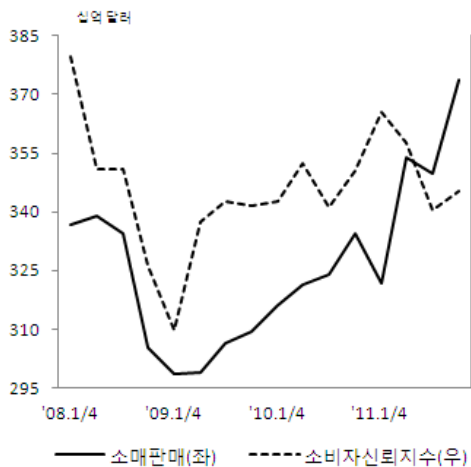
6) 구직포기자·비자발적 파트타임 취업자를 반영함.

〈내수부문〉

■ 2011년 4/4분기 내수부문은 소비자 체감경기 개선, 소매판매 증가, 주택착공 호수 증가 등 호조세를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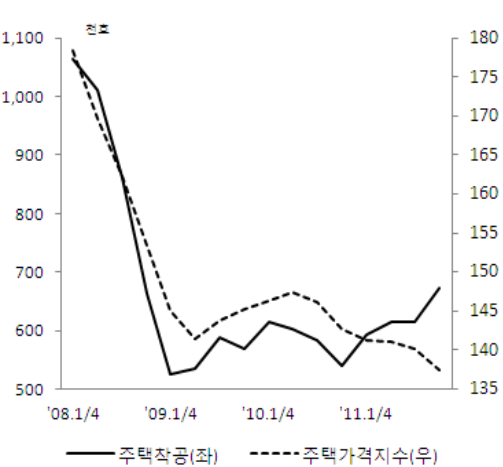
- 4/4분기 소비자신뢰지수는 고용여건 개선과 실질임금 증대에 힘입어 전분기 50.3에서 53.6으로 상승하였고, 소매판매는 체감경기 호조를 반영하여 전분기대비 6.8% 증가함.
- 4/4분기 주택가격은 모기지 주택 유질처분(foreclosure) 증가로 전분기보다 하락하였으나, 주택착공 호수는 소형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서 전분기대비 9.4% 증가함.

〈그림 8〉 소매판매와 소비자신뢰지수



주: 소비자신뢰지수는 1985=100
자료: U.S. Census Bureau, Conference Board.

〈그림 9〉 주택시장 추이



주: 주택가격은 2000.1=100
자료: U.S. Census Bureau, S&P/Case-Shill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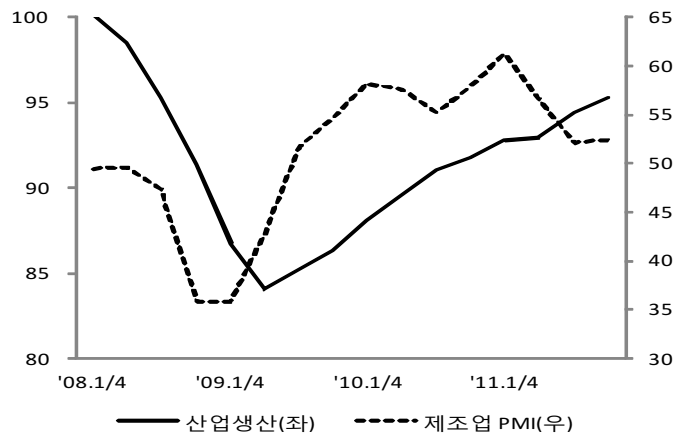
〈생산부문〉

■ 2011년 4/4분기 생산부문은 산업생산 지수와 가동률이 상승하면서 개선되었고 이러한 추세는 2012년 초에도 유지될 것으로 예상됨.

- 4/4분기 산업생산지수는 전분기대비 0.9% 높아져 전분기의 상승세가 지속되었으며, 산업생산가동률 역시 3/4분기보다 0.5%p 상승함.

- 3/4분기 51.0으로 빠르게 하락하였던 제조업 구매자관리지수(PMI)는 4/4분기에는 52.4로 소폭 반등함.

〈그림 10〉 산업생산지수와 제조업 PMI



주: 산업생산지수는 2007=100

자료: U.S. Census Bureau, Institute for Supply Management.

나. 유로경제

2011년 4/4분기 유로경제는 강도 높은 재정긴축, 고용여건 악화, 세계경기 둔화 등의 영향으로 대내외 부문 모두 위축되면서 기술적인 경기침체 국면에 진입함. 유로경제를 견인했던 독일 역시 소비와 수출 등이 위축되면서 마이너스 성장함.

〈최근 동향 및 전망〉

■ 2011년 4/4분기 유로경제는 소비, 투자, 정부 지출, 수출 등 경제 전반에 걸쳐 빠르게 위축되면서 전분기대비 -0.3% 성장함.

- 민간소비 지출은 실업률 증가 및 체감경기 악화 영향으로 전분기대비 0.4% 감소함.
- 고정자본투자는 설비 및 건설 부문의 동반 부진으로 전분기대비 0.7% 감소하여 2009년 3/4분기 이후 가장 큰 폭의 하락세를 보임.
- 정부지출은 각국의 재정긴축 노력으로 전분기대비 0.2% 감소함.
- 수출은 세계경기 둔화로 전분기대비 0.4% 감소하였으며, 수입은 유로지역 재정위기 심화에 따른 내수 위축으로 전분기대비 1.2% 감소함.

〈표 3〉 유로지역의 실질 GDP 증가율

(단위: 전분기대비 증가율, %)

구분	2010	2011	2010				2011			
	연간	연간	1/4	2/4	3/4	4/4	1/4	2/4	3/4	4/4
EA17 GDP	1.9	1.4	0.4	0.9	0.4	0.3	0.8	0.1	0.1	-0.3
민간소비	0.9	0.2	0.2	0.1	0.3	0.4	0.1	-0.4	0.3	-0.4
고정자본	-0.5	1.4	-0.4	1.9	0.2	-0.3	1.7	-0.1	-0.3	-0.7
정부지출	0.5	0.1	-0.4	0.2	0.1	0.0	0.1	0.1	-0.2	-0.2
수출	11.3	6.1	3.1	4.6	2.1	1.5	1.3	1.2	1.4	-0.4
수입	9.6	3.9	3.5	4.2	1.6	1.5	0.7	0.4	0.7	-1.2

자료: 유럽중앙은행.

■ 유로지역 대다수 국가가 2011년 4/4분기 마이너스 성장하였으며 3/4~4/4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한 국가도 적지 않음.

- 남유럽국가들과 네덜란드, 벨기에 등이 3/4~4/4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하였으며 독일, 오스트리아, 스웨덴, 영국 등은 4/4분기에 마이너스 성장함.
- 독일의 경우 4/4분기 민간소비는 전분기대비 0.2% 감소하였고 수출은 0.8% 감소하여 성장률은 전분기대비 -0.2%를 기록함.

〈표 4〉 유럽 주요국 실질 GDP 증가율

(단위: 전분기대비 증가율, %)

구분	2010	2011	2010				2011			
	연간	연간	1/4	2/4	3/4	4/4	1/4	2/4	3/4	4/4
독일 GDP	3.7	3.0	0.5	1.9	0.8	0.5	1.3	0.3	0.6	-0.2
민간소비	0.6	-	-0.0	0.8	0.3	0.7	0.5	-0.7	1.2	-0.2
고정자본	5.5	-	0.2	5.7	1.6	-0.2	4.0	0.0	0.3	1.1
수출	13.7	-	3.4	7.0	2.0	1.0	1.6	2.7	2.6	-0.8
수입	11.7	-	5.8	6.2	0.9	1.3	1.0	2.9	2.7	-0.3
영국 GDP	1.4	0.8	0.4	1.1	0.7	-0.5	0.3	0.0	0.5	-0.2
민간소비	0.8	-0.8	0.0	0.8	0.1	-0.3	-0.6	-0.4	-0.1	0.4
고정자본	3.0	-1.7	5.4	-2.8	0.9	0.0	-0.7	0.7	-1.0	-2.8
수출	5.3	4.8	-0.3	3.7	0.2	3.9	1.5	-1.3	-1.0	2.3
수입	8.5	0.6	2.3	2.8	2.6	1.6	-2.9	-0.3	0.3	0.4
프랑스 GDP	1.4	1.7	0.1	0.5	0.4	0.3	0.9	-0.1	0.3	0.2
민간소비	1.3	0.3	0.1	0.0	0.7	0.4	0.2	-1.0	0.3	0.2
고정자본	-1.4	2.9	-1.2	1.2	0.9	0.3	1.1	0.6	0.2	0.9
수출	9.3	5.0	4.5	3.1	2.2	0.4	1.4	0.7	1.2	1.2
수입	8.3	5.0	1.5	3.3	3.8	0.2	2.8	-1.0	0.7	-1.2

자료: 독일통계청, 영국통계청, 프랑스통계청.

■ EU⁷⁾는 세계경기 둔화, 추가 재정 긴축, 체감경기 악화로 2012년 1/4분기 마이너스 성장이 예상되기 때문에 유로지역이 2011년 4/4분기에 기술적 경기침체 국면에 진입하였다고 평가함.

- EU는 2012년 유로지역 성장률을 종전(11월)보다 0.8%p 하향조정하여 -0.3%로 전망함.
- 향후 3~6개월 경기상황을 나타내는 유로지역 경기체감지수(ESI) 역시 4/4분기에 전분기보다 5.0p 하락한 93.6을 기록함으로써 2012년 초반 경기위축이 예상됨.

7) European Commission(2012. 2), Interim Forecast.

〈표 5〉 유로지역의 주요 경제지표

구분	2011	2010			2011				2012	
	연간	2/4	3/4	4/4	1/4	2/4	3/4	4/4	1월	2월
EA17										
ESI ¹⁾	101.0	99.2	102.3	105.7	106.9	105.2	98.4	93.6	93.4	94.4
실업률 ²⁾ (%)	10.1	10.0	9.8	10.1	10.4	9.8	9.9	10.6	11.3	-
소비자물가 상승률 ³⁾ (%)	2.7	1.6	1.7	2.0	2.5	2.7	2.7	2.9	2.7	2.7
소매판매 증가율 ⁴⁾ (%)	-0.5	-0.2	0.4	-0.3	0.0	-0.5	0.3	-0.8	-0.2	-
소비자신뢰지수 ⁵⁾	-14.6	-16.7	-12.1	-10.4	-11.0	-10.7	-15.9	-20.6	-20.7	-20.3
산업생산 증가율 ⁶⁾ (%)	3.8	2.6	1.6	1.7	1.0	0.2	0.8	-1.9	-0.4	-
제조업기대지수 ⁵⁾	9.4	10.2	11.3	16.8	18.7	13.1	5.2	0.6	1.9	2.9
독일										
ESI ¹⁾	110.4	105.5	110.7	115.2	116.1	114.2	107.5	103.7	106.6	106.7
실업률 ²⁾ (%)	5.9	7.0	6.7	6.5	6.7	5.9	5.8	5.4	6.4	-
소비자물가 상승률 ³⁾ (%)	2.5	1.0	1.2	1.6	2.2	2.5	2.7	2.7	2.3	2.5
소매판매 증가율 ⁴⁾ (%)	1.1	0.6	0.8	-0.7	0.9	-0.6	1.3	0.1	-0.6	-
소비자신뢰지수 ⁵⁾	4.3	-8.4	2.6	9.1	8.7	8.9	2.2	-2.8	0.5	-0.8
산업생산 증가율 ⁶⁾ (%)	7.6	5.0	2.0	2.6	1.9	1.4	1.6	-1.9	-0.4	-
제조업기대지수 ⁵⁾	12.2	17.3	18.5	23.5	24.0	17.2	6.0	1.7	7.4	7.6
프랑스										
ESI ¹⁾	103.1	99.8	101.7	105.7	109.3	107.9	100.5	94.6	91.7	93.3
실업률 ²⁾ (%)	9.7	9.4	9.6	9.9	10.0	9.2	9.5	10.0	10.5	-
소비자물가 상승률 ³⁾ (%)	2.3	1.8	1.8	1.9	2.0	2.2	2.3	2.6	2.6	2.5
소매판매 증가율 ⁴⁾ (%)	2.4	0.6	2.4	-0.4	1.3	-0.2	0.8	-0.3	0.1	-
소비자신뢰지수 ⁵⁾	-22.5	-21.0	-19.3	-17.2	-19.1	-18.0	-24.3	-28.4	-27.7	-25.6
산업생산 증가율 ⁶⁾ (%)	1.2	0.8	0.1	0.1	1.5	-0.9	0.6	-0.9	0.0	-
제조업기대지수 ⁵⁾	11.8	1.4	5.5	13.4	20.6	14.4	10.0	2.3	-2.9	-2.9
영국										
ESI ¹⁾	96.5	101.2	101.5	100.7	101.8	100.9	93.9	89.2	93.6	93.9
실업률 ²⁾ (%)	8.1	7.7	7.8	7.7	7.7	7.8	8.4	8.3	-	-
소비자물가 상승률 ³⁾ (%)	4.5	3.4	3.1	3.4	4.1	4.4	4.7	4.7	3.6	-
소매판매 증가율 ⁴⁾ (%)	1.3	1.2	1.1	-0.1	-0.1	0.1	0.3	1.5	0.5	-
소비자신뢰지수 ⁵⁾	-21.4	-8.9	-15.7	-17.5	-22.4	-18.6	-20.0	-24.4	-22.1	-20.9
산업생산 증가율 ⁶⁾ (%)	-0.5	1.2	0.2	0.9	-0.2	-1.5	0.1	-1.2	-0.1	-
제조업기대지수 ⁵⁾	12.0	16.2	11.4	19.4	23.6	18.1	10.3	-4.0	11.8	10.3

주: 1) Economic Sentiment Indicator(경기체감지수), 1990~2000의 평균=100, 구성은 제조업(40%)+서비스업(30%)+소비자신뢰(20%)+건설업(5%)+소매거래(5%), 2) 계절조정, 3) 전년동기대비, 4) 계절조정 2005=100, 전분기대비 증가율, 월별통계는 3개월 이동평균 증가율, 5) 향후 경제에 대한 긍정 응답자와 부정 응답자 비율(%)의 차이, 6) 2005=100 건설업 제외, 영국은 2003=100 건설업 포함. 전분기대비 증가율.

자료: European Commission, Key euro area indicators(2012, 3); European Commission, eurostat.

〈고용과 물가〉

■ 2011년 4/4분기 유로지역 고용 여건은 일부 북유럽 국가들을 포함하여 대다수 국가의 실업률이 상승하는 등 악화된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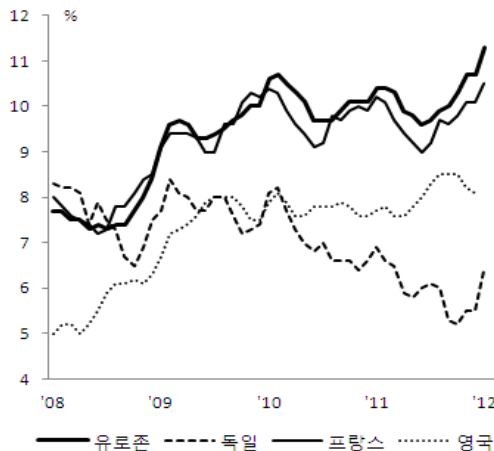
○ 4/4분기 유로지역 평균 실업률은 10.6%로 전분기보다 0.7%p 상승하였으며 취업자 수 평균은 전분기대비 0.2% 감소함.

○ 실업률이 전분기보다 하락한 국가는 독일, 덴마크, 노르웨이 등 일부에 한정되며 대다수 국가의 실업률은 상승함.

- 독일(5.8% → 5.4%), 덴마크(7.5% → 7.4%), 노르웨이(3.3% → 3.1%)의 실업률은 하락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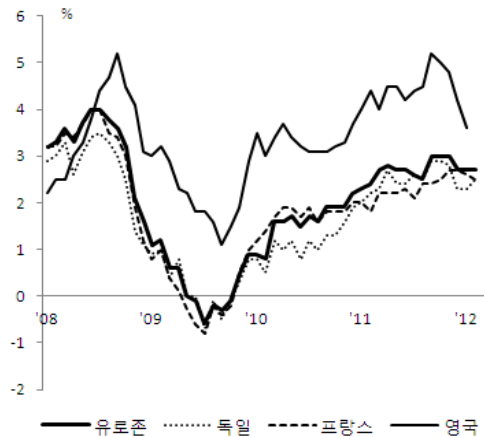
- 프랑스(9.5% → 10.0%), 스웨덴(6.8% → 6.9%), 핀란드(6.8% → 6.9%), 남유럽⁸⁾(14.9% → 16.5%)의 실업률은 상승함.

〈그림 11〉 유로존 실업률 추이



자료: eurostat(2012. 3).

〈그림 12〉 유로존 소비자물가상승률 추이



자료: eurostat(2012. 3).

■ 2011년 4/4분기 유로지역 소비자물가의 경우 에너지가격과 근원소비자물가 상승으로 상승률이 전분기보다 높아졌으며 지역별 상승률은 북유럽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서 전분기보다 상승함.

8) 스페인, 이탈리아, 그리스, 포르투갈

- 4/4분기 유로지역 전년동기대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분기보다 0.2%p 높은 2.9%를 기록
- 4/4분기 에너지가격은 전년동기대비 19.3% 상승하여 상승률은 전분기보다 7.3%p 높아졌고, 근원소비자물가는 1.4% 상승하여 상승률은 전분기보다 0.1%p 높아짐.
- 북유럽⁹⁾(2.3% → 1.8%)을 제외한 주요국¹⁰⁾(3.2% → 3.3%), 남유럽(2.7% → 3.2%), 동유럽¹¹⁾(3.4% → 3.8%) 등 대부분의 지역에서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전분기보다 높아짐.

〈내수부문〉

■ 2011년 4/4분기 소비자 체감경기는 유로지역 전체에 걸쳐 빠르게 악화되었고 소매판매는 이를 반영하여 전분기대비 0.8% 하락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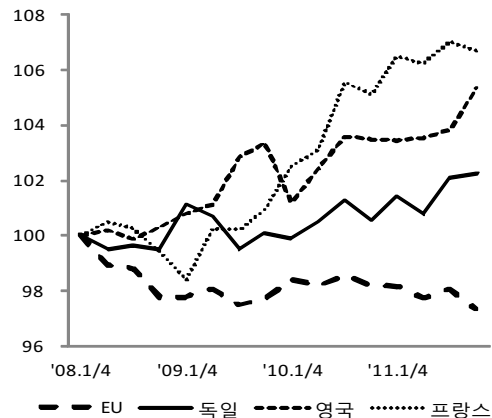
- 소비자신뢰지수는 4/4분기에 -20.6을 기록하여 전분기대비 4.7p 하락하였으며, 이러한 하락세는 주요국을 포함한 유로지역 대다수 국가에서 나타남.
- 4/4분기 중 독일의 소매판매만 전분기대비 증가(0.1%)에 그치는 등 대다수 국가의 소매판매는 고용여건 및 체감경기 악화로 감소함.

〈그림 13〉 유로지역 소매판매지수와 소비자신뢰지수



주: 소매판매지수는 2005=100, 소비자신뢰지수 장기평균= -12.0
자료: eurostat(2012, 3).

〈그림 14〉 주요국 소매판매 추이



주: 각국의 소매판매지수(2005=100)를 2008년 1/4분기=100으로 환산함.
자료: eurostat(2012, 3).

9)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핀란드

10) 독일, 프랑스, 영국

11) 폴란드, 루마니아, 슬로베니아, 슬로바키아, 헝가리

〈생산부문〉

■ 2011년 4/4분기 산업생산은 경제 전반의 위축으로 전분기대비 감소하였으며, 생산부문 위축은 제조업기대지수가 급락하고 있어 2012년 1/4분기에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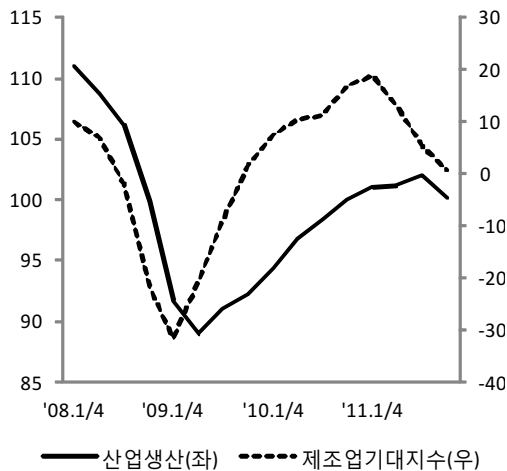
○ 4/4분기 유로지역의 산업생산은 전분기대비 1.9% 감소함.

- 주요국인 독일(-1.9%), 프랑스(-0.9%), 영국(-1.2%)을 비롯하여 대다수 국가의 산업생산이 전분기대비 감소함.

○ 유로지역의 제조업기대지수는 2/4분기 13.1, 3/4분기 5.2, 4/4분기 0.6으로 급격히 하락하였으며 이러한 급락은 주요국에서도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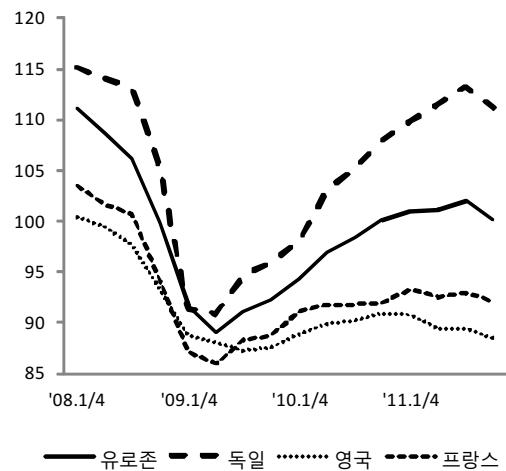
- 독일, 프랑스, 영국의 제조업기대지수는 3/4분기에 각각 6.0, 10.0, 10.3으로 낮아졌고 4/4분기에는 각각 1.7, 2.3, -4.0로 급락함.

〈그림 15〉 유로지역의 산업생산과 제조업기대지수



주: 산업생산은 2005=100, 제조업기대지수 장기평균=6.4
자료: eurostat(2012, 3).

〈그림 16〉 주요국 산업생산 추이



주: 2005=100 건설업 제외, 영국은 2003=100 건설업 포함.
자료: eurostat(2012, 3).

다. 일본경제

2011년 4/4분기 일본경제는 세계경기 둔화, 엔화 강세, 태국 홍수에 따른 생산차질 등으로 대외부문 위축과 생산 부진이 나타나면서 1분기 만에 다시 마이너스 성장으로 돌아섬.

〈최근 동향 및 전망〉

■ 2011년 4/4분기 일본경제는 다수의 악재 돌출로 수출이 위축되면서 전분기대비 -0.2% 성장함.

- 민간소비지출은 자연재해로 인해 억제되었던 수요가 다소 회복되면서 증가하였지만 내구재 소비가 증가할 정도로는 개선되지 못해 전분기대비 0.4% 증가에 그침.
 - 서비스(0.7%)와 비내구재(0.7%) 지출은 증가하였으나 내구재(-0.8%) 지출은 전분기 대비 감소함.
- 설비투자(전분기대비 4.8%)는 지진 피해로 인한 복구를 위해 증가하였으나 주택투자(전분기대비 -0.7%)는 주택착공 촉진효과 소진으로 감소세로 전환됨.
- 수출은 유로지역 재정위기와 신흥국의 긴축통화 정책으로 인한 수입 수요 약화, 엔화 강세, 태국 홍수에 따른 생산차질 등의 영향으로 전분기대비 3.1% 감소하였으며 수입은 전분기대비 1.0% 증가함.

〈표 6〉 일본의 실질 GDP 증가율

(단위: 전분기대비 증가율, %)

구분	2010	2011	2010				2011			
	연간	연간	1/4	2/4	3/4	4/4	1/4	2/4	3/4	4/4
실질 GDP	4.4	-0.7	1.5	1.3	0.6	-0.2	-1.8	-0.3	1.7	-0.2
민간소비	2.6	0.0	0.8	0.2	0.3	0.1	-1.1	0.3	1.0	0.4
설비투자	0.5	1.1	-1.3	5.0	1.0	-1.9	-0.6	-0.1	0.3	4.8
주택투자	-4.3	5.2	3.1	1.2	0.1	4.0	1.6	-2.4	4.5	-0.7
정부지출	2.1	2.1	-0.4	1.5	0.3	0.4	0.5	0.8	0.3	0.4
정부투자	0.4	-3.9	3.3	-0.7	0.1	-3.3	-2.4	6.6	-1.6	-2.2
수출	24.2	0.0	6.3	5.8	1.2	-0.3	-0.3	-6.2	8.6	-3.1
수입	11.1	5.9	2.4	6.0	1.7	0.3	1.0	0.3	3.4	1.0

자료: 일본 내각부.

■ 일본중앙은행(BOJ)¹²⁾은 일본경제가 당분간 현 수준에서 정체되다가 해외수요 회복과 지진피해 복구가 본격화되는 시점부터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하고 2012년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함.

○ FY2012년 성장률 전망치는 종전(2011년 10월)의 2.0~2.4%에서 1.8~2.2%로 하향 조정됨.

〈표 7〉 일본의 주요 경제지표

구분	2011	2010			2011				2012	
	연간	2/4	3/4	4/4	1/4	2/4	3/4	4/4	1월	2월
실업률(%)	4.6	5.1	5.0	5.0	4.8	4.6	4.4	4.5	4.6	-
비농업취업자 증감 ²⁾ (만 명)	2	-18	18	-4	-67	-192	69	193	7	-
소비자물가 상승률 ¹⁾ (%)	-0.3	-0.7	-1.0	-0.3	-0.5	-0.4	0.1	-0.3	0.1	-
근원소비자물가 상승률(%)	1.0	-1.2	-1.5	-1.2	-1.4	-0.9	-0.5	-1.1	-0.8	-
소매판매 증가율 ⁹⁾ (%)	-1.2	3.7	3.2	-0.3	-2.7	-1.6	-1.0	0.7	1.9	-
소비자신뢰지수 ³⁾	37.7	42.8	42.3	40.5	40.0	34.8	37.9	38.1	39.6	39.1
주택착공호수 증가율 ⁴⁾ (%)	2.8	-1.1	14.1	6.9	3.5	4.2	8.1	-4.5	-1.1	-
민간기계수주액 증가율 ⁸⁾ (%)	7.4	8.4	15.5	6.4	8.7	9.3	5.1	6.9	5.8	-
광공업생산 증가율 ⁵⁾ (%)	-3.5	0.7	-1.0	-0.1	-2.0	-4.0	4.3	-0.4	1.0	-
- 가동률지수 증가율 ⁶⁾ (%)	-3.9	0.3	-1.6	0.0	-2.5	-6.6	8.5	1.4	1.2	-
- 재고율지수 증가율 ⁷⁾ (%)	5.6	1.6	1.0	-0.8	4.0	0.8	1.2	0.1	-0.2	-

주: 1) 2010=100, 전년동기대비, 2) 계절조정, 전분기대비 증감, 월별통계는 3개월 이동평균, 3) 기준치=50, 4)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5) 계절조정, 2005=100, 전분기대비 증가율, 월별통계는 3개월 이동평균 증가율, 6) 2005=100, 계절조정, 전분기대비 증가율, 월별통계는 3개월 이동평균 증가율, 7) 계절조정, 전분기대비 증가율, 월별통계는 3개월 이동평균 증가율, 8) 변동성이 큰 선박·전력 제외, 전년동기대비, 9)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자료: 일본 내각부, 경제산업성, 재무성, 총무성, 국토교통성.

〈고용과 물가〉

■ 2011년 4/4분기 들어 고용 여건은 실업률이 상승하고 비자발적 실업이 증가함으로써 악화된 것으로 나타남.

○ 실업률은 3/4분기 4.4%에서 4/4분기 4.5%로 상승하였고, 비자발적 실업자는 3/4분기(전분기대비 104만 명)보다 4/4분기(전분기대비 110만 명)에 더욱 증가함.

12) Bank of Japan(2012. 3), Minutes of the Monetary Policy Meeting.

- 비농업취업자는 3/4분기(전분기대비 69만 명)보다 4/4분기(전분기대비 193만 명)에 더 증가하였으나 비정규직 취업자의 증가에 기인한 것이기 때문에 질적 측면에서는 고용 여건의 개선이 이루어지지 못함.

■ 2011년 4/4분기 들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근원소비자물가와 식료품가격이 하락하면서 다시 0.0% 이하로 떨어짐.

- 4/4분기 근원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년동기대비 -1.1%를 기록하였고, 4/4분기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년동기대비 -0.3%를 기록함.
 - 가구(-6.2%) 등 내구재가격은 하락한 반면, 교육(0.2%) 등 서비스가격은 상승함.
 - 식료품가격(-0.5%), 주거(-0.2%) 등 비내구재가격도 하락함.

〈내수부문〉

■ 2011년 4/4분기 소매판매는 자연재해로 악화되었던 소비자체감경기가 소폭 개선되면서 전분기보다 다소 회복되는 모습을 보임.

- 3/4분기 1.0% 감소하였던 소매판매는 4/4분기 들어 0.7% 증가함.
 - 의류(1.4%), 식음료(1.6%) 등 비내구재 소매판매는 4/4분기 들어 전년동기대비 증가한 반면, 기계 및 장비(-30.6%) 등 내구재 소매판매는 감소함.
- 소비자신뢰지수는 4/4분기 38.1을 기록하여 3/4분기(37.9)보다 0.2p 상승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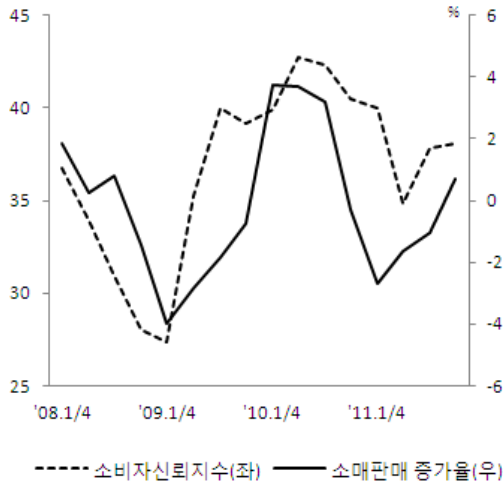
■ 2011년 4/4분기 민간기계수주는 지진피해 복구를 위한 설비투자가 증가하면서 전분기보다 늘어났으며 주택착공은 전분기보다 감소함.

- 3/4분기에 전년동기대비 5.1% 증가하였던 민간기계수주액¹³⁾은 4/4분기에 6.9% 증가함.
- 주택착공호수는 3/4분기 중 주택착공 촉진 효과가 소진¹⁴⁾됨에 따라 4/4분기에는 전년 동기대비 4.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13) 선박·전력을 제외

14) 2011년 7월 말까지 주택착공 시 에코포인트 인정

〈그림 17〉 소비자신뢰지수 및 소매판매 증가율



주: 증가율은 전년동기대비.
자료: 일본 경제산업성, 내각부.

〈그림 18〉 주택착공 및 민간기계수주 증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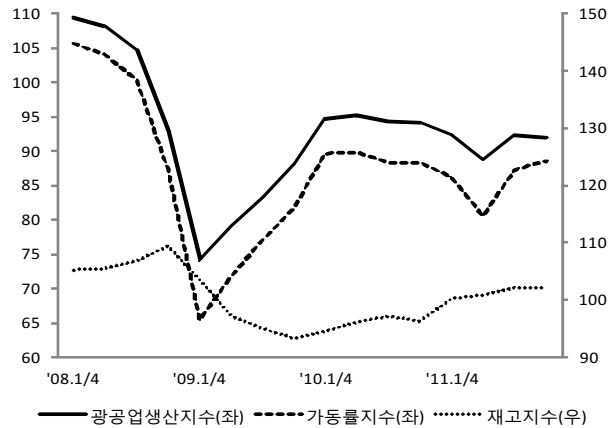


주: 증가율은 전년동기대비.
자료: 일본 내각부.

〈생산부문〉

■ 2011년 4/4분기에는 태국 홍수의 영향으로 생산부문에 차질이 발생함에 따라 광공업 생산 및 가동률이 감소 또는 둔화된 것으로 나타남.

〈그림 19〉 광공업생산, 가동률 및 재고 지수



주: 2005=100.
자료: 일본 내각부.

- 3/4분기에 상승하였던 광공업생산지수는 4/4분기에 전분기대비 0.4% 하락하였고, 가동률지수는 전분기대비 1.4% 상승하는 것에 그침.
- 4/4분기 출하대비 재고가 전분기대비 0.1% 증가하여 소폭이나마 누적됨에 따라 생산 부문 회복 지연 가능성이 커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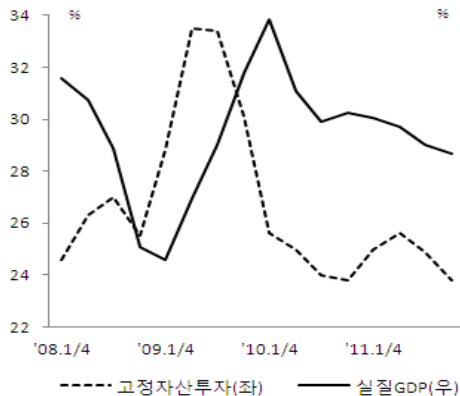
라. 중국경제

2011년 4/4분기 중국의 경제성장률은 해외수요 감소에 따른 수출 부진, 물가불안과 부동산시장 과열방지를 위한 통화긴축 등의 영향을 받아 전분기에 이어 소폭 하락함. 그러나 세계경기 둔화세를 감안할 때 중국은 여전히 높은 성장률을 시현함.

〈최근 동향 및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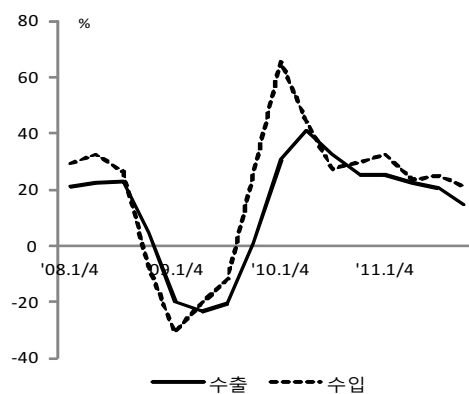
- 2011년 4/4분기 중국경제는 수출 둔화에도 불구하고 가계소득 및 기업이익 증가에 힘입어 소비와 투자 지출이 견조하게 증가하면서 전분기대비 2.0%, 전년동기대비 8.9% 성장함.
 - 투자와 소비 지출은 견조하게 증가하였으나 성장에 대한 소비의 기여도가 높아진 반면 투자의 기여도는 다소 낮아짐.
 - 고정투자는 기업의 체감경기 둔화 영향으로 3/4분기보다 하락(24.9% → 23.8%)하였으며 소매판매는 4/4분기 17.5% 증가하여 전분기(17.3%) 수준을 유지함.
 - 4/4분기 성장에 대한 소비의 기여도는 38.8%를 기록하여 전분기(31.5%)보다 높아졌으며 투자의 기여도는 56.3%를 기록하여 전분기(62%)보다 낮아짐.
 - 대외부문의 경우 수입증가율은 중국 경제성장률 둔화로 낮아졌고 수출 역시 세계경기 둔화, 위안화 강세 등의 영향으로 증가율이 하락함.

〈그림 20〉 실질 GDP와 고정자산투자



자료: 중국 국가통계국.

〈그림 21〉 수출 및 수입 증가율



자료: 중국 국가통계국.

■ IMF는 해외수요 둔화로 중국 경제성장률이 2012년 8%대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한 반면, 정부는 수출 및 투자 주도의 경제성장률에 한계를 느껴 7.5% 성장률을 예상함.

○ IMF는 경상수지 흑자가 GDP대비 3~4%에 그칠 것으로 예상하여 2012년 성장률은 8.2%로 하락하고 2012년 후반부터 성장률이 높아져 2013년에는 8.8%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함.

○ 전문가¹⁵⁾들은 소비자신뢰지수가 4/4분기에 100 이하인 99.3으로 낮아졌고, 기업의 체감경기지수도 3/4분기 129.4에서 4/4분기 122.0으로 하락하였기 때문에 2012년 1/4분기 성장률이 7.8%로 더욱 둔화될 것으로 전망함.

〈표 8〉 중국의 주요 경제지표

구분	2010	2011	2011				2012	
	연간	연간	1/4	2/4	3/4	4/4	1월	2월
실질 GDP(%) ²⁾	10.4	9.2	2.1(9.7)	2.3(9.5)	2.3(9.1)	2.0(8.9)	-	-
고정자산투자 ¹⁾ (%)	24.5	23.8	25.0	25.6	24.9	23.8	-	21.5
수출 증가율(%)	32.3	20.7	25.3	22.4	20.7	14.4	-0.5	18.4
수입 증가율(%)	14.6	25.3	32.6	23.2	24.7	20.9	-15.3	39.6
소비자물가 상승률(%)	3.3	5.4	5.1	5.7	6.3	4.6	4.5	3.2
생산자물가 상승률(%)	5.5	6.0	7.0	6.9	7.1	3.1	0.7	0.0
소매판매 증가율(%)	18.4	17.1	16.3	17.2	17.3	17.5	- ⁴⁾	14.7
소비자신뢰지수	105.5	103.8	102.4	106.8	104.7	99.3	103.9	-
기업체감경기지수	135.4	130.3	137.4	132.4	129.4	122.0	-	-
산업생산 증가율(%)	14.5	13.8	14.9	13.9	13.8	12.8	-	11.4
구매자관리지수 ³⁾	53.8	51.3	52.8	51.9	50.9	49.9	50.5	51.0

주: 1) 전년동기 누계 대비, 도시지역 기준, 2) 전분기대비 증가율, 괄호는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3) 기준=50, 4) 춘절기간이 포함되어 통계를 발표하지 않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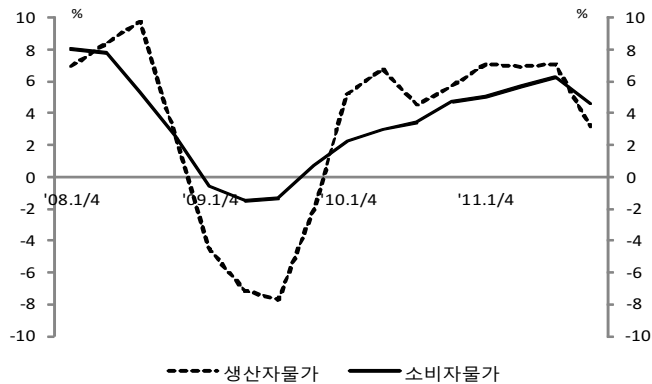
자료: 중국 국가통계국.

15) LI & Fung Research Center(2012, 2), LI & Fung China Trade Quarterly.

〈물가〉

-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011년 3/4분기 중 금융위기 이후 최고치(6.3%)를 경신하였으나, 정부의 노력으로 식료품가격, 주거비, 교통·통신비가 안정되면서 4/4분기에는 4%대로 둔화됨.
- 4/4분기 소비자물가는 식료품가격(13.9% → 9.9%), 주거비(5.5% → 3.2%), 교통·통신비(1.0% → 0.5%) 등의 상승률 하락으로 전년동기대비 4.6% 상승에 그침.
-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식품가격의 안정, 위안화 평가절상, 통화 긴축에 힘입어 2012년 1월에는 4.5%로 낮아졌고 2월에는 3.2%로 더욱 낮아짐.

〈그림 22〉 소비자물가 및 생산자물가 상승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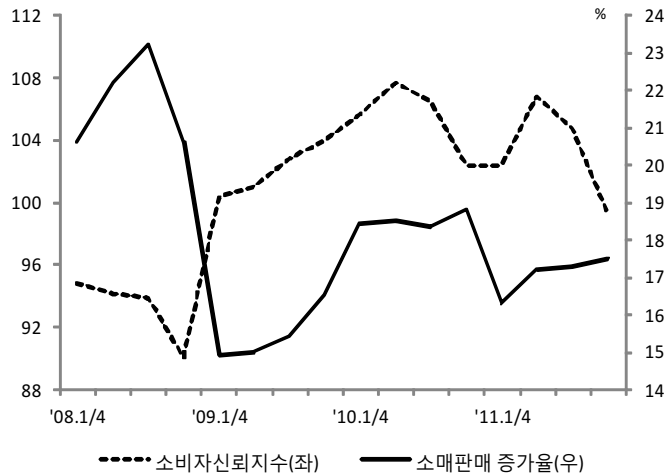
주: 상승률은 전년동기대비.
자료: 중국 국가통계국.

〈내수부문〉

- 2011년 4/4분기 소매판매는 소비자체감경기 악화, 각종 소비촉진 보조금 효과 소진에도 불구하고 소득수준 개선¹⁶⁾에 힘입어 전분기의 호조세를 유지함.
- 4/4분기 중 소매판매는 소득수준 개선에 힘입어 전년동기대비 17.5% 증가하여 증가율이 전분기보다 0.2%p 높아짐.
- 3/4분기에 104.7을 기록했던 소비자신뢰지수는 4/4분기 들어와 99.3으로 하락함.

16) 도시 및 농촌의 실질가계소득은 4/4분기 중 전년동기대비(누적기준) 각각 8.4%, 11.4% 증가함.

〈그림 23〉 소매판매 증가율과 소비자신뢰지수



주: 소매판매 증가율은 전년동기대비.
자료: 중국 국가통계국.

■ 2011년 4/4분기 중 주택착공 투자는 부동산 과열 억제정책¹⁷⁾에 힘입어 하락하였으며, 주택가격은 전반적으로 낮아진 것으로 나타남.

- 4/4분기 부동산 관련 고정투자 증가율은 전년동기대비(누적기준) 24.4% 기록하여 전분기(25.1%)보다 0.7%p 낮아짐.
- 4/4분기 주택가격은 주요 70개 도시 중 7개 도시를 제외한 대부분의 도시에서 전분기 대비 하락(55개) 또는 전분기 수준(8개)을 유지함.

〈생산부문〉

■ 생산부문은 해외수요 감소, 통화긴축, 신용제한, 임금상승, 노동력 부족 등의 영향으로 2011년 4/4분기 들어 전년동기대비 소폭 둔화되는 모습을 시현함.

- 4/4분기 중 산업생산은 기업의 체감경기 둔화에 따른 민간투자 증가율 하락, 해외수요 감소 등 다수의 악재¹⁸⁾가 겹치면서 전년동기대비 12.8% 증가에 그침.

17) 과열경기 억제를 위해 M2의 증가율은 2/4분기 15.4%, 3/4분기 13.7%, 4/4분기 13.1%로 낮아짐. 정부는 부동산가격 급등을 억제하기 위해 주택착공 관련 자재에 대한 각종 보조금 지원을 철회함.

■ 2011년 4/4분기 제조업 구매자관리지수(PMI)¹⁹⁾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생산 부문 경기침체 기준이 되는 50을 하회함.

○ 4/4분기 PMI(50.9 → 49.9)는 전분기보다 1.0p 감소함.

- 4/4분기 제조업 체감경기는 국내 신규주문, 수출주문, 부품구매, 자재 재고, 고용 등 거의 모든 부문에 걸쳐 침체 기준인 50 이하로 하락함.

〈그림 24〉 산업생산 증가율과 구매자관리지수



주: 구매자관리지수 기준=50, 산업생산 증가율은 전년동기대비.
자료: 중국 국가통계국.

18) 통화 및 신용 긴축으로 인한 기업의 유동성 부족, 임금비용 상승, 유로지역 재정위기 등은 산업생산을 제한하는 걸림돌로 작용함.

19) PMI(Purchasing Managers' Index)를 구성하는 요인은 생산, 신규주문, 수출주문, 취업, 부품구매, 주문잔고, 납품업체 배송, 재고 등 11개 항목임.

2. 국내경제

〈성장 및 내수〉

2011년 4/4분기 민간소비의 증가세가 둔화되고, 설비투자가 감소하는 등 내수부진이 지속된 가운데 수출 증가세가 크게 위축되면서 실질 GDP는 전년동기대비 3.4% 성장함.

■ 2011년 4/4분기 실질 GDP는 3/4분기에 이어 민간소비 및 설비투자 등 내수가 부진하면서 수출 증가세가 크게 둔화됨에 따라 3/4분기보다 0.1%p 하락한 3.4% 성장함.

○ 민간소비는 가계채무상환 부담 증가세의 지속, 소비자심리의 위축 등으로 3/4분기보다 0.8%p 하락한 1.2% 증가율을 기록함.

〈표 9〉 실질 GDP와 지출 항목별 성장률

(단위: 전년동기대비, %)

구분	2010			2011				
	3/4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실질 GDP	4.4 (0.6)	4.7 (0.5)	6.2	4.2 (1.3)	3.4 (0.9)	3.5 (0.8)	3.4 (0.4)	3.6
- 민간소비	3.6	2.9	4.1	2.8	3.0	2.0	1.2	2.3
- 설비투자	26.6	15.9	25.0	11.7	7.5	1.0	-3.7	3.8
- 건설투자	-3.1	-2.9	-1.4	-11.9	-6.8	-4.6	-4.0	-6.5
- 재화수출 ³⁾	11.6	16.9	15.8	18.7	11.5	10.5	5.2	11.1
- 재화수입 ³⁾	16.0	15.5	18.2	13.7	10.1	7.9	4.2	8.8

주: 1) 2000년 가격기준에서 2005년 연쇄가격 기준으로 전환됨.

2) ()는 계절조정이 반영된 전분기대비 증가율임.

3) F.O.B(본선인도가격) 기준.

자료: 한국은행, 「국민소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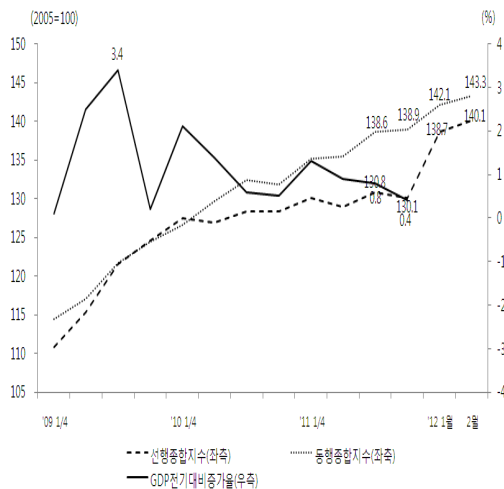
○ 설비투자는 기계류 등에 대한 투자가 줄어들면서 3.7% 감소하였으며, 건설투자는 주거용 건물 건설이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3/4분기(-4.6%)보다 감소세가 다소 완화된 -4.0% 증가율을 기록함.

- 재화수출은 석유제품, 자동차, 기계류 등을 중심으로 5.2% 증가하였으며, 재화수입은 원자재를 중심으로 4.2% 늘어났으나, 수출과 수입의 증가세는 3/4분기 보다 모두 둔화됨.

■ 2012년 2월 경기동행지수와 경기선행지수는 전월 대비 모두 상승하였으며, 이에 대한 보조지표인 동행지수 순환변동치와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도 전월에 비하여 모두 증가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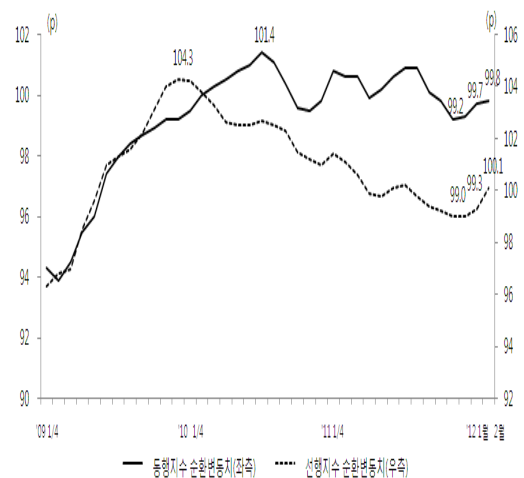
- 경기동행지수는 2월 143.3을 기록하면서 전월 142.1에 비해 1.2p 상승하였으며,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도 전월보다 0.1p 상승한 99.8를 나타냄.
- 2월 경기선행지수는 전월에 비해 다소 상승한 140.1로 나타났으며,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도 전월보다 0.8p 늘어난 100.1을 기록함.

〈그림 25〉 GDP와 경기지수 추이



자료: 한국은행, 「국민소득」; 통계청, 「산업활동동향」.

〈그림 26〉 경기종합지수 추이



자료: 통계청, 「산업활동동향」.

■ 2012년 1~2월 소매판매액지수는 내구재와 비내구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전년 동기대비 평균 2.9% 증가함.

- 컴퓨터·통신기기, 가전제품 등 내구재 판매는 2011년 4/4분기에 전년동기대비 3.0% 늘어났으며, 1~2월에는 컴퓨터 및 통신기기에 대한 수요가 커지면서 6.5% 증가하였음.

- 의복 및 오락·취미·경기용품 등 준내구재 판매는 2011년 4/4분기에 전년동기대비 2.2% 늘어났고, 1~2월에는 의복 등의 수요가 감소하면서 0.3% 증가하는데 그침.
- 음식료품, 화장품 등 비내구재 판매는 2011년 4/4분기에 1.4% 증가하였고, 1~2월에 화장품 등에 대한 수요증대에 따라 평균 2.9% 늘어나면서 증가세가 다소 확장됨.

〈표 10〉 소비 관련 지표 상승률

(단위: 전년동기(월)대비, %)

구분	2010			2011					2012	
	3/4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1월	2월
소매판매	7.5	5.1	6.6	5.1	5.7	4.4	1.5	4.1	0.6	5.3
- 내구재	17.0	10.6	14.9	12.9	17.5	10.4	3.0	10.7	1.9	11.1
* 승용차	12.0	0.1	11.1	10.2	13.0	8.3	-7.7	5.5	-13.9	7.5
- 준내구재	6.6	11.1	6.8	6.1	5.6	4.0	2.2	4.4	-1.5	2.1
- 비내구재	3.0	-0.7	2.2	0.8	-0.4	2.0	1.4	1.0	2.3	3.6

자료: 통계청, 「산업활동동향」.

■ 2011년 4/4분기 설비투자지수는 기계류, 운송장비 투자가 크게 감소하면서 전년동기 대비 11.4% 하락하였으나, 국내기계수주는 전분기에 이어 증가세를 지속함.

- 기계류에 대한 투자는 일반기계류, 전기 및 전자기기 등의 투자가 줄어들면서 2011년 4/4분기에 전년동기대비 10.7% 감소하였으나, 1월에 일반기계류 등에 대한 투자가 크게 늘어나면서 8.8% 증가하였고, 2월에도 일반기계류, 기타기기 등에 대한 투자호조가 이어지면서 23.6% 증가로 증가폭이 크게 확대됨.
- 운송장비의 경우 2011년 4/4분기 자동차 등의 투자가 크게 감소하면서 12.9% 줄어 들었고, 1월에도 자동차 등의 투자 감소세가 이어지면서 15.8% 감소하였으나 2월에는 기타운송장비의 투자가 크게 증가하면서 14.4% 증가세로 전환됨.
- 설비투자의 선행지표인 국내기계수주는 2011년 4/4분기 17.7% 증가하였으나, 1월에 공공부문에서 일반산업용기계, 원동기 및 발전기, 통신기계 등과 민간부문에서 전기기계, 특수산업용기계 등의 발주가 줄어들면서 0.1% 감소세로 전환된 후 2월에 기타수송용기계 등이 크게 증가하면서 17.5% 늘어남.

〈표 11〉 투자 관련 지표 상승률

(단위: 전년동기(월)대비, %)

구분	2010			2011					2012	
	3/4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1월	2월
설비투자지수	29.3	13.6	25.1	6.6	4.8	-3.5	-11.4	-3.7	4.9	22.0
- 기계류	37.4	17.1	30.5	6.8	7.0	-3.5	-10.7	-4.7	8.8	23.6
- 운송장비	-0.1	-1.2	4.3	5.6	-5.7	-3.2	-14.5	0.8	-15.8	14.4
국내기계수주	-4.6	16.3	8.9	20.9	11.5	13.1	17.7	36.2	-0.1	17.5
건설투자	-3.1	-2.9	-1.4	-11.9	-6.8	-4.6	-4.0	-6.5	-	-
- 건설기성	-6.8	-4.3	-3.3	-12.6	-6.6	-8.4	-0.5	-6.7	-9.5	14.5
건축	-12.3	-8.5	-7.1	-15.1	-8.4	-8.0	-2.8	-8.4	-7.6	18.4
토목	1.9	1.2	2.2	-9.2	-4.2	-8.8	2.2	-4.5	-12.0	9.5
- 국내건설수주	-3.6	-40.2	-18.7	-11.8	-1.7	1.5	22.4	4.0	42.8	100.4
건축	-1.3	-46.4	-9.9	-7.7	-2.5	9.8	40.6	10.9	73.7	42.5
토목	-7.0	-29.9	-29.5	-17.2	0.1	-11.0	-1.1	-6.6	0.6	175.9

자료: 통계청, 「산업활동동향」.

■ 2011년 4/4분기의 건설기성은 민간 및 공공부분의 감소세가 완화되면서 0.5% 감소하는데 머물렀으며, 국내건설수주는 공공부분의 건축 및 토목건설과 민간부분의 건축건설 실적이 호조를 보이면서 22.4% 늘어남.

- 2012년 1~2월 건설기성은 공공부분의 건축과 민간부분의 토목공사 실적이 크게 늘어나면서 4/4분기보다 3.0%p 증가한 2.5% 증가세를 기록함.
- 건설기성 발주자별로는 2011년 4/4분기 공공부분이 2.5% 증가하였고, 민간부분도 6.9% 증가하였으며, 2012년 1~2월의 평균실적도 공공부분과 민간부분이 각각 8.7%, 6.6% 늘어남.
- 국내건설경기의 선행지표인 국내건설수주는 4/4분기에 공공부분의 건축 및 토목과 민간부분의 건축공사가 모두 호조를 보이면서 22.4% 증가세로 증가폭이 크게 확대되었으며, 1~2월에도 민간부분의 건축 및 토목공사 수주량이 크게 늘어남에 따라 평균 71.6% 증가함.
- 1~2월 발주자별로는 공공부분과 민간부분이 각각 52.1%, 100.8% 증가하였음.

〈대외거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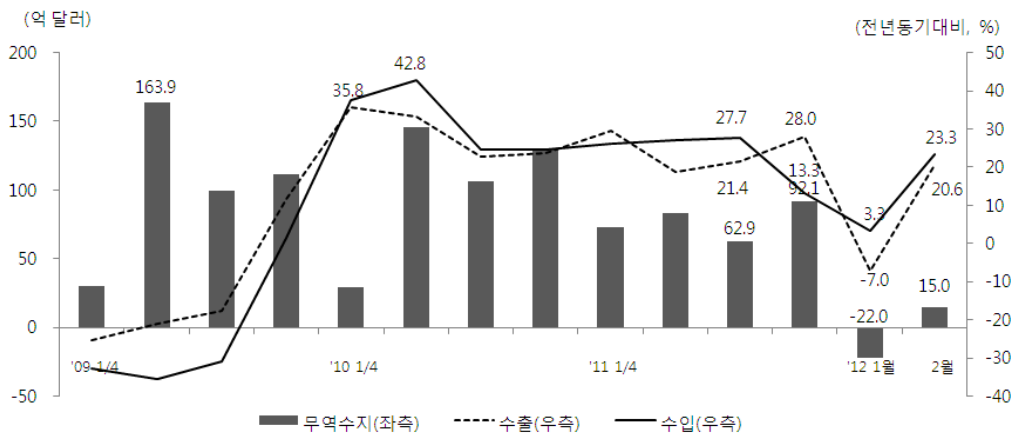
■ 2012년 2월 수출(확정치)은 23.3%, 수입은 20.6% 증가로 수출증가세가 수입증가세를 상회하였으며, 무역수지는 15.0억 달러 흑자를 기록함.

- 수출은 승용차(59.4%), 석유제품(43.0%) 등에서 호조를 보였으나, 액정디바이스(-4.9%), 무선통신기기(-29.3%), 가전제품(-1.0%) 등은 전년동기에 비해 감소함.
- 수입은 원유(34.5%), 소맥(103.9%) 등에서 증가세를 나타냈고, 마늘(-94.9%), 승용차(-24.6%) 등은 줄어들었음.

■ 2012년 2월 지역별 수출입은 미국, 일본, 호주 등의 수출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고, 수입은 미국, 중국, 일본 등에서 늘어남.

- 지역별 수출은 미국(46.7%), 일본(29.7%), 호주(54.7%) 등에서 호조세를 보임.
- 지역별 수입은 미국(39.6%), 중국(15.0%), EU(34.3%) 등에서 증가하였으며, 중동(37.8%), 중남미(25.4%) 등 주요 자원국으로부터 수입도 늘어남.

〈그림 27〉 대외거래 지표 추이



자료: 관세청(통관 기준).

〈산업생산〉

■ 2011년 4/4분기 광공업 생산지수는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 목재 및 나무제품 등이 부진하였으나 의료정밀광학기기, 전자부품·컴퓨터 등이 호조를 나타내면서 5.4% 상승하였으며, 서비스업 생산지수도 금융 및 보험업, 도매 및 소매업 등을 중심으로 3.4% 높아졌음.

○ 2011년 4/4분기 광공업 생산은 의료정밀광학기기(8.6%),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6.2%) 등의 호조로 5.4% 증가하였으나, 2012년 1월에 2.1% 감소로 전환된 후 2월에 14.4% 증가로 크게 늘어남.

○ 2011년 4/4분기 서비스업 생산은 금융 및 보험업(9.7%), 출판·영상·방송통신(6.2%),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11.0%) 등의 호조에 따라 3.4% 증가하였으며, 2012년 1월에는 0.9% 늘어나면서 증가세가 둔화되었다가 2월에 6.4% 증가로 증가세가 크게 확대됨.

〈표 12〉 산업생산지수의 증가율

(단위: 전년동기(월)대비, %)

구분	2010			2011					2012	
	3/4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1월	2월
광공업	11.0	12.0	16.6	10.6	7.2	5.2	5.4	7.0	-2.1	14.4
- 제조업	11.2	12.0	16.7	10.6	7.3	5.3	5.3	7.0	-1.9	14.8
- 자동차	11.3	10.2	23.1	13.8	9.9	4.5	12.4	10.0	4.3	10.7
- ICT	19.1	15.2	25.2	15.5	11.9	16.0	12.6	13.8	-7.4	34.1
서비스업	2.3	3.2	3.9	2.7	4.1	4.2	3.4	2.6	0.9	6.4
- 도매 및 소매업	5.0	4.7	5.7	4.0	5.6	3.3	3.4	2.2	1.3	5.2
- 운수업	10.1	10.0	12.0	7.2	4.2	4.4	1.6	2.1	-0.2	6.9
- 숙박 및 음식점업	1.3	1.7	1.2	-0.6	2.0	1.3	0.5	1.0	-5.1	1.9
- 금융 및 보험업	1.4	8.2	4.6	7.2	12.8	9.0	7.5	5.2	4.5	15.8
- 부동산 및 임대업	-15.9	-24.2	-8.6	-17.7	-12.1	-3.4	-4.6	-5.6	-13.3	-4.0

자료: 통계청, 「산업활동 동향」.

〈물가 및 고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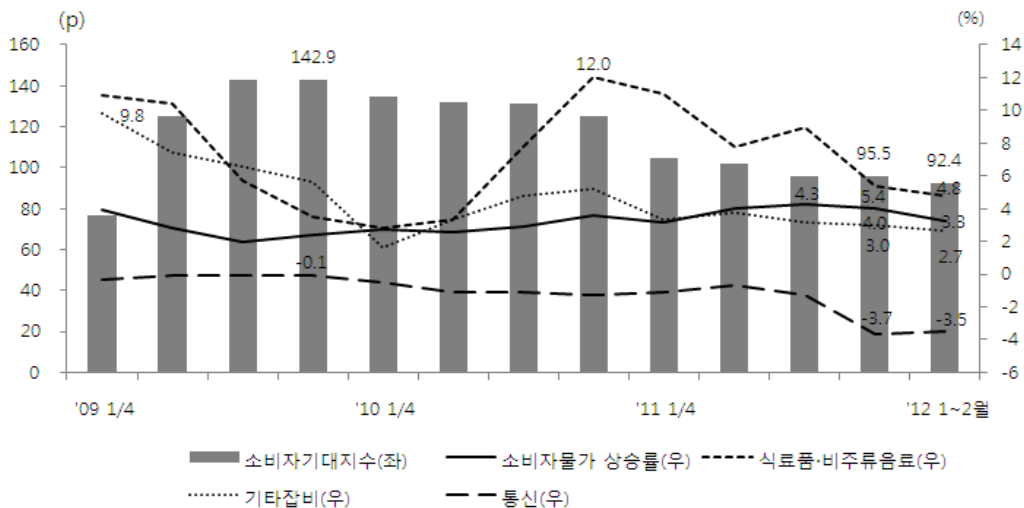
2012년 1~2월 소비자물가는 전년동기대비 3%대의 상승률을 기록하였으며, 고용시장은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취업자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음. 한편, 2011년 4/4분기 가계소득, 소비지출, 가계흑자액 모두 전년동기에 비해 늘어남.

■ 2012년 1~2월 소비자물가는 식료품 및 비주류음료, 교통 등의 상승세가 둔화되면서 2011년 4/4분기보다 0.7%p 낮아진 3.3%(전년동기대비)의 상승률을 기록함.

○ 1~2월 전년동기대비 품목별 소비자물가상승률을 살펴보면 식료품 및 비주류음료는 4.7%, 주류 및 담배는 1.7%, 의복 및 신발은 4.7%, 주거 및 수도광열은 5.4%, 가구집기 및 가사용품은 3.9%, 교통은 4.7%, 기타잡비는 2.6%, 통신은 -3.5% 등으로 나타남.

■ 2012년 1~2월 소비자 기대지수는 가계부채 부담에 대한 불안심리가 지속적으로 반영되면서 2011년 4/4분기보다 3.1p 하락한 92.4를 기록함.

〈그림 28〉 소비자물가와 소비심리 추이



자료: 한국은행, 「소비자동향조사」; 통계청, 「소비자물가동향」 및 「소비자기대 및 평가지수」.

■ 서비스업이 일자리 창출을 주도하고, 건설업이 회복세를 시현하면서 2011년 4/4분기 뿐만 아니라 2012년 1~2월 기간 중에도 전년 동기에 비해 고용 상황이 개선되고 실업률이 하락함.

- 2011년 4/4분기 총 취업자 수는 전년동기대비 2.0% 증가하였고, 2012년 1월과 2월에도 각각 2.3%, 1.9% 늘어남.
 - 청년 취업자 수는 4/4분기에 전년동기보다 감소하였으며, 2012년 1월에도 0.5% 감소한 후 2월에는 전년과 동일한 수준을 유지함.
- 2011년 4/4분기 고용률은 59.4%를 나타냈고, 2012년 1월 57.4%, 2월 57.5%를 기록함.
- 실업률은 2011년 4/4분기에 2.9%를 나타냈고, 2012년 1월 3.5%, 2월 4.2%를 보이면서 높아지는 추세를 보였으나, 전년동기에 비해서는 하락함.
 - 청년실업률은 2011년 4/4분기에 7.1%를 나타낸 후 계절적 요인에 따라 2012년 1월 8.0%, 2월 8.3%를 기록하면서 8%대로 높아짐.

■ 2012년 1~2월 중 산업별 취업자 수는 광공업, 제조업 부문에서 감소세를 지속하였으며, SOC 및 기타서비스업, 건설업 부문에서는 증가세를 보임.

- 2011년 4/4분기 농림어업 부문 취업자 수는 전년동기대비 1.5% 줄어들었으며, 2012년 1월 3.5% 증가세를 보이다가 2월 3.2% 감소세로 전환됨.
- 2011년 4/4분기 제조업을 포함한 광공업 부문 취업자 수는 전년동기대비 2.0% 감소하였으며, 2012년 1월과 2월에도 각각 3.0%, 2.3% 줄어듦.
- 도소매·음식·숙박, 전기·운수·통신·금융, 사업·개인·공공서비스 부문 취업자 수 증가로 인하여 2011년 4/4분기에 이어 2012년 1~2월 기간에도 SOC 및 기타서비스업의 취업자 수는 전년동기대비 평균 3.4% 늘어남.
 - 경기상황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건설업 취업자 수는 2011년 4/4분기에 전년동기대비 4.0% 증가하였으며, 2012년 1~2월 기간에도 평균 5.0% 늘어나면서 증가세가 확대됨.

〈표 13〉 고용 관련 지표 상승률

(단위: 전년동기(월)대비, %)

구분	2010			2011					2012	
	3/4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1월	2월
총취업자	1.6	1.5	1.4	1.8	1.7	1.5	2.0	1.7	2.3	1.9
- 청년취업자	-1.1	-1.5	-1.1	-1.2	-1.9	0.0	-0.5	-0.9	-0.5	0.0
고용률	59.3	58.9	58.7	57.4	59.9	59.5	59.4	59.1	57.4	57.5
실업률	3.5	3.3	3.7	4.2	3.4	3.1	2.9	3.7	3.5	4.2
- 청년실업률	7.6	7.1	8.0	8.8	7.9	6.7	7.1	7.6	8.0	8.3
〈산업별 취업자〉										
농림어업	-2.5	-2.2	-5.0	-2.3	0.2	-2.9	-1.5	-1.6	3.5	-3.2
광공업	6.8	6.9	4.9	5.8	2.7	-0.5	-2.0	1.5	-3.0	-2.3
- 제조업	6.9	7.0	5.0	5.8	2.8	-0.3	-1.8	1.6	-2.8	-2.1
SOC 및 기타서비스업	0.9	0.7	1.2	1.2	1.6	2.4	3.2	2.1	3.5	3.2
- 건설업	5.4	3.3	1.9	-0.2	-2.3	-2.0	4.0	-0.1	5.3	4.7
- 도소매음식숙박	-1.2	-1.3	-1.2	-1.1	-0.1	1.0	1.8	0.4	2.1	1.9
- 전기, 운수, 통신, 금융	2.3	1.9	2.7	1.6	3.6	6.6	5.5	4.3	4.6	4.3
- 사업, 개인, 공공서비스	0.9	1.0	2.2	3.0	2.8	2.8	3.1	2.9	3.6	3.4

주: 1) 실업률은 '실업자/경제활동인구×100', 고용률은 '취업자/15세 이상 인구×100'로 정의됨.

2) 청년은 15~29세 기준임.

3) SOC는 전기가스수도 및 건설업을 포함함.

자료: 통계청, 「고용동향」.

■ 2011년 4/4분기 가계소득은 전년동기대비 증가하였으나, 소비지출은 감소하였으며, 처분가능소득에서 소비지출을 차감한 흑자액도 줄어들었음.

○ 4/4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339만 4,121원으로 전년동기대비 7.2% 증가하였으며, 실질소득의 경우도 3.3% 늘어남.

- 경상소득은 7.4% 증가하였고 비경상소득도 3.9% 늘어났으며, 경상소득 세부항목별로는 근로소득이 7.6%, 사업소득이 5.2%, 이전소득이 11.1% 증가한 반면, 재산소득은 5.8% 감소하였음.

○ 4/4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비지출은 209만 4,616원으로 전년동기대비 3.9% 증가하였으나, 실질소비지출은 0.1% 감소하였음.

- 세부항목별로는 기타·상품서비스(8.7%), 음식·숙박(6.8%), 의류·신발(5.3%) 등의 소비지출 증가가 두드러짐.

〈표 14〉 가계소득 및 소비지출 관련 지표 상승률

(단위: 전년동기대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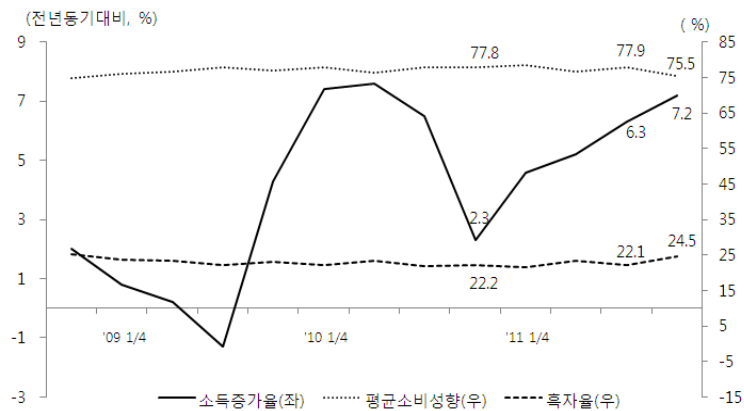
구분	2010			2011				
	3/4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소득	6.5	2.3	5.8	4.6	5.2	6.3	7.2	5.8
(실질소득)	3.5	-1.3	2.8	0.2	0.9	1.5	3.3	1.9
- 경상소득	6.7	3.1	6.1	5.4	5.1	6.1	7.4	6.0
* 근로소득	7.3	3.3	5.4	6.8	5.4	6.3	7.6	6.5
* 사업소득	5.4	2.1	7.9	2.8	3.2	4.4	5.2	3.9
* 재산소득	-10.9	30.5	-0.7	3.1	4.0	11.5	-5.8	2.7
* 이전소득	6.1	3.1	7.2	3.1	7.2	8.4	11.1	7.3
- 비경상소득	1.4	-17.1	-0.5	-8.7	7.7	13.6	3.9	2.0
소비지출	5.6	3.6	6.3	5.2	5.1	5.8	3.9	5.0
(실질소비지출)	3.1	0.7	3.8	1.4	1.7	2.0	-0.1	1.0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

○ 2011년 4/4분기 월평균 처분가능소득은 277만 7,185원으로 전년동기대비 7.1% 증가하였고, 처분가능소득에서 소비지출을 차감한 흑자액도 68만 2,569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18.6% 늘어남.

- 4/4분기 처분가능소득에 대한 소비지출 비율인 평균소비성향이 75.5%로 전년동기보다 2.3%p 하락하면서 저축능력을 나타내는 흑자율은 전년동기대비 2.3%p 상승함.

〈그림 29〉 가계 소득 및 흑자율 추이



주: 흑자율=1 - 평균소비성향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

3. 금융경제

〈금리〉

2012년 1/4분기 국고채 금리의 경우 기준금리가 경기둔화 우려 지속으로 3.25%에서 동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가 약화되면서 다소 상승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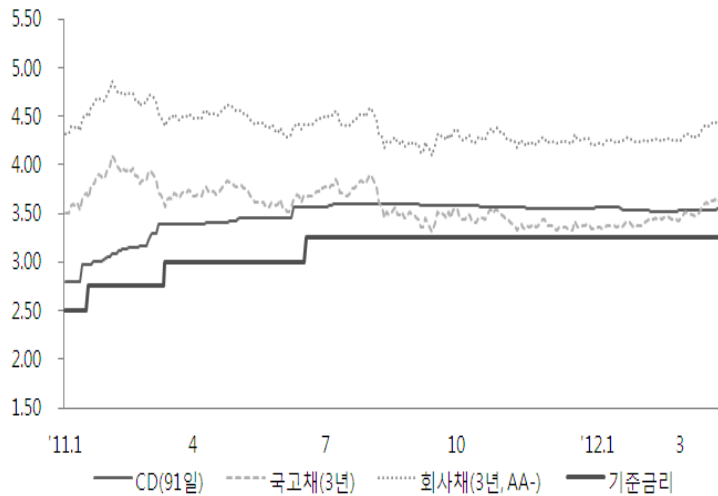
- 2012년 1/4분기 중 기준금리는 대내외 경기둔화 우려 등으로 인해 3.25%에서 동결됨.
 - 금융통화위원회는 금리를 인상하기에는 국내외 경기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고, 금리를 인하하기에는 물가가 아직 높다고 판단하여 2011년 6월 말 이후 기준금리를 9개월 연속 동결함.

- 2012년 1/4분기 중 국고채(3년) 금리는 유럽재정위기 완화로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가 약화되면서 다소 상승하는 추세를 보임.
 - 국고채 금리는 1월에 기준금리보다 약간 높은 수준에서 소폭의 상승과 하락을 반복함.
 - 유럽 재정위기 지속에 따른 국내외 경기둔화 전망이 하락압력으로 작용하고, 기준금리와의 격차 축소에 따른 가격 부담 등이 상승압력으로 작용하였음.
 - 2월 국고채 금리는 유로지역 리스크 완화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 약화 등으로 다소 상승하였으나, 외국인 순매수 지속, 대외 불안요인 상존 등에 따라 상승폭이 제한적이었음.
 - 3월 국고채 금리도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약화되는 추세가 지속되면서 다소 상승함.

- 2012년 1/4분기 양도성 예금증서(91일) 금리는 경직적인 움직임을 보인 가운데 국고채(3년) 금리를 지속적으로 상회하였으며, 회사채(AA-, 3년) 금리의 경우 순발행량 증대 등으로 상승세를 나타냄.
 - 양도성 예금증서(91일) 금리는 기준금리 동결로 인해 3.54~3.56% 수준에서 정적인 움직임을 보였으며, 안전자산 선호 약화로 인해 국고채 금리(3년)와의 차이가 줄어드는 추세임.

- 회사채 금리는 차환목적의 선발행이 늘어남에 따라 순발행 규모가 확대되면서 상승세를 시현함.

〈그림 30〉 금리 추이



자료: 한국은행.

〈환율〉

2012년 1/4분기 중 원/달러 환율은 유로존 재정위기가 다소 완화되면서 전분기보다 낮은 수준인 분기 평균 1,130원을 기록함.

■ 2012년 1/4분기 중 달러 대비 원화는 유럽 재정위기 완화에 따른 글로벌 금융시장의 안정세에 힘입어 1,110~1,130원 대의 하향안정세를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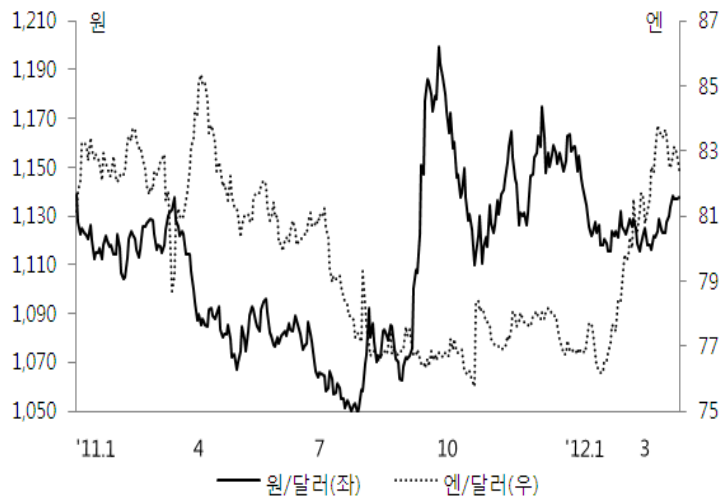
- 1월 초 원/달러 환율은 주요 신용평가사들의 유로존 국가 신용등급 하향조정에 따라 한때 1,160원 대까지 올라갔으나 이태리 등의 국채발행 성공 등으로 국제금융시장이 다소 안정되면서 1,120원 대로 낮아짐.
- 2월 원/달러 환율은 그리스 2차 구제금융 협상과 승인에 대한 불확실성 등으로 1,110~30원 대에서 등락을 보임.

- 3월 중 원/달러 환율은 초반에 달러 강세가 완화되면서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후반에 북한리스크 증대로 달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1,140원에 근접함.

■ 2012년 1/4분기 중 달러 대비 엔화는 초반의 달러 약세에도 불구하고, 중반 이후 일본 당국의 유동성 공급 조치가 이루어지면서 후반기에는 80엔 대 이상을 기록함.

- 1월 중 엔/달러 환율은 유럽 재정위기 우려 완화 등에 따른 미국 달러 약세 등으로 76엔 대로 하락함.
- 2월에는 일본 중앙은행의 양적완화 등에 따라 엔화가 약세를 보이면서 80엔 대로 상승함.
- 3월에도 풍부한 유동성으로 인해 엔화가 약세를 시현하면서 80엔 이상을 유지함.

〈그림 31〉 환율변동 추이



자료: 한국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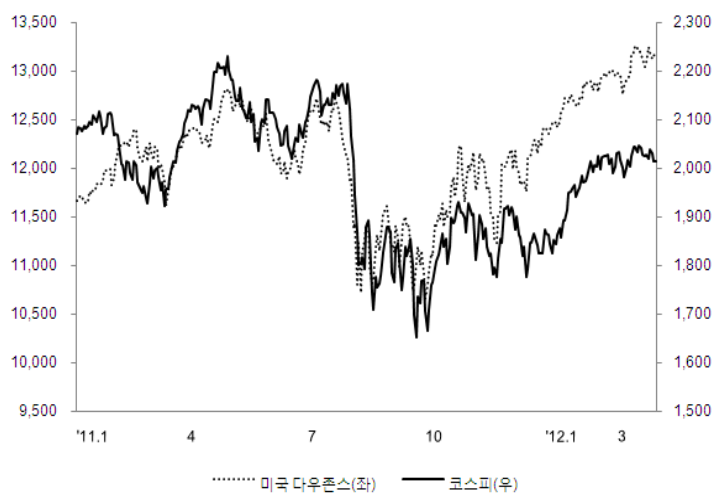
〈주가지수〉

2012년 1/4분기 초 코스피지수는 미국, 중국, EU 등에서의 호재와 외국인 순매수가 증가하면서 분기 평균 1,970을 기록함.

■ 2012년 1/4분기 국내 주식시장은 1월 중 대외 호재로 인해 상승세를 탄 후 외국인 순매수세가 이어지면서 종합주가지수 2,000선을 회복함.

- 1월 초 1,800대 초반에서 출발한 코스피지수는 미국과 중국의 경제지표 개선, ECB 장기대출에 따른 유로존 국채입찰 호조, 미국 연준 통화 완화 정책 유지 등에 따른 외국인 순매수 지속 등으로 1,900대 후반까지 상승하면서 전월 대비 7.1% 상승함.
- 2월 중 코스피지수는 그리스 2차 구제금융 합의, 미국 경제지표 호조, 외국인 순매수 유지 등으로 2,000대를 넘어서면서 전월 대비 3.8% 상승함.
- 3월 코스피지수의 흐름은 개인과 외국인의 순매수세 지속, 미국 연준의 버냉키 의장이 밝힌 저금리 기조 유지 등으로 줄곧 2,000대를 유지하였으나, 상승 모멘텀이 약화되어 전월 대비 1.0% 상승함.

〈그림 32〉 주가지수 추이



자료: 한국은행; bloomberg.

〈자금흐름〉

2011년 4/4분기 보험권의 순수신은 생명보험의 수신 증가세가 지속되면서 전분기대비 늘어났고, 은행권도 신탁부문의 호조로 자금이 유입되었으나, 투신사는 자금이 크게 이탈하였음.

■ 4/4분기(CY 기준) 보험권 순수신은 전분기대비 손해보험의 순수신 감소분을 생명보험의 순수신 증가분이 상회하면서 전분기대비 5.3% 증가함.

- 4/4분기 생명보험 순수신의 경우 수입보험료 증가분이 지급보험금 증가분을 상쇄하면서 8.1% 늘어남.²⁰⁾
- 4/4분기 손해보험 순수신의 경우 원수보험료와 원수손해액이 전분기대비 각각 5.3%, 7.5% 증가하였으나 원수손해액 증가액이 원수보험료보다 커서 순수신은 전분기대비 3.6% 감소함.²¹⁾

■ 4/4분기 중 은행의 순수신은 전분기대비 증가한 반면 증권, 종금, 투신의 순수신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은행권의 경우 지방정부자금 유출, 기업 부채비율 관리에 따른 예금인출 등으로 정기예금이 크게 감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연말 재정집행자금 유입, 세금납부 이연 등에 따라 수시입출식예금이 대폭 늘어나면서 전분기대비 증가함.
- 증권사의 경우 유로존 국가채무 위기 확산 우려, 김정일 사망 등으로 주식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짐에 따라 고객 예탁금과 CMA 예탁금이 크게 줄어들면서 전분기대비 감소함.
- 투신권에서는 채권시장 안정펀드의 만기상환을 위한 자금 회수 등으로 MMF가 크게 줄어들면서 순수신이 전분기대비 감소함.
- 종금사의 경우 발행어음과 기업어음의 발행 실적이 대폭 줄어들면서 전분기대비 크게 감소함.

20) 전년동기대비 기준으로는 수입보험료가 14.4% 증가하고 지급보험금이 19.3% 증가하여 순수신은 8.1% 증가함.

21) 전년동기대비 기준으로는 원수보험료가 5.3% 증가하고 원수손해액은 7.5% 증가하여 순수신은 3.6% 감소함.

〈표 15〉 금융기관 순수신 추이

(단위: 억 원)

구분	2010				2011			
	1/4	2/4	3/4	4/4	1/4	2/4	3/4	4/4
보 험	90,965	113,206	106,839	97,513	95,956	109,637	117,629	123,927
- 생 보	65,558	79,340	80,183	68,578	64,883	78,241	89,732	97,036
- 손 보	25,407	33,866	26,655	28,935	31,073	31,396	27,897	26,891
은 행	217,133	265,044	33,397	274,211	201,600	145,827	242,881	263,282
- 일 반	176,891	247,333	44,878	150,020	123,112	162,787	197,704	173,064
- 신 탁	40,242	17,711	-11,481	124,191	78,488	-16,960	45,177	90,218
증 권	45,027	15,820	-7,803	18,619	34,410	-33,405	34,901	10,078
투 신	107,354	-83,616	-78,660	-111,569	-131,059	-10,171	80,566	-105,662
중 금	38,000	-22,687	-13,827	9,480	-10,921	-40,343	-2,093	-52,656

주: 보험의 순수신은 수입(원수)보험료에서 지급보험금(원수손해액)을 차감하여 산출함.
 자료: 보험개발원, 한국은행.

Ⅲ. 국내보험시장 동향

1. 보험산업 총괄

가. 수입보험료

FY2011 3/4분기 보험산업 전체 수입보험료는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모두 성장세가 둔화되면서 전년동기대비 6.1% 증가에 그친 40조 3,052억 원을 기록함에 따라 수입보험료 증가율도 전분기대비 4.8%p 하락함.

■ FY2011 3/4분기 보험산업의 전체 수입(원수)보험료는 생명보험 성장세가 급격히 둔화되어 전년동기대비 6.1% 증가에 그침.

○ 생명보험 수입보험료는 개인보험과 단체보험 모두에서 수입보험료 증가세가 크게 둔화됨에 따라 전체적으로 1.5% 증가한 23조 6,899억 원을 기록함.

〈표 1〉 보험산업 수입보험료

(단위: 억 원, %)

구분	FY2010					FY2011		
	1/4	2/4	3/4	4/4	연간	1/4	2/4	3/4
생명보험	192,402	192,149	233,418	212,105	830,074	210,617	206,953	236,899
	9.8	7.1	4.4	10.8	7.9	9.5	7.7	1.5
손해보험	120,829	122,403	146,321	132,891	522,444	140,723	141,973	166,153
	20.8	16.5	21.8	17.5	19.2	16.5	16.0	13.6
합계	313,231	314,552	379,739	344,996	1,352,518	351,340	348,926	403,052
	13.8	10.6	10.5	13.3	12.0	12.2	10.9	6.1

주: 1) 주요지표의 각 하단 수치는 전년동기대비 증가율임.

2) 손해보험의 경우 원수보험료 기준임.

3) 특별계정이 포함됨.

자료: 보험개발원, 『보험통계월보』, 각 월호; 생·손보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 손해보험 원수보험료는 장기 및 자동차보험을 중심으로 성장세가 둔화됨에 따라 13.6% 증가한 16조 6,153억 원을 기록함.

나. 총자산

FY2011 3/4분기 말 보험산업 전체 총자산은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의 자산이 양호한 증가세를 나타내면서 전분기에 비해 3.7% 증가한 566조 원을 기록함.

■ FY2011 3/4분기 말 보험산업 총자산 규모는 금융시장 안정으로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자산이 모두 증가함에 따라 전분기대비 3.7% 늘어남.

- 생명보험의 총자산은 금융시장 안정으로 특별계정자산이 증가하면서 전체적으로 3.1% 늘어남.
- 손해보험 총자산은 일반계정과 특별계정자산이 모두 늘어남에 따라 5.9% 증가함.

〈표 2〉 보험산업 총자산

(단위: 조 원, %)

구분	FY2010					FY2011		
	1/4	2/4	3/4	4/4	연간	1/4	2/4	3/4
생명보험	381	397	408	417	417	425	429	443
	2.5	4.1	2.8	2.0	11.8	2.0	1.0	3.1
손해보험	90	94	99	102	102	113	116	123
	4.8	4.7	4.8	3.3	18.7	10.3	3.3	5.9
합계	471	491	507	519	519	538	546	566
	2.7	4.2	3.2	2.3	13.0	3.7	1.5	3.7

주: 1) 주요지표의 각 하단 수치는 전분기대비 증가율임.

2) 특별계정이 포함됨.

자료: 보험개발원, 『보험통계월보』, 각 월호; 생·손보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다. 수익성

FY2011 3/4분기 보험산업 전체 자본이익률은 전년동기대비 손해보험회사의 자본이익률 상승에도 불구하고 생명보험의 책임준비금전입액 증가로 매출이익률이 하락함에 따라 전체적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0.2%p 하락한 2.0%로 나타남.

■ FY2011 3/4분기 보험산업 전체 자본이익률은 생명보험의 자본이익률이 하락하면서 전년 동기대비 0.2%p 하락한 2.0%로 나타남.

- 생명보험회사의 자본이익률은 양호한 보험영업 및 투자영업이익률에도 불구하고 책임준비금전입액이 증가하면서 매출이익률이 하락하여 전년동기대비 0.7%p 하락한 1.8%를 기록함.
- 손해보험회사의 자본이익률은 보험영업손실에도 불구하고 투자영업이익이 증가하면서 전년동기대비 1.5%p 상승한 2.6%를 기록함.

〈표 3〉 보험산업 자본이익률

(단위: %)

구분	FY2010					FY2011		
	1/4	2/4	3/4	4/4	연간 ³⁾	1/4	2/4	3/4
생명보험	4.1	2.5	2.5	2.6	12.4	2.9	1.3	1.8
손해보험	4.0	2.2	1.1	3.5	11.3	5.9	3.4	2.6
합계	4.1	2.4	2.2	2.8	12.1	3.6	1.9	2.0

주: 1) 생명 및 손해보험회사는 각각 22개, 17개 국내외 보험회사를 분석대상으로 함.

2) 분기 자본이익률 = 당분기 당기순이익 / 기중자본

3) 연간 자본이익률 = 누적 당기순이익 / ((전회계연도 말 자본 + 당기 말 자본 - 누적 당기순이익) / 2)

자료: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각 월호.

2. 생명보험

가. 수입보험료 및 총자산

〈생명보험 전체〉

■ FY2011 3/4분기 생명보험 수입보험료는 개인보험과 단체보험 수입보험료 증가세가 모두 크게 둔화되면서 전년동기대비 1.5% 증가한 23조 6,899억 원으로 나타남.

- 개인보험 수입보험료의 경우 생존보험 수입보험료가 기저효과로 감소세로 전환되고, 두 자리 수의 증가세를 나타내던 생사혼합보험과 변액보험 수입보험료도 한 자리 수 증가에 그치면서 전체적으로 1.5% 증가함.
- 단체보험 수입보험료는 퇴직연금 수입보험료 증가에도 불구하고 퇴직보험의 수입보험료 감소 효과로 전체적으로 1.4% 증가에 그침.

■ FY2011 3/4분기 생명보험 총자산은 금융시장 안정으로 특별계정 자산과 유가증권이 증가하면서 전분기대비 3.1%의 높은 증가율을 나타냄.

- 금융시장이 안정을 되찾으면서 FY2011 2/4분기 주가 폭락에 따른 기저효과로 주식투자 비중이 높은 특별계정 자산이 1.7% 증가하였으며, 운용자산 중 주식 자산도 증가세로 전환됨.

〈표 4〉 생명보험 수입보험료 및 총자산

(단위: 억 원, %)

구분	FY2010					FY2011		
	1/4	2/4	3/4	4/4	연간	1/4	2/4	3/4
수입보험료	192,402	192,149	233,418	212,105	830,074	210,617	206,953	236,899
	9.8	7.1	4.4	10.8	7.9	9.5	7.7	1.5
총 자산	3,816,622	3,974,875	4,084,952	4,166,520	4,166,520	4,250,375	4,293,992	4,426,524
	2.5	4.1	2.8	2.0	11.8	2.0	1.0	3.1

주: 1) 수입보험료는 분기별 통계로서 변액보험 및 퇴직보험·연금 특별계정을 포함한 실적임.

2) 하단은 증가율이며, 총자산은 전분기대비, 수입보험료는 전년동기대비임.

자료: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종목별 수입보험료 현황〉

■ FY2011 3/4분기 개인보험 수입보험료는 사망보험이 감소세를 지속하고 생존보험이 감소세로 전환하였으며, 생사혼합보험 및 변액보험의 성장세가 둔화되는 등 전반적으로 수요가 위축되면서 1.5% 증가에 그침.

- 사망보험 수입보험료는 0.2% 감소하며 감소세를 이어갔으나, 사망보험 중 종신보험 수입보험료는 1.8%의 증가세를 유지함.
 - 사망보험 수입보험료의 경우 지속되고 있는 감소세가 점차 둔화되고 있으며, 특히 전분기대비로는 2분기 연속 증가하는 모습을 나타냄.
- 생존보험 수입보험료는 소득공제 한도 확대에 따라 세제적격 개인연금 수입보험료가 18.1% 증가한 반면, 세제비적격 일반연금 수입보험료가 기저효과로 5.6% 감소하면서 전체적으로 1.2% 감소함.
 - FY2010 3/4~4/4분기 일반연금 수입보험료는 연금전문보험사의 설립과 방카슈랑스를 통한 매출 확대 등에 힘입어 일시적으로 크게 증가하였으며, FY2011 3/4분기에는 이에 따른 기저효과가 작용하면서 감소세로 전환됨.
 - 개인연금 수입보험료는 소득공제 한도 확대(300만 원 → 400만 원)로 두 자리 수의 양호한 증가세를 기록하면서 일반연금 수입보험료 감소를 일부 상쇄함.
- 생사혼합보험 수입보험료는 금리경쟁력 약화와 기저효과 등으로 7.4% 증가에 그쳤으며, 12분기 만에 한 자리 수로 증가율이 둔화됨.
- 변액보험 수입보험료는 8~9월의 주가폭락 이후 FY2011 3/4분기 주식시장의 소폭 안정세에도 불구하고 신규수요가 크게 위축되면서 3.1% 증가에 그침.
 - 변액보험 초회보험료는 변액연금과 변액유니버설보험이 각각 32.4%, 64.5% 감소하면서 전체적으로 46.3% 감소함.
 - 그러나 적립식펀드와 달리 주가 하락으로 인한 해지는 크게 나타나지 않고 있으며, 변액보험 계속보험료는 12.3%의 양호한 성장세를 지속함.

■ FY2011 3/4분기 단체보험 수입보험료는 신규가입 증가로 인한 퇴직연금 수입보험료 증가에도 불구하고 퇴직보험 수입보험료 감소로 인해 전체적으로 1.4% 증가에 그침.

- 퇴직연금 수입보험료는 48.8% 증가한 반면, 일반단체보험과 퇴직보험은 각각 7.8%, 97.6% 감소함.

〈표 5〉 생명보험 종목별 수입보험료

(단위: 억 원, %)

구분		FY2010					FY2011		
		1/4	2/4	3/4	4/4	연간	1/4	2/4	3/4
생존	보험료	40,313	41,775	44,312	44,496	170,897	40,937	43,061	43,773
	증가율	17.2	12.9	8.6	8.8	11.6	1.5	3.1	-1.2
	구성비	21.0	21.7	19.0	21.0	20.6	19.4	20.8	18.5
사망	보험료	71,767	71,868	71,895	71,632	287,162	71,520	71,649	71,772
	증가율	-0.2	-1.1	-1.0	-1.0	-0.8	-0.3	-0.3	-0.2
	구성비	37.3	37.4	30.8	33.8	34.6	34.0	34.6	30.3
생사 혼합	보험료	24,183	24,875	27,370	28,786	105,215	27,350	28,489	29,406
	증가율	33.6	28.7	28.8	23.1	28.2	13.1	14.5	7.4
	구성비	12.6	12.9	11.7	13.6	12.7	13.0	13.8	12.4
변액 보험	보험료	44,983	45,598	50,600	52,949	194,130	52,972	54,714	52,149
	증가율	10.0	8.3	14.0	18.9	12.9	17.8	20.0	3.1
	구성비	23.4	23.7	21.7	25.0	23.4	25.2	26.4	22.0
개인계	보험료	181,247	184,116	194,177	197,863	757,403	192,778	197,913	197,100
	증가율	9.7	7.6	8.4	9.2	8.7	6.4	7.5	1.5
	구성비	94.2	95.8	83.2	93.3	91.2	91.5	95.6	83.2
단체	보험료	11,156	8,033	39,241	14,242	72,672	17,839	9,040	39,798
	증가율	12.6	-3.1	-11.9	38.6	-0.5	59.9	12.5	1.4
	구성비	5.8	4.2	16.8	6.7	8.8	8.5	4.4	16.8
합계	보험료	192,402	192,149	233,418	212,105	830,074	210,617	206,953	236,899
	증가율	9.8	7.1	4.4	10.8	7.9	9.5	7.7	1.5

주: 1) 단체보험은 퇴직보험·연금 특별계정이 포함됨.

2) 증가율은 전년동기대비(분기) 또는 전년대비(연간)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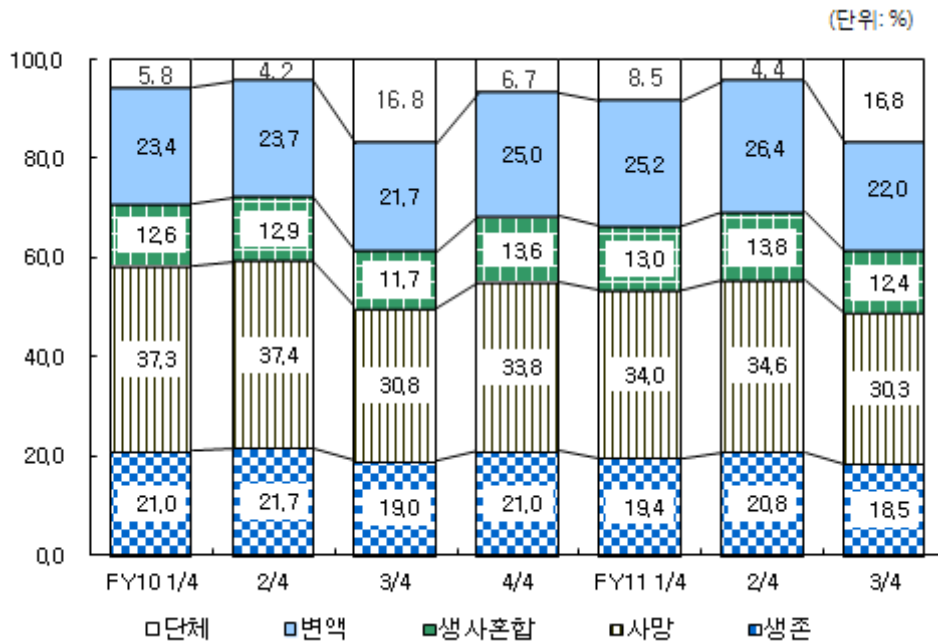
자료: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종목별 수입보험료 구성비〉

■ FY2011 3/4분기 생명보험 종목별 수입보험료 구성비는 수입보험료가 감소한 사망보험과 생존보험의 비중이 전년동기대비 감소한 반면, 생사혼합보험, 변액보험의 비중은 증가하였고 단체보험은 전년동기와 같은 수준으로 나타남.

- 사망보험의 비중은 0.5%p 감소한 30.3%로 나타났으며, 수입보험료 증가율이 마이너스로 전환된 생존보험의 비중도 0.5%p 감소한 18.5%로 나타남.
- 생사혼합보험과 변액보험의 비중은 각각 0.7%p, 0.3%p 증가한 12.4%, 22.0%로 나타났으며, 단체보험 비중은 전년동기와 같은 16.8%를 유지함.

〈그림 1〉 생명보험 종목별 수입보험료 구성비 변동 추이



자료: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회사그룹별 시장점유율〉

■ FY2011 3/4분기 수입보험료 기준 회사그룹별 시장점유율은 상위 3사와 외국사의 점유율이 하락하고 국내중소형사의 점유율이 상승하는 추세를 지속함.

○ 국내중소형사는 생존보험, 생사혼합보험, 변액보험 등 저축성보험에서 수입보험료 증가를 기록하였으며, 점유율은 전년동기대비 1.3%p 상승한 28.6%로 나타남.

- FY2011 3/4분기 전체 생존보험 수입보험료는 감소하였으나, 국내중소형사의 생존보험 수입보험료는 13.7% 증가함.

○ 상위 3사의 점유율은 생사혼합보험에서 수입보험료가 크게 증가하였으나, 사망보험과 생존보험에서 감소하면서 전년동기대비 0.5%p 낮아진 53.6%를 기록함.

○ 외국사의 점유율은 생존보험과 변액보험에서 수입보험료가 감소하면서 0.3%p 하락한 18.2%로 나타남.

■ FY2011 3/4분기 허핀달지수는 상위 3사의 점유율 하락에도 불구하고 국내중소형사의 점유율이 크게 증가하면서 전년동기대비 0.0005 증가한 0.1258로 나타남.

〈표 6〉 생명보험시장 회사그룹별 시장점유율(수입보험료 기준)

(단위: %)

구분	FY2010					FY2011		
	1/4	2/4	3/4	4/4	연간	1/4	2/4	3/4
상위 3개사	52.3	51.7	54.1	51.0	52.3	52.7	50.8	53.6
국내중소형사	26.4	26.6	27.3	28.2	26.9	27.3	29.1	28.6
외 국 사	21.3	21.7	18.5	21.2	20.8	20.3	20.8	18.2
허핀달지수	0.1186	0.1165	0.1253	0.1141	0.1186	0.1219	0.1136	0.1258

주: 1) 퇴직보험·연금 및 변액보험 특별계정 수입보험료를 포함한 실적임.

2) 허핀달지수는 각사 시장점유율을 제곱한 값을 합한 수치로서 시장집중도를 나타내며, 지수가 0.18 이상인 경우에는 시장이 상당히 집중되어 있다고 판단함.

3) 외국사는 지분변동을 기준, 2011년 12월 말 알리안츠 등 9개사이며 ING, 카디프는 국내지분이 있으나 외국사로 간주함.

4) 국내중소형사(11개사)는 상위 3사와 외국사를 제외한 보험회사로 함.

자료: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보험금 지급률 및 사업비율〉

■ FY2011 3/4분기 생명보험산업의 보험금 지급률은 개인보험 중 사망보험 지급률이 상승한 반면, 생존보험, 생사혼합보험, 변액보험의 지급률이 크게 하락하면서 전년동기대비 11.6%p 낮아진 59.0%로 나타남.

○ 생존보험 지급률은 해지환급금이 감소하면서 2.3%p 하락한 58.9%로 나타났으며, 사망보험 지급률은 입원급여금 증가로 2.1%p 상승한 53.2%로 나타남.

○ 생사혼합보험 지급률은 만기도래 감소로 23.6%p 하락한 45.0%로 나타났으며, 변액보험 지급률도 해지환급금이 크게 감소하면서 32.6%p 하락한 45.0%로 나타남.

■ 수입보험료 대비 실제 지출한 사업비율은 전년동기대비 1.3%p 상승한 15.5%로 나타났으며, 해지율은 0.3%p 낮아진 7.9%를 기록함.

〈표 7〉 생명보험 보험금 지급률, 사업비율 및 해지율

(단위: %)

구분	FY2010					FY2011		
	1/4	2/4	3/4	4/4	연간	1/4	2/4	3/4
보험금 지급률	58.8	58.3	70.6	69.4	64.7	62.9	56.6	59.0
개 인 계	52.1	54.0	62.8	57.8	56.8	54.0	52.3	51.1
- 생 존	51.0	51.3	61.2	58.8	55.7	54.5	60.8	58.9
- 사 망	50.2	51.1	51.1	52.8	51.3	50.4	53.0	53.2
- 생사혼합	49.7	50.3	68.6	51.7	55.3	44.8	45.7	45.0
- 변 액	57.5	62.9	77.6	67.2	66.6	63.3	48.0	45.0
단 체	166.7	157.1	109.4	230.3	147.2	158.4	152.5	98.5
사 업 비 율	16.8	16.7	14.2	17.4	16.2	16.5	17.7	15.5
해 지 율	3.0	5.6	8.2	10.5	10.5	2.8	5.3	7.9

주: 1) 보험금 지급률 = 지급보험금 / 수입보험료, 사업비율 = 실제사업비 / 수입보험료,
해지율 = (효력상실액 + 해지액) / (연초보유계약액 + 신계약액)

2) 해지율은 누계지임.

자료: 생명보험협회, 『생명보험』, 각 월호.

나. 경영수지

〈총수익 · 총비용〉

■ FY2011 3/4분기 생명보험산업 당기순이익은 보험영업이익과 투자영업이익 증가에도 불구하고 수입보험료 증가에 따른 보험료 적립금 증가로 책임준비금전입액이 늘어남에 따라 전년동기대비 21.2% 감소한 7,318억 원을 기록함.

- 보험영업이익의 경우 보험영업비용이 지급보험금과 재보험비의 감소로 4.3% 감소하면서 전체적으로 20.6% 증가함.
- 투자영업이익의 경우 투자영업수익이 수수료수익, 대손충당금환입의 감소로 6.9% 감소하였으나, 유가증권 평가손실 등으로 투자영업비용도 61.9% 크게 감소함에 따라 전체적으로 2.3% 증가함.

〈표 8〉 생명보험회사 총수익 및 총비용

(단위: 억 원)

구분		FY2010					FY2011		
		1/4	2/4	3/4	4/4	연간	1/4	2/4	3/4
총수익	보험영업	143,720	146,201	149,339	151,443	590,702	144,384	147,885	149,573
	투자영업	51,080	38,169	47,279	54,683	195,936	52,471	54,812	44,022
	영업외	12,470	8,831	8,969	9,481	39,752	8,977	9,034	9,017
	소 계	207,269	193,202	205,587	215,606	826,390	205,831	211,731	202,612
총비용	보험영업	111,152	111,572	122,808	121,772	467,305	108,640	116,832	117,565
	투자영업	9,784	-3	6,776	7,313	28,596	10,439	16,571	2,584
	영업외	1,594	1,560	1,381	2,031	6,566	1,763	2,377	1,714
	소 계	122,531	113,130	130,965	131,115	502,466	120,842	135,780	121,863
수지차	보험영업	32,567	34,629	26,530	29,671	123,398	35,744	31,053	32,009
	투자영업	41,296	38,172	40,503	47,370	167,340	42,032	38,241	41,438
	영업외	10,876	7,271	7,588	7,450	33,186	7,213	6,657	7,304
	소 계	84,739	80,072	74,622	84,491	323,923	84,989	75,951	80,751
책임준비금전입		68,042	69,018	61,545	71,183	269,789	71,277	69,426	70,902
법인세		3,846	2,652	3,785	3,659	13,942	2,807	1,335	2,530
당기순이익		12,850	8,402	9,292	9,649	40,193	10,906	5,195	7,318

주: 보험영업 및 투자영업 실적은 특별계정을 제외한 일반계정 실적임.

자료: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각 월호.

〈자산 운용〉

■ FY2011 3/4분기 운용자산 이익률은 전년동기대비 0.4%p 하락한 5.2%로 나타났으며, 일반계정자산 이익률도 0.5%p 하락한 4.7%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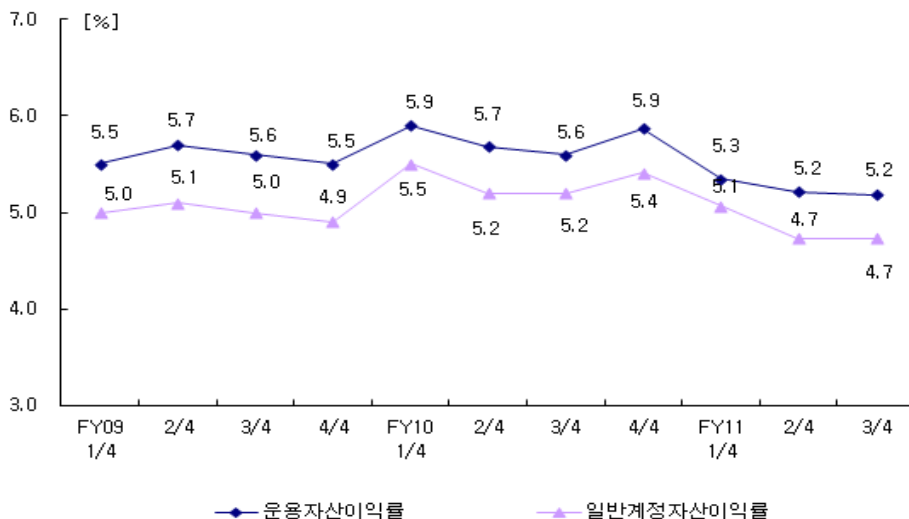
○ 운용자산 중 유가증권 이익률은 당기손익인식증권, 매도가능증권, 만기보유증권, 관계·투자종속기업 투자주식의 이익률이 모두 하락함에 따라 0.3%p 하락한 4.7%로 나타남.

○ 부동산 이익률은 0.5%p 상승한 3.6%로 나타났으며, 대출채권 이익률은 1.0%p 하락한 7.4%로 나타남.

■ 일반계정자산에서 차지하는 항목별 투자비중은 유가증권 65.9%, 대출채권 19.3%, 현금과예금 4.0%, 부동산 3.7% 순으로 나타남.

○ 대출채권의 비중은 전년동기대비 0.8%p 감소하였으나, 현금과예금, 유가증권의 비중은 각각 0.3%p, 0.9%p 증가함.

〈그림 2〉 운용자산 이익률 추이



주: 1) 분기별 누적치이며 운용자산은 일반계정자산에서 비운용자산을 제외한 것임.
 2) 운용자산의 투자이익률은 각 사의 업무보고서 재산이용명세서를 기준으로 하였음.
 3) 운용자산 이익률 = (운용자산이익 × 2) / (기초자산 + 기말자산 - 운용자산이익) × (연기준 환산)
 자료: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표 9〉 생명보험회사 자산운용 포트폴리오

(단위: %, 억 원)

구분	FY2010				FY2011					
	3/4		4/4		1/4		2/4		3/4	
	구성비	이익률	구성비	이익률	구성비	이익률	구성비	이익률	구성비	이익률
현 금 과 예 금	3.7	3.1	3.5	3.6	4.0	3.2	3.8	3.9	4.0	3.8
유 가 증 권	65.0	5.0	65.7	5.4	65.5	5.0	66.0	4.8	65.9	4.7
○ 당기손익인식증권	1.1	3.1	1.2	3.1	1.9	2.5	1.9	-3.0	1.5	0.3
- 주 식	0.0	8.5	0.0	16.2	0.1	-1.8	0.1	-35.9	0.1	-24.5
- 채 권 등	0.2	3.1	0.4	2.9	0.8	3.5	0.8	-1.6	0.8	2.3
- 수익증권	0.9	3.0	0.8	3.0	1.0	2.2	1.0	-0.6	0.6	1.4
○ 매도가능증권	49.2	4.9	49.5	5.4	49.8	5.1	50.2	5.0	50.4	4.8
- 주 식	5.4	1.5	5.3	2.0	4.8	1.7	4.4	1.5	4.9	0.9
- 채 권 등	40.1	5.3	41.0	5.3	42.3	5.0	43.2	5.1	43.2	5.0
- 수익증권	3.7	4.7	3.1	12.7	2.7	12.2	2.6	9.1	2.4	8.3
○ 만기보유증권	13.7	5.3	14.1	5.3	12.8	5.2	13.0	5.1	13.1	5.2
- 채 권 등	13.7	5.3	14.1	5.3	12.8	5.2	13.0	5.1	13.1	5.2
- 수익증권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 관계·종속기업투자주식	0.9	12.5	0.9	10.5	1.1	3.6	0.9	1.7	0.8	1.2
대 출 채 권	20.1	8.4	19.9	8.2	19.4	7.1	19.5	7.2	19.3	7.4
부 동 산	3.7	3.1	3.6	3.0	3.8	3.5	3.7	3.8	3.7	3.6
운 용 자 산 계	92.4	5.6	92.7	5.9	92.6	5.3	93.0	5.2	92.9	5.2
비 운 용 자 산	7.6	0.2	7.3	0.1	7.4	1.6	7.0	-1.5	7.1	-0.9
일 반 계 정 자 산 계 (자 산 운 용 률)	100.0 (80.7)	5.2	100.0 (80.4)	5.4	100.0 (80.9)	5.1	100.0 (81.7)	4.7	100.0 (81.9)	4.7
특 별 계 정 자 산	19.3	9.5	19.6	8.7	19.1	1.2	18.3	-5.8	18.1	-2.3
총 자 산	100.0	6.0	100.0	6.0	100.0	4.3	100.0	2.7	100.0	3.4
총 자 산 규 모	4,084,952		4,166,524		4,250,375		4,293,992		4,426,524	

주: 1) 이익률은 누계실적임.

2) 자산구성비는 일반계정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임.

자료: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수익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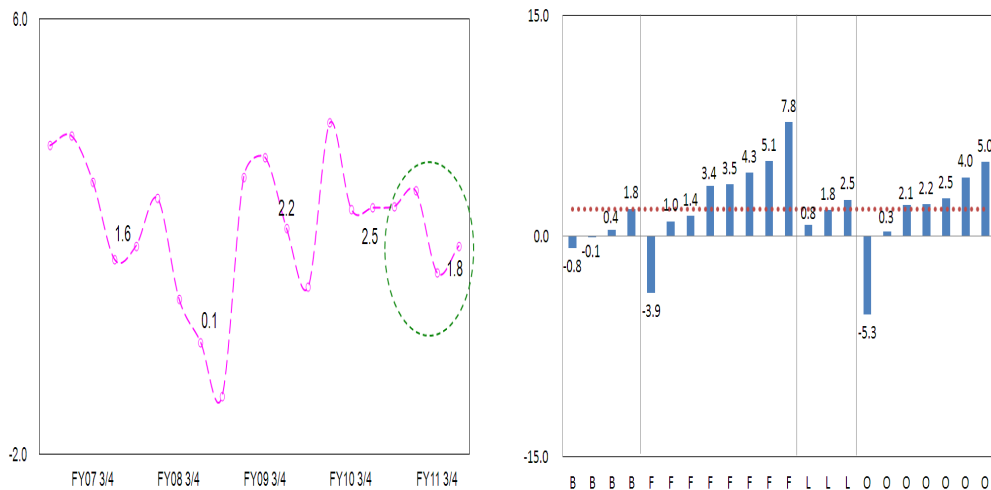
1) 자본이익률(기중자본대비 당기순이익)¹⁾

■ FY2011 3/4분기 생명보험회사 자본이익률은 전년동기대비 0.7%p 하락한 1.8%를 기록하였으나, 전분기대비 소폭 상승함.

- 생명보험회사별 자본이익률 분포에서 대부분의 외국사와 중소형사의 자본이익률은 산업평균(1.8%)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 3〉 생명보험회사 자본이익률 현황

(단위: %)



주: 1) 오른쪽 그림은 FY2011 3/4분기 생명보험회사별 자본이익률임.

2) B, F, L, O는 각각 방카사, 외국사, 대형사, 중소형사를 의미함.

3) 회사별 자본이익률 분포에서 표시된 점선은 산업수준의 자본이익률을 의미함.

자료: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1) 보험회사 경영성과지표 중 하나인 자본이익률(R_t / E_t^o : 기중자본대비 당기순이익)을 매출이익률(R_t / S_t : 매출액대비 당기순이익), 자산회전율(S_t / A_t^o : 기중자산대비 매출액), 레버리지비율(A_t^o / E_t^o : 기중자본대비 기중자산)로 분해하여 분석하며, 분석대상은 대형사, 중·소형사, 외국사, 방카사 등 총 22개 회사임.

■ FY2011 3/4분기 생명보험회사 그룹별 자본이익률의 경우 전년동기대비 기준 시 중소형사와 방카사는 상승하였으나, 대형사와 외국사는 하락한 모습을 보였으며, 전분기대비로는 모든 그룹의 자본이익률이 상승함.

- 중소형사의 자본이익률은 전년동기대비 0.6%p 상승한 2.5%를 기록하였으며, 방카사는 당기순손실에서 당기순이익을 실현함으로 전년동기대비, 전분기대비 모두 0.4%p 개선됨.
- 한편, 대형사와 외국사의 자본이익률은 각각 1.4%, 3.3%를 기록하였는데, 이는 전년 동기대비 각각 1.1%p, 0.3%p 하락한 반면, 전분기대비 각각 0.2%p, 1.8%p 상승함.

〈표 10〉 생명보험회사 자본이익률 추이

(단위: %)

구분	FY2010					FY2011		
	1/4	2/4	3/4	4/4	연간 ²⁾	1/4	2/4	3/4
대형사	4.5	2.8	2.5	3.1	13.6	2.6	1.2	1.4
중소형사	3.3	0.1	1.9	0.3	5.7	4.4	2.1	2.5
외국사	3.4	3.1	3.6	2.1	13.1	3.1	1.5	3.3
방카사	0.4	0.4	-0.3	2.8	3.7	-0.8	-0.3	0.1
전체	4.1	2.5	2.5	2.6	12.4	2.9	1.3	1.8

주: 1) 자본이익률 = 당분기 당기순이익* / [(전분기 자본 + 당분기 자본)* 0.5]

*당기순이익 = 영업이익 + 영업외이익 + 특별계정이익 - 법인세비용

2) 자본이익률 = 누적 당기순이익 / [(전회계연도 말 자본 + 당분기 자본 - 누적 당기순이익)* 0.5]

자료: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 FY2011 3/4분기 생명보험회사 전체 자본이익률이 전년동기대비 하락한 가운데 레버리지 비율을 제외한 자산회전율, 매출이익률이 모두 하락함.

- 중소형사와 방카사는 레버리지비율과 매출이익률 상승으로 전년동기대비 자본이익률이 개선된 반면, 대형사는 매출이익률이 2.2%p 하락하면서, 외국사는 레버리지비율과 자산회전율이 하락하면서 낮은 자본이익률을 기록함.
- 전분기 기준으로는 대형사, 중소형사, 외국사, 방카사 모두 자본이익률이 다소 개선되었는데, 이는 모두 매출이익률이 개선되었기 때문임.

〈표 11〉 생명보험회사 자본이익률 분해

(단위: 배, %)

구분	레버리지비율			자산회전율			매출이익률		
	FY2010 3/4	FY2011 2/4	FY2011 3/4	FY2010 3/4	FY2011 2/4	FY2011 3/4	FY2010 3/4	FY2011 2/4	FY2011 3/4
대형사	8.7	8.7	8.7	4.8	4.7	4.2	5.9	2.9	3.7
중소형사	12.0	12.5	12.7	9.4	8.7	8.3	1.7	2.0	2.4
외국사	7.4	7.3	7.2	7.2	6.6	6.5	6.7	3.2	7.1
방카사	11.8	11.3	11.9	10.7	9.8	9.7	-0.3	-0.2	0.1
전체	8.9	9.0	9.0	6.0	5.8	5.4	4.7	2.6	3.8

주: 1) 레버리지비율 = 기중자산 / 기중자본

2) 자산회전율 = 영업수익 / 기중자산

3) 매출이익률 = 당기순이익 / 영업수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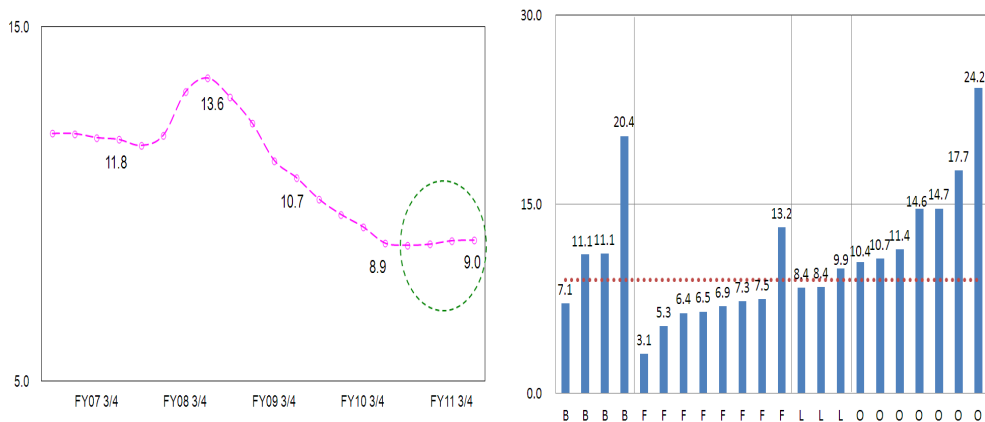
자료: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① 레버리지비율(기중자본대비 기중자산)

■ FY2011 3/4분기 생명보험회사 레버리지비율은 9.0배로 FY2010 3/4분기 이후 안정적 추이를 나타냄.

〈그림 4〉 생명보험회사 레버리지비율 현황

(단위: 배)



주: 1) 오른쪽 그림은 FY2011 3/4분기 생명보험회사별 레버리지비율임.

2) B, F, L, O는 각각 방카사, 외국사, 대형사, 중소형사를 의미함.

3) 회사별 레버리지비율 분포에서 표시된 점선은 산업수준의 레버리지비율을 의미함.

자료: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 FY2011 3/4분기 생명보험회사 그룹별 레버리지비율의 경우 중소형사와 방카사의 레버리지비율이 전분기대비 상승하였으나, 생명보험회사 전체로는 전분기와 동일한 수준을 유지함.

- 중소형사와 방카사의 레버리지비율은 자산증가 효과로 전분기대비 늘어남.
- 대형사의 레버리지비율은 전분기와 동일한 수준을 유지한 반면, 외국사의 경우 꾸준히 하락세를 나타냄.

〈표 12〉 생명보험회사 레버리지비율 추이

(단위: 배)

구분	FY2010					FY2011		
	1/4	2/4	3/4	4/4	연간 ²⁾	1/4	2/4	3/4
대형사	9.5	9.2	8.7	8.5	10.8	8.5	8.7	8.7
중소형사	13.1	12.6	12.0	12.4	15.9	12.5	12.5	12.7
외국사	7.9	7.6	7.4	7.5	10.7	7.5	7.3	7.2
방카사	15.0	13.7	11.8	11.3	16.8	11.0	11.3	11.9
전체	9.7	9.4	8.9	8.8	11.4	8.9	9.0	9.0

주: 레버리지비율 = 기중자산 / 기중자본
 자료: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 FY2011 3/4분기 생명보험회사 전체²⁾ 자산이 전분기대비 2.7% 증가하였으나, 자본도 2.5% 증가함에 따라 산업 전체 레버리지비율이 전분기와 동일한 수준을 나타냄.

- 전년동기대비로는 생명보험회사 전체 자산증가율이 자본증가율을 1.1%p 상회함에 따라 레버리지비율이 소폭 상승함.

2) IBK 연금보험은 제외됨.

〈표 13〉 생명보험회사 자산¹⁾ 및 자본증가율

(단위: %)

구분	자산증가율		자본증가율	
	전년동기대비	전분기대비	전년동기대비	전분기대비
대형사	7.3	2.3	6.8	2.2
중소형사	17.0	4.0	10.7	2.3
외국사	10.0	2.3	12.8	3.9
방카사	28.0	6.1	27.3	0.9
전체	9.8	2.7	8.7	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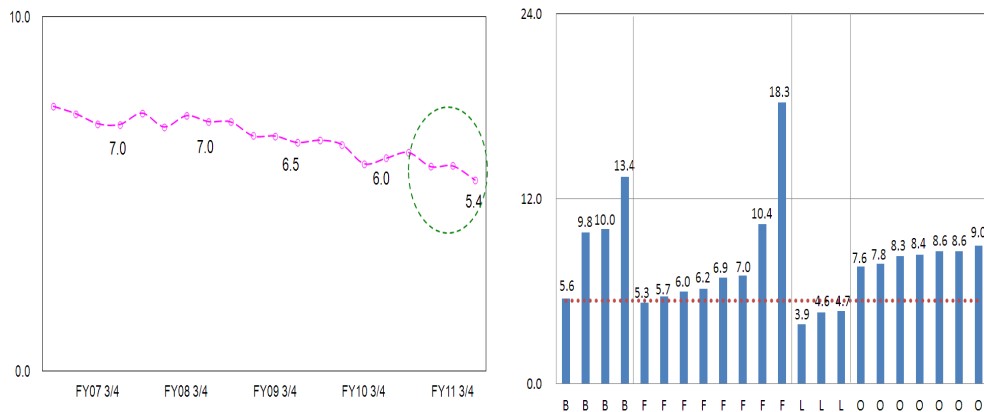
주: 1) IBK 연금보험을 제외한 22개의 생명보험회사의 총자산임.
자료: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② 자산회전율(기중자산대비 매출액)

■ FY2011 3/4분기 생명보험회사 자산회전율은 지속되고 있는 중소형사와 방카사의 높은 자산회전율에 힘입어 5.4%를 기록함.

〈그림 5〉 생명보험회사 자산회전율 현황

(단위: %)



주: 1) 오른쪽 그림은 FY2011 3/4분기 생명보험회사별 자산회전율임.

2) B, F, L, O는 각각 방카사, 외국사, 대형사, 중소형사를 의미함.

3) 회사별 자산회전율 분포에서 표시된 점선은 산업수준의 자산회전율을 의미함.

자료: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 생명보험 회사별 자산회전율의 경우 대형사 모두와 일부 외국사를 제외한 모든 회사들이 산업평균수준(5.4%)을 상회함.
- 중소형사와 방카사의 자산회전율은 각각 8.3%, 9.7%를 기록한 반면, 대형사와 외국사는 각각 4.2%, 6.5%를 나타냄.

■ FY2011 3/4분기 생명보험회사 전체 보험영업 및 투자영업회전율은 각각 4.2%, 1.2%를 기록함.

- 생명보험회사 전체 자산회전율 하락은 전년동기대비로는 보험영업 및 투자영업회전율 하락이, 전분기대비로는 투자영업회전율 하락이 주원인임.
- 특히, 중소형사와 방카사의 보험영업회전율이 대형사와 외국사에 비해 여전히 높은 수준이나, 전년동기대비 하락폭이 크게 나타남.

〈표 14〉 생명보험회사 자산회전율 분해

(단위: %)

구분	자산회전율			보험영업			투자영업		
	FY2010 3/4	FY2011 2/4	FY2011 3/4	FY2010 3/4	FY2011 2/4	FY2011 3/4	FY2010 3/4	FY2011 2/4	FY2011 3/4
대형사	4.8	4.7	4.2	3.3	3.1	3.1	1.4	1.6	1.2
중소형사	9.4	8.7	8.3	7.9	7.1	7.0	1.5	1.6	1.3
외국사	7.2	6.6	6.5	5.7	5.1	5.1	1.5	1.4	1.4
방카사	10.7	9.8	9.7	9.5	8.4	8.5	1.2	1.4	1.3
전체	6.0	5.8	5.4	4.6	4.2	4.2	1.5	1.6	1.2

주: 1) 자산회전율 = 영업수익* / 기중자산

*영업수익 = 보험영업수익 + 투자영업수익

2) 보험영업회전율 = 보험영업수익 / 기중자산

3) 투자영업회전율 = 투자영업수익 / 기중자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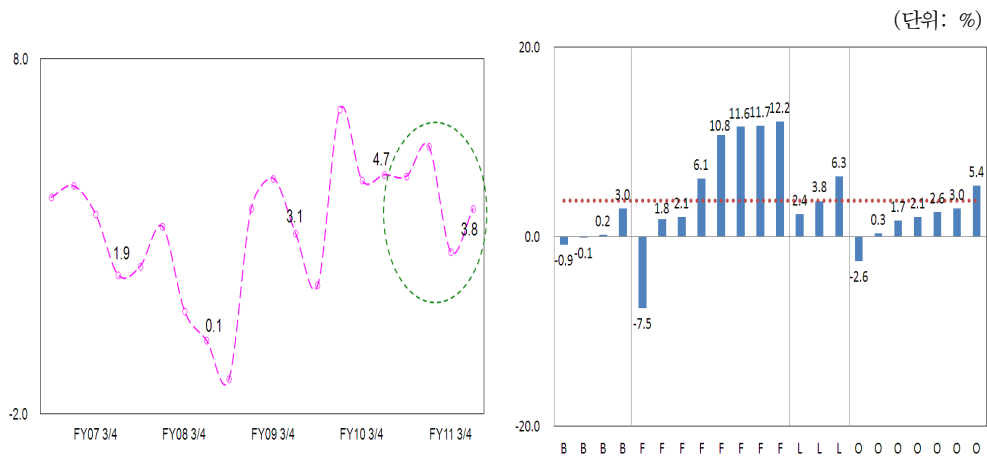
자료: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③ 매출이익률(매출액대비 당기순이익)

■ FY2011 3/4분기 생명보험회사 매출이익률은 3.8%로 나타나 전년동기대비 0.9%p 하락하였으나, 전분기에 비해서는 1.2%p 상승함.

- 회사별 매출이익률의 경우 일부 대형사와 다수 외국사의 매출이익률이 산업평균(3.8%)을 상회하고 있으나, 방카사와 중소형사 대부분은 부진한 매출이익률 수준을 나타냄.

〈그림 6〉 생명보험회사 매출이익률 현황



주: 1) 오른쪽 그림은 FY2011 3/4분기 생명보험회사별 매출이익률임.

2) B, F, L, O는 각각 방카사, 외국사, 대형사, 중소형사를 의미함.

3) 회사별 매출이익률 분포에서 표시된 점선은 산업수준의 매출이익률을 의미함.

자료: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 FY2011 3/4분기 생명보험회사 전체 보험영업이익률과 투자영업이익률은 모두 개선되었으나, 책임준비금전입액 고려 시 영업이익이 감소하여 매출이익률이 전년동기대비 0.9%p 하락함.

- 보험영업이익률의 경우 중소형사와 방카사가 각각 28.1%, 46.4%를 기록하는 등 양호한 수준을 기록함.
- 투자영업이익률은 대형사가 27.3%, 외국사가 19.0%로 양호한 수준을 나타냄.

〈표 15〉 생명보험회사 매출이익률 분해

(단위: %)

구분	매출이익률			보험영업			투자영업		
	FY2010 3/4	FY2011 2/4	FY2011 3/4	FY2010 3/4	FY2011 2/4	FY2011 3/4	FY2010 3/4	FY2011 2/4	FY2011 3/4
대형사	5.9	2.9	3.7	4.1	7.6	8.7	26.9	23.0	27.3
중소형사	1.7	2.0	2.4	27.5	28.1	28.1	11.5	12.9	13.7
외국사	6.7	3.2	7.1	12.6	9.5	11.5	17.7	16.9	19.0
방카사	-0.3	-0.2	0.1	41.8	45.3	46.4	10.8	12.9	11.4
전체	4.7	2.6	3.8	13.0	14.8	16.2	20.7	19.0	21.5

주: 1) 매출이익률 = 당기순이익 / 영업수익

‘당기순이익 = 영업이익 + 영업외이익 + 특별계정이익 - 법인세비용

2) 보험영업이익률 = 보험영업이익 / 영업수익(보험영업수익 + 투자영업수익)

3) 투자영업이익률 = 투자영업이익 / 영업수익(보험영업수익 + 투자영업수익)

자료: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다. 판매채널

〈모집형태별 초회보험료〉

■ FY2011 3/4분기 모집형태별 초회보험료 비중은 임직원, 대리점 비중이 증가한 반면, 방카슈랑스, 설계사 비중은 감소함.

- 임직원 비중은 퇴직연금 초회보험료 증가로 전년동기대비 6.3%p 증가한 32.5%로 나타났으며, 대리점 비중은 1.1%p 증가한 7.2%로 나타남.
- 방카슈랑스 비중은 생사혼합보험과 변액보험을 중심으로 1.1%p 감소한 36.5%로 나타났으며, 설계사 비중은 변액보험에서 증가하였으나 퇴직연금에서 감소하면서 5.6%p 감소한 23.5%로 나타남.

〈표 16〉 생명보험 모집형태별 비중(초회보험료 기준)

(단위: %, 억 원)

구분	FY2010					FY2011		
	1/4	2/4	3/4	4/4	연간	1/4	2/4	3/4
임 직 원	14.1	11.5	26.2	25.2	21.0	22.7	12.7	32.5
설 계 사	26.5	27.2	29.1	21.8	26.1	27.0	29.5	23.5
대 리 점	7.2	7.7	6.1	6.8	6.8	9.5	7.3	7.2
중 개 사	0.0	0.0	0.0	0.0	0.0	0.0	0.0	0.0
방카슈랑스	51.9	53.1	37.6	45.4	45.5	40.3	50.0	36.5
기 타	0.3	0.4	0.9	0.8	0.7	0.4	0.4	0.3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24,407	25,053	44,342	40,993	134,794	33,748	29,400	76,222

주: 합계의 하단 수치는 전체 초회보험료 규모임.

자료: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모집조직〉

■ FY2011 3/4분기 생명보험산업의 모집조직은 전분기에 비해 설계사 수가 증가한 반면 대리점 수는 감소하였으며, 임직원 수는 변화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남.

○ 임직원 수는 전분기대비 1명 증가한 27,340명으로 나타났으며, 대형사의 임직원 수는 감소하고 국내중소형사와 외국사의 임직원수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설계사 수는 전분기에 비해 2,133명 증가하였으며, 전속설계사는 3,010명 증가한 반면 교차설계사는 877명 감소함.

- 대형사의 전속설계사 수는 3,781명 증가한 반면, 국내중소형사와 외국사의 전속설계사 수는 각각 419명, 352명 감소함.

○ 대리점 수는 개인대리점과 법인대리점이 각각 319개, 103개 감소하면서 전체적으로 422개가 감소한 9,089개로 나타남.

- 대리점 수는 모든 집단에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표 17〉 생명보험 모집조직 규모

(단위: 명, 개)

구분	FY2010				FY2011		
	1/4	2/4	3/4	4/4	1/4	2/4	3/4
임 직 원	26,566	26,230	26,481	26,586	26,717	27,339	27,340
설 계 사	159,512	153,778	149,140	146,065	147,671	150,161	152,294
- 전속	137,945	137,027	133,763	132,117	134,574	138,024	141,034
- 교차	21,567	16,751	15,377	13,948	13,097	12,137	11,260
대 리 점	11,679	10,659	10,359	9,846	9,610	9,511	9,089
- 개인	7,548	7,186	6,876	6,364	6,177	6,176	5,857
- 법인	4,131	3,473	3,483	3,482	3,433	3,335	3,232

자료: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3. 손해보험

가. 원수보험료 및 총자산

〈손해보험 전체〉

■ FY2011 3/4분기 손해보험 원수보험료는 장기성보험과 일반손해보험의 증가율이 둔화되고 자동차보험이 저성장함에 따라 전년동기대비 13.6% 늘어난 16조 6,153억 원을 기록함.

- 장기성보험 원수보험료의 경우 저축성보험 증가에 힘입은 장기손해보험 고성장과 노후소득 관심 증대에 따른 개인연금 증가에도 불구하고 퇴직연금 고성장세가 둔화됨에 따라 18.0% 증가한 11조 4,971억 원을 나타냄.
- 자동차보험 원수보험료의 경우 신규 자동차 등록대수 감소의 영향으로 자동차 등록대수 증가율이 둔화됨에 따라 2.2% 증가한 3조 2,803억 원에 그침.
- 일반손해보험 원수보험료의 경우 화재 및 해상보험의 실적부진에도 불구하고 보증 및 특종보험이 증가함에 따라 9.5% 증가한 1조 8,380억 원을 기록함.

■ FY2011 3/4분기 말 손해보험 총자산은 특별계정자산과 일반계정자산이 모두 증가하면서 전분기대비 5.9% 증가한 123조 2,944억 원에 달함.

- 특별계정자산의 경우 개인연금이 성장하면서 10.4% 증가하였으며, 일반계정자산도 장기보험의 지속적인 성장에 힘입어 5.7% 증가함.

〈표 18〉 손해보험 원수보험료 및 총자산

(단위: 억 원, %)

구분	FY2010					FY2011		
	1/4	2/4	3/4	4/4	연간	1/4	2/4	3/4
원수보험료	120,829	122,403	146,321	132,891	522,444	140,723	141,973	166,153
	20.8	16.5	21.8	17.5	19.2	16.5	16.0	13.6
- 장기성	75,524	76,673	97,426	85,787	335,411	91,137	91,539	114,971
	30.1	22.9	27.7	21.0	25.3	20.7	19.4	18.0
- 자동차	29,307	30,581	32,103	32,143	124,133	31,977	33,128	32,803
	7.6	8.3	12.7	13.8	10.6	9.1	8.3	2.2
- 일반손해	15,999	15,149	16,792	14,961	62,901	17,608	17,307	18,380
	8.4	4.8	9.5	7.5	7.6	10.1	14.2	9.5
총 자산	902,218	944,143	989,680	1,022,151	1,022,151	1,127,714 ³⁾	1,164,544	1,232,944
	4.8	4.6	4.8	3.3	18.7	10.3	3.3	5.9

주: 1) 주요 지표의 각 하단 수치는 증감률이며, 총자산의 경우 전분기대비, 원수보험료는 전년동기대비 증감률임.

2) 장기성보험은 장기손해보험, 개인연금, 퇴직보험, 퇴직연금 실적을 포함함.

3) FY2011 1/4분기 총자산 및 증가율은 IFRS의 변경된 계정을 기준으로 계산한 실적임.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종목별 원수보험료 현황〉

1) 장기손해보험

■ FY2011 3/4분기 장기손해보험 원수보험료의 경우 저축성보험 중심의 초회보험료 급증과 계속보험료의 꾸준한 유입에 힘입어 전년동기대비 20.4% 늘어난 8조 6,877억 원을 시현함.

- 저축성보험 원수보험료의 경우 초회보험료가 일부 손해보험회사의 판매 확대 등에 힘입어 125.3%나 증가하고 계속보험료도 35%나 증가함에 따라 전체 52.5% 증가한 2조 5,224억 원을 시현함.
- 상해·질병보험 원수보험료의 경우 초회보험료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갱신 효과 등에 따른 계속보험료 증가가 계속됨에 따라 각각 11.5%, 9.1% 증가한 2조 1,152억 원과 1조 5,713억 원을 기록함.

- 재물보험 원수보험료의 경우 제도개선³⁾ 효과 등에 따른 초회보험료 급증세는 다소 둔화되었으나, 계속보험료가 높은 증가율(34.3%)을 유지함에 따라 34.5% 증가한 7,536억 원을 기록함.

■ FY2011 3/4분기 장기손해보험 초회보험료의 경우 저축성보험 신규 수요 급증에 힘입어 전년동기대비 90.6% 증가한 8,609억 원을 기록함.

- 저축성보험 초회보험료는 일부 손해보험회사의 방카슈랑스 채널을 통한 판매 확대 등에 따라 125.3% 증가한 7,216억 원을 기록함.
- 상해·질병보험 초회보험료는 각각 5.4%, 7.0% 감소한 490억 원, 273억 원을 기록하는 등 감소세가 지속됨.
- 재물보험 초회보험료의 경우 37.3% 증가한 415억 원을 기록하였으나, 증가율은 점차 둔화됨.

3) 2009년 5월 「실화법」 개정과 2010년 3월 「화보법」 개정

〈표 19〉 장기손해보험 종목별 원수보험료

(단위: 억 원, %)

구분			FY2010					FY2011		
			1/4	2/4	3/4	4/4	연간	1/4	2/4	3/4
원 수 보험료	상 해	보험료	17,671	18,263	18,976	19,616	74,527	20,363	20,151	21,152
		증가율	17.5	16.7	15.6	15.6	16.3	15.2	10.3	11.5
	운전자	보험료	5,571	5,611	5,636	5,719	22,537	5,749	5,711	5,679
		증가율	11.2	12.4	9.2	4.8	9.3	3.2	1.8	0.7
	재 물	보험료	5,002	5,240	5,604	5,945	21,791	6,264	7,444	7,536
		증가율	9.9	15.2	19.2	22.9	16.9	25.2	42.1	34.5
	질 병	보험료	13,525	13,914	14,405	14,770	56,614	15,261	15,484	15,713
		증가율	28.0	7.1	10.8	11.1	13.6	12.8	11.3	9.1
	저축성	보험료	14,020	15,515	16,540	16,466	62,541	17,882	20,988	25,224
		증가율	65.3	71.6	66.7	41.0	59.9	27.5	35.3	52.5
	통합형	보험료	10,595	10,624	10,733	10,798	42,749	11,077	11,188	11,400
		증가율	13.6	7.0	6.0	4.5	7.6	4.5	5.3	6.2
	자산 연계형	보험료	267	292	257	239	1,055	222	201	173
		증가율	140.1	93.2	120.5	-59.8	8.5	-17.2	-31.2	-32.6
초 회 보험료	상 해	보험료	66,651	69,459	72,151	73,551	281,813	76,818	81,166	86,877
		증가율	25.5	21.2	21.4	16.5	21.0	15.3	16.9	20.4
	상 해	보험료	518	460	517	551	2,046	460	424	490
		증가율	-19.7	-42.0	48.0	15.4	-9.7	-11.2	-7.8	-5.4
	운전자	보험료	127	108	103	201	540	66	65	72
		증가율	4.6	-8.6	-50.8	0.8	-16.9	-48.0	-39.8	-30.7
	재 물	보험료	223	259	302	314	1,098	355	448	415
		증가율	29.6	98.6	51.6	65.0	58.7	59.5	73.3	37.3
	질 병	보험료	239	320	294	345	1,197	310	236	273
		증가율	-53.3	-57.5	3.6	39.8	-33.3	29.6	-26.1	-7.0
	저축성	보험료	2,971	3,477	3,202	2,574	12,224	2,851	4,694	7,216
		증가율	172.3	201.5	192.4	50.0	141.8	-4.0	35.0	125.3
	통합형	보험료	104	106	97	102	409	102	157	146
		증가율	-42.4	-67.1	-11.9	-25.7	-45.5	-2.4	48.1	51.1
계 속 보험료	자산 연계형	보험료	-7	-	0	0	-7	0	0	-2
		증가율	-	-	-100.6	-100.0	-101.9	-99.7	-95.0	1,013.8
	소 계	보험료	4,176	4,730	4,516	4,087	17,509	4,145	6,025	8,609
		증가율	53.3	44.6	98.3	23.8	51.3	-0.7	27.4	90.6
	상 해	보험료	17,153	17,804	18,458	19,065	72,480	19,902	19,727	20,663
		증가율	19.2	19.8	14.9	15.6	17.3	16.0	10.8	11.9
	운전자	보험료	5,444	5,503	5,533	5,518	21,997	5,683	5,646	5,607
		증가율	11.4	12.9	11.8	4.9	10.1	4.4	2.6	1.3
	재 물	보험료	4,779	4,981	5,302	5,631	20,692	5,909	6,996	7,120
		증가율	9.2	12.8	17.8	21.2	15.3	23.6	40.4	34.3
	질 병	보험료	13,286	13,594	14,111	14,425	55,417	14,951	15,248	15,440
		증가율	32.1	11.1	11.0	10.6	15.3	12.5	12.2	9.4
	저축성	보험료	11,049	12,038	13,338	13,892	50,317	15,031	16,293	18,009
		증가율	49.6	52.6	51.1	39.5	47.7	36.0	35.3	35.0
	통합형	보험료	10,491	10,518	10,636	10,696	42,340	10,975	11,031	11,254
		증가율	14.7	9.5	6.2	4.9	8.7	4.6	4.9	5.8
소 계	자산 연계형	보험료	274	292	258	239	1,062	222	201	175
		증가율	146.0	93.4	196.8	-8.8	73.9	-19.1	-31.2	-31.9
	소 계	보험료	62,475	64,729	67,636	69,464	264,304	72,672	75,141	78,267
		증가율	24.0	19.8	18.3	16.0	19.4	16.3	16.1	15.7

주: 기간별 수치는 분기별 실적이며, 자산연계형은 FY2009 3/4분기부터 초회와 계속보험료로 구분됨.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 FY2011 3/4분기 누적 기준 장기손해보험 해지율은 보유계약액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전년동기대비 0.8%p 감소한 9.3%를 기록함.

- 재물보험의 경우 신계약 급증으로 효력상실액 및 해지액이 크게 증가하면서 해지율이 3.0%p 상승하였으나, 나머지 종목은 모두 보유계약액이 효력상실액 및 해지액보다 더 크게 증가함에 따라 해지율이 하락함.

〈표 20〉 장기손해보험 해지율

(단위: %)

구분	FY2010			FY2011		
	2/4	3/4	4/4	1/4	2/4	3/4
상 해	6.8	9.7	12.4	3.2	5.6	8.0
운전자	7.1	10.3	14.3	3.0	5.8	8.4
재 물	8.6	12.1	14.8	5.0	10.8	15.1
질 병	6.7	9.4	11.9	3.2	6.1	8.8
저축성	8.4	11.8	14.7	3.7	7.1	10.4
통합형	5.3	7.7	9.9	2.3	4.4	6.7
계	7.1	10.1	12.9	3.3	6.4	9.3

주: 1) 해지율 = (효력상실액 + 해지액) / (연초보유계약액 + 신계약액)

2) 기간별 수치는 누계치임.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2) 개인연금 및 퇴직연금

■ 연금부문 원수보험료의 경우 개인연금이 고령화 대비 제도개선 등에 힘입어 지속적인 증가세를 나타내었으나, 퇴직보험이 기저효과 등으로 증가율이 크게 둔화됨에 따라 전체 전년동기대비 11.2% 증가한 2조 8,094억 원을 기록함.

- 개인연금 원수보험료는 소득공제 한도 400만 원 상향 조정 등 노후소득 대비를 위한 수요 증가의 영향으로 41.9% 증가한 9,145억 원을 기록함.
- 퇴직연금 원수보험료는 지난해 같은 기간 고성장에 대한 기저효과와 더불어 퇴직보험 종료에 따른 퇴직연금 전환효과가 약화됨에 따라 증가율이 크게 둔화된(26.6%) 1조 8,857억 원을 시현함.

〈표 21〉 개인연금 및 퇴직연금 원수보험료

(단위: 억 원, %)

구분		FY2010					FY2011		
		1/4	2/4	3/4	4/4	연간	1/4	2/4	3/4
개인 연금	보험료	5,527	5,818	6,444	6,908	24,697	7,586	8,200	9,145
	증가율	51.3	43.7	29.6	33.6	38.4	37.2	40.9	41.9
	구성비	62.3	80.6	25.5	56.5	46.1	53.0	79.0	32.6
퇴직 보험	보험료	960	273	3,940	111	5,284	516	4	92
	증가율	26.7	-47.5	-42.3	-80.7	-39.1	-46.3	-98.6	-97.7
	구성비	10.8	3.8	15.6	0.9	9.9	3.6	0.0	0.3
퇴직 연금	보험료	2,385	1,123	14,890	5,218	23,616	6,218	2,169	18,857
	증가율	346.4	107.4	194.9	161.7	190.9	160.7	93.2	26.6
	구성비	26.9	15.6	58.9	42.6	44.1	43.4	20.9	67.1
합계	보험료	8,873	7,214	25,275	12,236	53,598	14,320	10,373	28,094
	증가율	79.4	41.2	50.0	58.2	54.7	61.4	43.8	11.2
	구성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증가율은 전년동기대비 수치이며, 구성비는 연금부문 합계 중 차지하는 비중임.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3) 자동차보험

■ FY2011 3/4분기 자동차보험 원수보험료의 경우 신규 자동차 등록대수 감소와 자동차 등록대수 증가율 둔화로 전년동기대비 2.2% 증가한 3조 2,803억 원을 기록함.

- 신규 자동차 등록대수가 전년동기대비 9.6% 줄어들고 자동차 등록대수 증가율도 2011년 11월부터 2% 대로 낮아진 데다, 성장을 주도하던 자기차량손해(자차) 담보 원수보험료도 감소세로 전환됨에 따라 자동차보험 원수보험료 증가율이 크게 하락함.

■ 담보별로는 의무보험인 대인배상 I 원수보험료가 전년동기대비 5.5% 감소하였으며, 종합보험 원수보험료도 3.9% 증가에 그침.

- 대인배상 I 원수보험료의 경우 신규 자동차 등록대수 감소의 영향으로 개인용 물건과 업무용 물건이 각각 6.5%, 4.3% 감소함에 따라 전체 5.5% 감소한 8,311억 원을 기록함.

- 종합보험 원수보험료의 경우 차량 대형화 및 고급화에 따른 대물 담보 증가세(12%)는 유지되었으나, 자차 담보가 감소함에 따라 전체 3.9% 증가한 2조 3,101억 원에 그침.
- 자차 담보의 경우 '자기부담금 정률제' 시행으로 3.2% 감소하였으며, 이는 자동차보험 저성장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함.

〈표 22〉 자동차보험 담보별 원수보험료

(단위: 억 원, %)

구분		FY2010					FY2011		
		1/4	2/4	3/4	4/4	연간	1/4	2/4	3/4
대인 I		8,539	8,730	8,798	8,545	34,613	8,502	8,584	8,311
		0.0	-0.8	1.9	3.6	1.2	-0.4	-1.7	-5.5
종합 보험	대인 II	3,187	3,249	3,266	3,211	12,914	3,247	3,402	3,360
		5.8	4.0	3.4	3.9	4.3	1.9	4.7	2.9
	대물	7,839	8,189	8,801	8,851	33,679	8,979	9,535	9,857
		12.0	11.2	16.2	17.3	14.2	14.5	16.4	12.0
	자차	7,393	8,003	8,735	9,042	33,173	8,575	8,754	8,455
		14.2	20.0	28.3	26.8	22.5	16.0	9.4	-3.2
	자손	1,054	1,078	1,137	1,125	4,394	1,115	1,177	1,164
		10.7	7.6	11.7	10.7	10.2	5.8	9.2	2.4
	무보험	280	288	290	282	1,139	272	279	265
		3.8	1.6	2.4	2.8	2.6	-2.9	-3.0	-8.5
	소계	19,752	20,807	22,229	22,512	85,299	22,188	23,148	23,101
		11.6	12.8	18.0	18.1	15.2	12.3	11.3	3.9
외화표시		27	20	34	20	102	27	30	39
		-16.4	-0.9	-2.0	-0.6	-5.9	0.4	47.8	14.3
이륜자동차		157	145	138	128	569	173	164	149
		9.5	5.8	16.1	16.5	11.6	10.3	13.0	7.9
기타		831	878	904	938	3,552	1,087	1,202	1,202
		0.8	3.0	5.4	15.2	6.0	30.7	36.8	33.1
합계		29,307	30,581	32,103	32,143	124,134	31,977	33,128	32,803
		7.6	8.3	12.7	13.8	10.6	9.1	8.3	2.2

주: 1) 기간별 수치는 해당기간에 대한 실적치이며, 하단 수치는 전년동기대비 증감률임.

2) 이륜자동차는 대인배상 I 과 종합보험을 합산한 수치임.

3) 기타는 취급업자종합보험, 운전면허교습생보험 및 농기계보험 등의 실적임.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 FY2011 3/4분기 자동차보험 손해율의 경우 자차 담보 손해율이 크게 개선됨에 따라 전년 동기대비 0.5%p 하락한 85.4%를 기록함.

○ 대인배상 I 손해율의 경우 경과보험료가 1.3% 감소하고 발생손해액이 10.1% 증가함에 따라 9.4%p 악화된 90.5%를 기록함.

○ 종합보험 손해율의 경우 '자기부담금 정률제' 시행 등 손해율 개선 노력에 힘입어 자차 담보 손해율이 크게 개선됨에 따라 전체 4.3%p 하락한 83.7%를 기록함.

〈표 23〉 자동차보험 담보별 손해율

(단위: 억 원)

구분		FY2010					FY2011		
		1/4	2/4	3/4	4/4	연간	1/4	2/4	3/4
대인 I		71.4	75.1	81.1	65.9	73.5	73.2	80.4	90.5
종합보험	대인 II	70.5	74.1	74.5	80.0	74.6	86.5	88.9	91.2
	대물	83.1	87.2	93.7	80.7	86.1	87.5	89.6	93.2
	자차	78.3	92.1	90.4	84.0	86.5	78.7	79.0	70.4
	자손	74.8	75.4	82.3	77.9	77.2	66.0	72.5	91.0
	무보험	17.3	46.3	33.3	42.9	34.6	47.6	60.6	68.3
	소계	77.8	85.7	88.0	81.2	83.2	82.3	84.1	83.7
외화표시		64.7	81.9	67.5	71.7	71.5	71.9	84.4	87.8
이륜자동차		97.3	72.3	98.0	64.4	85.4	89.2	92.2	89.7
기타		67.1	86.0	82.9	84.4	81.0	74.4	85.1	81.6
합계		75.7	82.5	85.9	77.1	80.3	79.6	83.2	85.4

주: 1) 기간별 수치는 해당기간에 대한 손해율임.

2) 손해율은 경과손해율(발생손해액/경과보험료)임.

3) 이륜자동차는 대인배상 I 과 종합보험을 합산한 수치임.

4) 기타는 취급업자종합보험, 운전면허교습생보험 및 농기계보험 등의 실적임.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4) 일반손해보험

■ FY2011 3/4분기 일반손해보험 원수보험료는 화재 및 해상보험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보증, 특종보험의 증가에 힘입어 전년동기대비 9.5% 증가한 1조 8,380억 원을 나타냄.

- 화재보험 원수보험료의 경우 공장물건과 일반물건이 각각 5.3%, 1.1% 감소함에 따라 2.7% 감소한 758억 원을 기록함.
- 해상보험 원수보험료의 경우 적하보험과 선박보험이 물동량 및 수요증가 등으로 각각 6.6%, 7.0% 증가하였으나, 항공보험과 기타보험이 각각 6.1%, 55.3% 감소함에 따라 전체 5.5% 감소한 1,833억 원을 기록함.
- 보증보험 원수보험료는 통신 관련 신용보험 고성장에 힘입어 14.4% 증가한 3,908억 원을 기록함.
- 특종보험 원수보험료는 전 종목의 증가세에 힘입어 10.8% 증가한 1조 1,026억 원을 시현함.
 - 기술보험 원수보험료의 경우 건설보험이 건설투자 부진 등으로 4.4% 감소하였으나, 기계보험과 조립보험이 각각 40.1%, 14.6% 증가함에 따라 전체 4.5% 증가한 1,039억 원을 기록함.
 - 상해보험 원수보험료의 경우 여행보험이 감소한 반면, 일반상해보험 및 단체상해보험이 증가함에 따라 전체 11.2% 증가한 3,824억 원을 시현함.
 - 종합보험 원수보험료의 경우 비중이 큰 기업성 물건이 증가함에 따라 4.4% 늘어난 3,170억 원을 기록함.

〈표 24〉 일반보험 종목별 원수보험료

(단위: 억 원, %)

구분		FY2010					FY2011		
		1/4	2/4	3/4	4/4	연간	1/4	2/4	3/4
화 재	보험료	622	602	779	657	2,660	624	598	758
	증가율	-5.0	-4.7	-2.4	-3.2	-3.7	0.4	-0.7	-2.7
	구성비	3.9	4.0	4.6	4.4	4.2	3.5	3.5	4.1
해 상	보험료	2,084	1,970	1,939	1,728	7,721	2,393	2,138	1,833
	증가율	-5.9	-2.0	4.4	-12.1	-4.1	14.8	8.5	-5.5
	구성비	13.0	13.0	11.5	11.5	12.3	13.6	12.4	10.0
보 증	보험료	3,194	2,978	3,417	3,483	13,074	3,547	3,634	3,908
	증가율	0.9	3.1	10.0	11.4	6.4	11.0	22.0	14.4
	구성비	20.0	19.7	20.4	23.3	20.8	20.1	21.0	21.3
특 종	보험료	9,665	9,030	9,955	8,469	37,120	10,409	10,270	11,026
	증가율	15.8	7.2	11.6	11.4	11.5	7.7	13.7	10.8
	구성비	60.4	59.6	59.3	56.6	59.0	59.1	59.3	60.0
해 외 원보험	보험료	433	568	702	623	2,326	636	667	854
	증가율	13.1	13.6	6.2	16.6	11.9	46.9	17.4	21.8
	구성비	2.7	3.7	4.2	4.2	3.7	3.6	3.9	4.6
합계	보험료	15,999	15,149	16,792	14,961	62,901	17,608	17,307	18,380
	증가율	8.4	4.8	9.5	7.5	7.6	10.1	14.2	9.5

주: 1) 증가율은 전년동기대비 수치임.

2) 부수사업의 원수보험료는 제외되었으며, 특종보험은 권원보험의 원수보험료를 포함함.

3) 기간별 수치는 해당기간에 대한 실적치임.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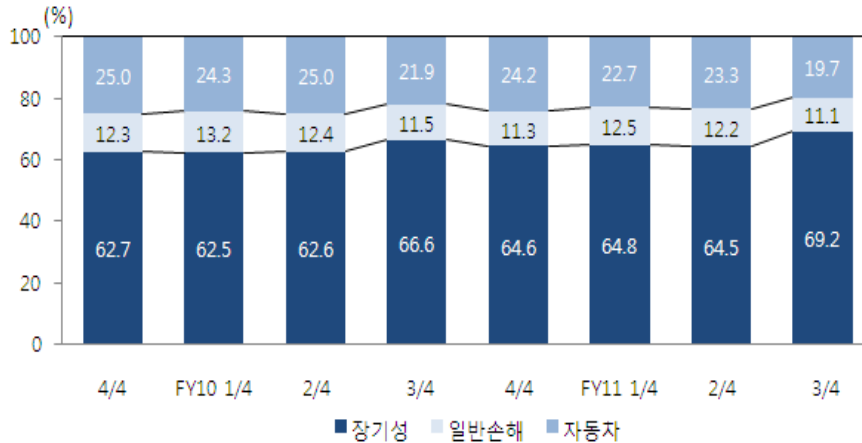
〈종목별 원수보험료 구성비〉

■ FY2011 3/4분기 원수보험료 기준 종목별 구성비의 경우 장기성보험 비중이 전년동기대비 크게 확대된 반면 자동차보험과 일반손해보험 비중은 축소됨.

- 장기성보험 비중은 장기손해보험과 연금부문 고성장으로 원수보험료가 18% 증가함에 따라 2.6%p 늘어난 69.2%를 나타냄.
- 자동차보험 비중은 자동차보험 원수보험료가 신규 자동차 등록대수 감소로 2.2% 증가에 그침에 따라 2.2%p 축소된 19.7%를 기록함.

- 일반손해보험 비중은 보증 및 특종보험 중심의 양호한 성장(9.5%)에도 불구하고 장기정보험의 고성장으로 인해 0.4%p 축소된 11.1%를 나타냄.

〈그림 7〉 손해보험 종목별 원수보험료 구성비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회사그룹별 시장점유율〉

■ FY2011 3/4분기 원수보험료 기준 회사그룹별 시장점유율의 경우 상위 4사와 전업사의 점유율이 전년동기대비 확대된 반면, 기타 국내사와 외국사 점유율은 축소되었으며, 허핀달지수는 0.0004 증가한 0.1504로 나타남.

- 상위 4사의 시장점유율은 일부 대형 손해보험회사의 저축성 장기보험 및 연금부문 판매 증가 등에 힘입어 1.7%p 확대된 72.5%를 시현함.
- 기타 국내사의 경우 원수보험료가 6.7% 증가에 그치면서 시장점유율도 1.5%p 축소된 22.8%를 나타냄.
- 전업사의 경우 보증보험 성장세에 힘입어 시장점유율이 0.1%p 높아진 2.4%를 기록하였으며, 외국사의 경우 저성장(2.6%)이 지속됨에 따라 점유율이 0.3%p 하락한 2.3%를 기록함.

〈표 25〉 손해보험시장 회사그룹별 시장점유율

(단위: %)

구분	FY2010					FY2011		
	1/4	2/4	3/4	4/4	연간	1/4	2/4	3/4
상위 4사	69.1	69.3	70.8	70.3	69.9	71.2	70.8	72.5
국내 기타사	25.2	25.1	24.3	24.2	24.7	23.6	23.8	22.8
전업사	2.7	2.4	2.3	2.6	2.5	2.5	2.6	2.4
외국사	3.0	3.2	2.6	2.8	2.9	2.7	2.9	2.3
전 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온라인사	3.0	3.2	2.6	2.8	2.9	2.6	2.8	2.3
허핀달지수	0.1459	0.1462	0.1500	0.1461	0.1471	0.1520	0.1488	0.1504

주: 1) 국내 기타사에는 국내 중소형사뿐만 아니라 국내 온라인사가 포함되었으며, 전업사는 보증사와 국내 및 외국계 재보사를 포함함. 외국사는 차티스(舊 AIG), ACE, 페더럴, 퍼스트어메리칸권원보험, 미쓰이스미토모뿐만 아니라 AXA손보, 에르고다움다이렉트와 같은 외국계 온라인사도 포함되었음. 온라인사는 주로 자동차보험에 주력하는 더케이손보, 현대하이카, 에르고다움다이렉트, AXA손보 실적을 따로 구분하여 파악한 것임.

2) 허핀달지수는 각 사 시장점유율을 제공한 값을 합한 수치로 시장집중도를 나타내며, 지수가 0.18 이상인 경우에는 시장이 상당히 집중되어 있다고 판단함.

3) 원수보험료 실적은 일반계정 및 특별계정 I, II를 모두 포함함.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손해율과 합산비율〉

■ FY2011 3/4분기 손해보험 손해율은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자차 담보의 발생손해액 감소에 힘입어 0.5%p 하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장기손해보험 등의 손해율이 상승함에 따라 전체 전년동기대비 2.5%p 상승한 82.7%를 기록함.

○ 장기손해보험 손해율은 고성장에 힘입어 경과보험료가 20.6%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판매 증가의 영향으로 발생손해액도 22.9% 증가함에 따라 1.6%p 상승한 83.2%를 기록함.

○ 자동차보험 손해율의 경우 경과보험료가 8.8% 증가하였고, 발생손해액이 IFRS 도입에 따른 손해조사비 항목조정에도 불구하고 ‘자기부담금 정률제’의 영향으로 8.2% 증가에 그치면서 0.5%p 하락한 85.4%로 개선됨.

■ FY2011 3/4분기 사업비율은 손해조사비 항목조정으로 자동차보험 사업비율이 하락함에 따라 전년동기대비 3.6%p 낮아진 18.1%로 개선됨.

- 장기손해보험 사업비율의 경우 신규 판매 증가로 순사업비가 13.8% 증가하였으나, 장기간에 걸친 고성장 및 해지율 안정화 등의 영향으로 보유보험료가 20.8% 증가함에 따라 1.0%p 낮아진 16.4%를 기록함.
- 자동차보험 사업비율은 자동차보험의 증가세 둔화로 보유보험료가 1.0% 증가에 그쳤으나, 순사업비가 IFRS 도입의 영향으로 30.0%나 감소함에 따라 9.4%p 하락한 20.8%로 개선됨.

■ FY2011 3/4분기 합산비율은 손해를 상승에도 불구하고 사업비율이 하락함에 따라 전년 동기대비 1.1%p 하락한 100.8%를 기록함.

〈표 26〉 손해보험 손해율 및 합산비율

(단위: %)

구분		FY2010					FY2011		
		1/4	2/4	3/4	4/4	연간	1/4	2/4	3/4
손해율	장기손해보험*	81.3	81.3	81.6	80.5	81.2	81.7	82.6	83.2
	자동차보험	75.7	82.5	85.9	77.1	80.3	79.6	83.3	85.4
	화재보험	21.2	50.1	-7.2	300.2	38.8	47.4	61.0	66.3
	해상보험	36.1	55.2	143.6	109.6	83.7	58.7	42.2	63.5
	보증보험	-98.2	70.9	27.8	33.8	9.2	43.9	43.0	65.0
	특종보험	52.8	66.4	62.2	66.4	62.2	61.6	69.2	70.9
	해외원보험	42.6	36.1	43.8	41.9	41.1	43.5	56.6	53.8
	해외수재보험	71.8	51.1	82.3	69.9	68.4	54.4	78.5	112.1
	전체	72.8	79.3	80.2	77.8	77.6	78.2	80.7	82.7
사업비율		21.9	22.3	21.7	22.3	22.0	18.3	18.2	18.1
합산비율		94.6	101.6	101.9	100.1	99.6	96.5	98.9	100.8

주: 1) 개인연금, 퇴직보험 및 퇴직연금을 제외한 분기치임.

2) 손해율 = 발생손해액 / 경과보험료, 사업비율 = 순사업비 / 보유보험료, 합산비율 = 손해율 + 사업비율

3) *는 위험손해율 개념이 아닌 재무손해율(적립보험료 및 각종 환급금 감안) 개념임.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나. 경영수지

〈총수익 · 총비용〉

■ FY2011 3/4분기 손해보험회사 당기순이익은 보험영업부문에서 적자를 기록하였으나 투자영업부문의 흑자에 힘입어 전년동기대비 80.5% 증가한 4,717억 원의 흑자를 실현함.

○ 보험영업이익의 경우 장기성보험의 성장 지속으로 보험영업수익이 17.9% 증가하였으나, 지급보험금의 증가로 보험영업비용도 14.7% 증가함에 따라 보험영업수지는 2,551억 원 적자를 기록함.

〈표 27〉 손해보험회사 총수익 및 총비용

(단위: 억 원)

구분		FY2010					FY2011		
		1/4	2/4	3/4	4/4	연간	1/4	2/4	3/4
총 수 익	보험영업	111,904	117,324	121,779	125,138	476,145	128,987	136,235	143,583
	투자영업	11,239	11,210	12,610	12,336	47,396	14,387	16,461	11,576
	기타	4,901	2,883	13,794	11,876	33,455	2,442	2,554	7,079
	소계	128,044	131,418	148,183	149,351	556,996	145,815	155,250	162,238
총 비 용	보험영업	109,492	121,789	127,437	127,308	486,025	126,513	136,765	146,134
	투자영업	2,247	2,013	2,831	2,959	10,050	4,199	6,928	1,545
	기타	4,719	2,365	14,105	12,319	33,508	2,676	2,787	7,521
	소계	116,458	126,167	144,373	142,585	529,583	133,389	146,480	155,200
수 지 차	보험영업	2,412	-4,464	-5,658	-2,169	-9,879	2,474	-530	-2,551
	투자영업	8,992	9,197	9,778	9,377	37,345	10,187	9,533	10,031
	기타	182	518	-311	-442	-53	-235	-233	-443
	소계	11,586	5,251	3,810	6,766	27,413	12,427	8,770	7,037
법인세		2,717	1,315	1,195	1,871	7,098	2,798	2,288	2,321
당기순이익		8,870	3,936	2,614	4,895	20,314	9,629	6,482	4,717

주: 기간별 수치는 퇴직보험과 퇴직연금을 제외한 실적임.
자료: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 투자영업이익의 경우 이자수익 및 매도가능증권 처분이익 감소로 투자영업수익이 8.2% 감소하였으나, 유가증권 처분 및 평가손실 등 투자영업비용도 45.4% 감소한 결과, 투자영업수지는 전년동기대비 2.6% 증가한 1조 31억 원 흑자를 기록함.

〈자산운용〉

■ FY2011 3/4분기 손해보험 일반계정자산에서 각 운용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유가증권 49.9%, 대출채권 18.7%, 현금과예금 6.0%, 부동산 5.3% 순임.

- 유가증권의 경우 매도가능증권 41.8%, 당기손익인식증권 3.7%, 만기보유증권 3.1%, 관계·종속기업 투자주식 1.4% 순으로 나타남.
- 일반계정자산 중 유가증권과 부동산의 비중은 전년동기대비 줄어들었으나, 현금과예금, 대출채권의 비중은 확대됨.
 - 유가증권 비중의 경우 만기보유증권과 관계·투자종속기업 투자주식의 비중은 확대되었으나, 매도가능증권의 비중이 41.8%로 4.5%p 축소됨에 따라 전체 4.1%p 하락한 49.9%를 기록함.

■ FY2011 3/4분기 손해보험회사 운용자산이익률은 현금과예금 및 부동산 이익률이 전년동기대비 상승하였으나, 운용자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유가증권 및 대출채권 이익률이 하락하면서 0.7%p 하락한 4.6%를 기록함.

- 유가증권 중 당기손익인식증권, 매도가능증권, 만기보유증권, 관계·투자종속기업 투자주식의 이익률이 모두 하락함에 따라 전체 유가증권 이익률은 1.1%p 하락한 4.6%를 기록함.
 - 당기손익인식증권의 경우 주식 이익률 하락폭이 커 해당 이익률이 1.2%에 그침에 따라 유가증권 중 가장 낮은 이익률을 기록함.
- 현금과예금 및 부동산 이익률은 모두 0.4%p씩 상승하여 각각 3.8%와 1.3%를 시현한 반면, 대출채권은 0.4%p 하락한 5.7%를 나타냄.

〈표 28〉 손해보험회사 자산운용 포트폴리오

(단위: %, 억 원)

구분	FY2010				FY2011					
	3/4		4/4		1/4		2/4		3/4	
	구성비	이익률	구성비	이익률	구성비	이익률	구성비	이익률	구성비	이익률
현금과예금	5.1	3.4	5.4	3.1	5.8	2.6	5.7	5.3	6.0	3.8
유가증권	54.0	5.7	53.4	5.6	50.2	5.3	49.9	4.7	49.9	4.6
○ 당기손익인식증권 ³⁾	3.9	5.5	4.8	4.6	3.9	2.8	4.0	-0.7	3.7	1.2
- 주 식	0.4	14.2	0.3	14.9	0.5	-4.1	0.3	-32.4	0.3	-25.1
- 채 권 등	0.8	4.5	1.3	3.6	1.2	4.7	1.4	8.0	1.2	7.7
- 수익증권	2.7	4.7	3.2	4.0	2.2	3.1	2.4	-0.3	2.3	2.2
○ 매도가능증권	46.3	5.7	44.7	5.8	41.9	5.4	41.6	5.2	41.8	5.0
- 주 식	4.6	7.5	4.5	7.6	4.1	6.1	3.7	2.1	4.1	1.9
- 채 권 등	30.7	5.5	29.6	5.5	28.9	5.2	28.8	5.7	28.9	5.4
- 수익증권	10.9	5.7	10.5	5.7	9.0	6.0	9.1	5.1	8.8	5.0
○ 만기보유증권	2.6	6.2	3.0	5.4	3.1	5.1	3.0	5.4	3.1	5.4
- 채 권 등	2.4	6.3	2.8	5.5	2.9	5.2	2.8	5.4	2.8	5.4
- 수익증권	0.2	4.8	0.2	3.6	0.2	4.1	0.3	6.2	0.3	5.1
○ 투자주식 ⁴⁾	1.3	4.1	0.9	2.0	1.3	7.2	1.2	4.4	1.4	3.1
대출채권	18.1	6.1	18.4	5.9	17.6	5.8	18.5	5.6	18.7	5.7
부동산	5.8	0.9	5.7	0.9	5.6	1.5	5.4	1.4	5.3	1.3
운용자산	83.0	5.3	83.0	5.1	79.1	4.9	79.6	4.7	80.0	4.6
비운용자산	17.0	0.1	17.0	0.1	20.9	0.0	20.4	-0.1	20.0	0.0
일반계정자산	100	4.4	100	4.3	100	3.9	100	3.7	100.0	3.7
일반계정자산	96.7	4.4	96.4	4.3	96.3	3.9	96.7	3.7	96.6	3.7
특별계정자산	3.3	-	3.6	-	3.7	-	3.3	-	3.4	0.0
총자산	100	4.2	100	4.0	100.0	3.7	100	3.6	100.0	3.5
총자산 규모	989,680		1,022,151		1,127,714		1,164,544		1,232,944	

주: 1) 운용자산 이익률 = (운용자산이익 × 2) / (기초자산 + 기말자산 - 운용자산이익) × 연기준환산

2) 자산구성비는 일반계정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임.

3) FY2011 1/4 분기 이후 단기매매증권에서 당기손익인식증권으로 계정 명칭이 변경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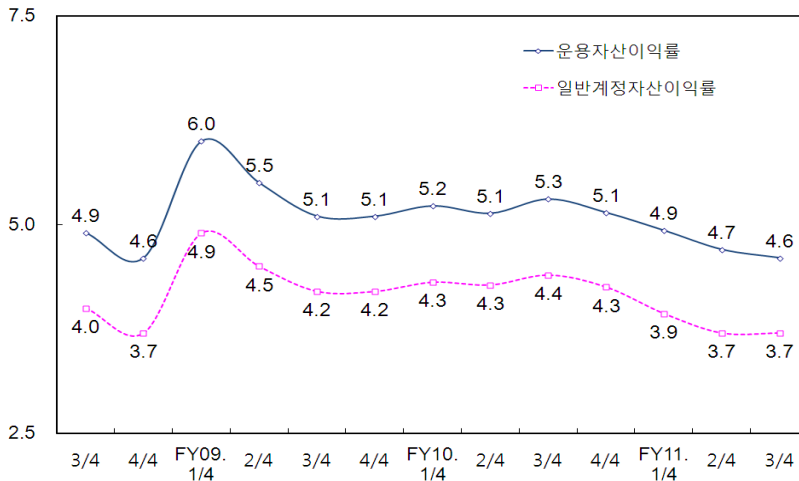
4) 투자주식은 관계·종속기업 투자주식임.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 한편, FY2011 3/4분기 운용자산과 비운용자산을 포함한 일반계정자산 이익률은 전년동기대비 0.7%p 하락한 3.7%로 나타남.

〈그림 8〉 운용자산과 일반계정자산 이익률 추이

(단위: %)



주: 1) 분기별 누적치이며 일반계정자산이익률은 비운용자산까지 포함한 것임.

2) 운용자산 이익률 = (운용자산손익 × 2) / (기초자산 + 기말자산 - 운용자산손익) × 연기준환산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수익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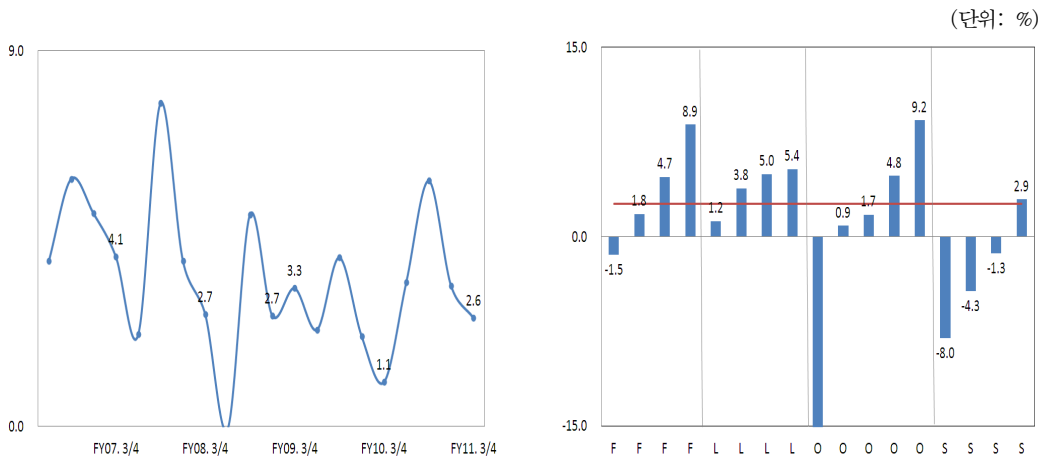
1) 자본이익률(기중자본대비 당기순이익)⁴⁾

■ FY2011 3/4분기 손해보험회사 자본이익률은 전년동기대비 1.5%p 상승한 2.6%를 기록하였으나, 전분기대비로는 0.8%p 하락함.

○ 손해보험회사별 자본이익률의 경우 대형사는 모두 양(+)의 자본이익률을 기록하였으나, 일부 중소형사, 외국사, 전업사는 당기순손실로 음(-)의 자본이익률을 시현함.

4) 보험회사 경영성과지표 중 하나인 자본이익률(R_t / E_t^o : 기중자본대비 당기순이익)을 매출이익률(R_t / S_t : 매출액대비 당기순이익), 자산회전율(S_t / A_t^o : 기중자산대비 매출액), 레버리지비율(A_t^o / E_t^o : 기중자본대비 기중자산)로 분해하여 분석하며, 분석대상은 국내외 17개 회사임.

〈그림 9〉 손해보험회사 자본이익률 현황



주: 1) 오른쪽 그림은 FY2011 3/4분기 회사별 자본이익률 분포임.

2) F, L, O, S는 각각 외국사, 대형사, 중소형사, 전업사를 의미함.

3) 회사별 자본이익률 분포에서 표시된 실선은 산업수준의 자본이익률을 의미함.

자료: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 FY2011 3/4분기 손해보험회사 그룹별 자본이익률의 경우 모든 그룹의 자본이익률이 전년동기대비 상승하였으나, 전분기대비로는 중소형사와 외국사만이 상승함.

- 대형사의 자본이익률이 전년동기대비 0.1%p 상승한 2.7%를 기록한 가운데, 중소형사와 외국사는 당기순이익이 대폭 개선되면서 각각 7.0%p, 6.9%p 상승한 2.8%, 3.6%를 기록함.
- 한편, 전업사 자본이익률의 경우 당기순이익이 개선되면서 전년동기대비 14.6%p 개선되었으나, FY2011 3/4분기에도 지속된 당기순손실로 음(-)의 자본이익률을 기록함.

〈표 29〉 손해보험회사 자본이익률 추이

(단위: %)

구분	FY2010					FY2011		
	1/4	2/4	3/4	4/4	연간 ²⁾	1/4	2/4	3/4
대형사	4.2	2.8	2.6	4.3	14.8	5.8	3.8	2.7
중소형사	4.5	1.6	-4.2	1.4	3.1	6.3	0.8	2.8
외국사	-3.0	6.7	-3.3	-2.2	-1.8	9.1	3.3	3.6
전업사	0.3	-15.3	-17.0	-8.9	-31.4	4.7	2.8	-2.4
국내외 17개사	4.0	2.2	1.1	3.5	11.3	5.9	3.4	2.6

주: 1) 분기 자본이익률 = 당분기 당기순이익 / 기중자본

2) 연간 자본이익률 = 누적 당기순이익 / ((전회계년도 말 자본 + 당기말 자본 - 누적 당기순이익) / 2)

자료: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 FY2011 3/4분기 손해보험회사 전체 자본이익률 변화는 주로 매출이익률의 변화에 따른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남.

- 대형사와 전업사의 경우 전년동기대비로는 매출이익률 개선으로 자본이익률이 상승한 반면, 전분기대비로는 매출이익률과 자산회전을 하락으로 자본이익률도 하락함.
- 외국사의 경우 6.4%에 달하는 매출이익률에 힘입어 상대적으로 높은 자본이익률 수준을 나타냄.
 - 외국사의 경우 레버리지비율 하락에도 불구하고 매출이익률 개선효과로 자본이익률이 상승함.
- 중소형사의 매출이익률(1.5%)이 대형사(3.1%)보다 낮음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높은 레버리지비율(13.4배)에 힘입어 대형사보다 0.1%p 높은 자본이익률을 기록함.

〈표 30〉 손해보험회사 자본이익률 분해

(단위: 배, %)

구분	레버리지비율			자산회전율			매출이익률		
	FY2010 3/4	FY2011 2/4	FY2011 3/4	FY2010 3/4	FY2011 2/4	FY2011 3/4	FY2010 3/4	FY2011 2/4	FY2011 3/4
대형사	7.1	6.5	6.6	14.0	13.8	13.4	2.6	4.2	3.1
중소형사	11.3	13.3	13.4	16.0	14.7	14.1	-22.3	0.4	1.5
외국사	4.2	2.5	2.4	25.8	22.1	23.4	-3.0	6.1	6.4
전업사	5.3	4.9	4.9	21.9	18.8	17.7	-14.8	3.1	-2.8
국내외 17개사	7.6	7.1	7.3	14.6	14.1	13.7	1.0	3.3	2.6

주: 1) 레버리지비율 = 기중자산 / 기중자본

2) 자산회전율 = 영업수익 / 기중자산

3) 매출이익률 = 당기순이익 / 영업수익

자료: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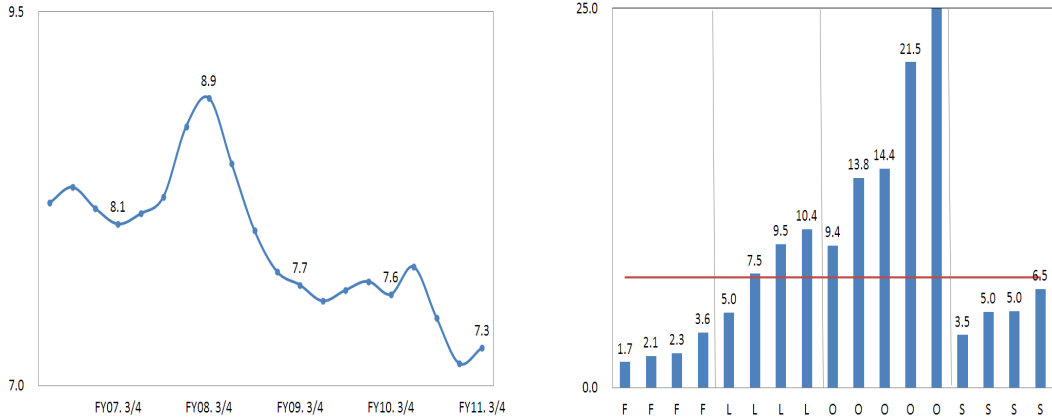
① 레버리지비율(기중자본대비 기중자산)

■ FY2011 3/4분기 손해보험회사 레버리지비율은 7.3배로 전년동기대비 하락하였으나, 전분기대비로는 소폭 상승함.

- 손해보험회사별 레버리지비율의 경우 중소형사 및 대다수 대형사가 산업평균수준(7.3배)을 상회하고 있으나, 외국사 및 전업사의 경우 동 평균수준을 하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 10〉 손해보험회사 레버리지비율 현황

(단위: 배)



주: 1) 오른쪽 그림은 FY2011 3/4분기 회사별 레버리지비율 분포임.

2) F, L, O, S는 각각 외국사, 대형사, 중소형사, 전업사를 의미함.

3) 회사별 레버리지비율 분포에서 표시된 실선은 산업수준의 레버리지비율을 의미함.

자료: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 FY2011 3/4분기 손해보험회사 그룹별 레버리지비율은 대형사와 중소형사의 경우 전분기 대비 상승한 반면, 외국사는 하락함.

○ 대형사와 중소형사의 경우 자산증가 효과로 인해 레버리지비율이 전분기대비 상승하였으며, 외국사의 경우 자본증가 효과로 인해 전분기대비 하락함.

- 외국사의 경우 자본증가율(3.7%)이 자산증가율(2.2%)보다 높게 나타남에 따라 전체 그룹 중 가장 낮은 2.4배에 해당하는 레버리지비율을 기록함.

〈표 31〉 손해보험회사 레버리지비율 추이

(단위: 배)

구분	FY2010					FY2011		
	1/4	2/4	3/4	4/4	연간	1/4	2/4	3/4
대형사	7.2	7.2	7.1	7.1	7.4	6.7	6.5	6.6
중소형사	11.1	11.2	11.3	12.8	12.8	13.7	13.3	13.4
외국사	4.3	4.2	4.2	4.4	4.4	3.1	2.5	2.4
전업사	4.5	5.0	5.3	4.9	4.5	4.8	4.9	4.9
국내외 17개사	7.6	7.7	7.6	7.8	8.0	7.5	7.1	7.3

주: 레버리지비율 = 기중자산 / 기중자본
 자료: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표 32〉 FY2011 3/4분기 손해보험회사 자산 및 자본증가율

(단위: %)

구분	자산증가율 ^{주)}		자본증가율 ^{주)}	
	전년동기대비	전분기대비	전년동기대비	전분기대비
대형사	23.6	5.0	32.8	3.3
중소형사	24.2	5.0	4.8	4.1
외국사	29.8	2.2	126.8	3.7
전업사	23.5	2.4	33.3	2.8
국내외 17개사	23.8	4.9	29.8	3.4

주: 손해보험회사의 자산 및 자본증가율은 국내외 17개사를 대상으로 산출하였음.
 자료: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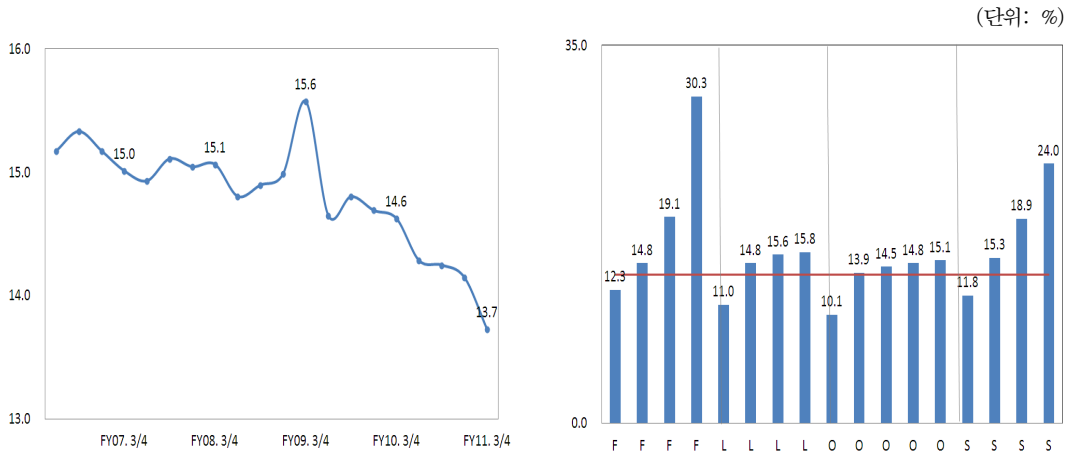
② 자산회전율(기중자산대비 매출액)

■ FY2011 3/4분기 손해보험회사 자산회전율은 FY2010 1/4분기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13.7%를 기록함.

- 대형사 대다수와 중소형사의 자산회전율은 산업평균수준(13.7%)과 유사한 수준을 나타내고 있으나, 일부 외국사 및 전업사는 동 평균수준을 크게 상회한 것으로 나타남.

- 특정 외국사의 높은 자산회전율(30.3%)로 외국사 전체 자산회전율이 23.4%로 산업 평균수준을 크게 상회함.

〈그림 11〉 손해보험회사 자산회전율 현황



주: 1) 오른쪽 그림은 FY2011 3/4분기 회사별 자산회전율 분포임.

2) F, L, O, S는 각각 외국사, 대형사, 중소형사, 전업사를 의미함.

3) 회사별 자산회전율 분포에서 표시된 실선은 산업수준의 자산회전율을 의미함.

자료: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 FY2011 3/4분기 손해보험회사 전체 보험영업회전율과 투자영업회전율은 각각 12.7%, 1.0%를 기록함.

○ 손해보험회사 전체 자산회전율 하락의 원인으로 투자영업회전율 하락을 들 수 있음.

- 외국사의 투자영업회전율 상승을 제외하고 전반적으로 투자영업회전율이 부진한 것으로 나타남.
- 한편, 중소형사와 전업사의 전분기대비 보험영업회전율은 하락하였으나, 대형사와 외국사의 보험영업회전율은 양호한 것으로 나타남.

〈표 33〉 손해보험회사 자산회전율 분해

(단위: %)

구분	자산회전율			보험영업회전율			투자영업회전율		
	FY2010 3/4	FY2011 2/4	FY2011 3/4	FY2010 3/4	FY2011 2/4	FY2011 3/4	FY2010 3/4	FY2011 2/4	FY2011 3/4
대형사	14.0	13.8	13.4	12.5	12.2	12.4	1.5	1.6	1.0
중소형사	16.0	14.7	14.1	14.7	13.4	13.1	1.3	1.3	1.0
외국사	25.8	22.1	23.4	25.2	21.5	22.4	0.7	0.7	1.0
전업사	21.9	18.8	17.7	20.9	17.6	16.9	1.0	1.2	0.8
국내외 17개사	14.6	14.1	13.7	13.2	12.6	12.7	1.4	1.5	1.0

주: 1) 자산회전율 = 영업수익* / 기중자산 *영업수익 = 보험영업수익 + 투자영업수익

2) 보험영업회전율 = 보험영업수익 / 기중자산

3) 투자영업회전율 = 투자영업수익 / 기중자산

자료: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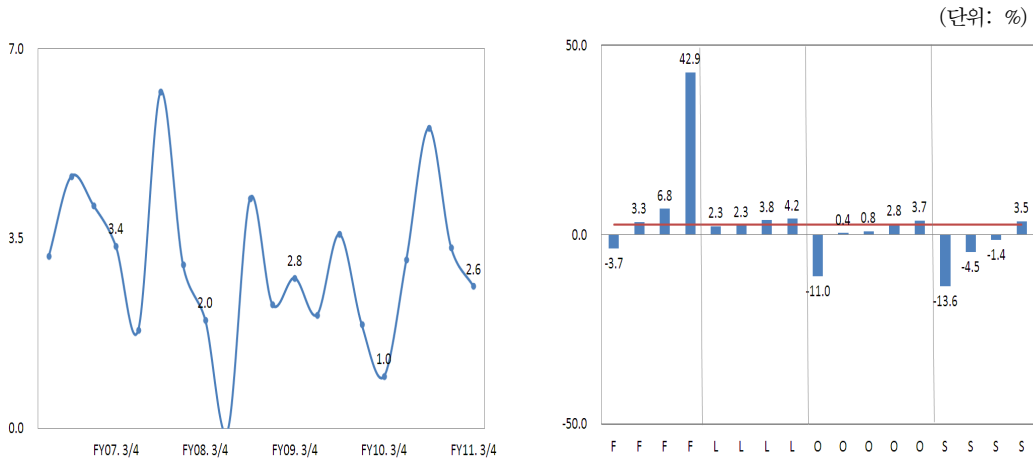
③ 매출이익률(매출액대비 당기순이익)

■ FY2011 3/4분기 손해보험회사 매출이익률은 2.6%로 나타나 전년동기대비 1.6%p 상승하였으나, 전분기에 비해서는 0.7%p 하락함.

○ 대형사들의 매출이익률은 모두 양(+)의 값을 기록하였으나, 대다수 전업사는 산업평균수준(2.6%)을 크게 하회하는 음(-)의 매출이익률을 나타냄.

- 한편, 특정 외국사의 40%대를 상회하는 매출이익률에 힘입어 외국사 전체 매출이익률은 6.4%로 나타남.

〈그림 12〉 손해보험회사 매출이익률 현황



주 : 1) 오른쪽 그림은 FY2011 3/4분기 회사별 매출이익률 분포임.
 2) F, L, O, S는 각각 외국사, 대형사, 중소형사, 전업사를 의미함.
 3) 회사별 매출이익률 분포에서 표시된 실선은 산업수준의 매출이익률을 의미함.
 자료 :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 FY2011 3/4분기 손해보험회사 전체 보험영업이익률은 전분기대비 1.0%p 하락한 -2.3%로 나타낸 반면, 투자영업이익률은 0.5%p 상승한 6.6%로 나타나 동 보험영업이익률 하락이 매출이익률 하락을 주도함.

○ 보험영업이익률의 경우 외국사를 제외한 모든 그룹에서 전분기대비 하락함.

- 대형사, 중소형사, 전업사는 각각 -1.8%, -3.9%, -6.3% 등 음(-)의 보험영업이익률을 기록함.

- 그러나 동 이익률은 FY2010 3/4분기 중소형사와 전업사 중심의 저조한 보험영업이익률 수준보다는 크게 개선된 것임.

○ 한편, 투자영업이익률의 경우 전업사를 제외한 모든 그룹에서 전분기대비 투자이익률이 개선됨에 따라 손해보험산업 전체 투자영업이익률도 상승함.

〈표 34〉 손해보험회사 매출이익률 분해

(단위: %)

구분	매출이익률			보험영업			투자영업		
	FY2010 3/4	FY2011 2/4	FY2011 3/4	FY2010 3/4	FY2011 2/4	FY2011 3/4	FY2010 3/4	FY2011 2/4	FY2011 3/4
대형사	2.6	4.2	3.1	-4.1	-0.7	-1.8	7.9	6.7	6.9
중소형사	-2.3	0.4	1.5	-8.5	-3.2	-3.9	6.0	4.3	6.1
외국사	-3.0	6.1	6.4	-4.4	2.9	5.8	2.6	2.9	3.1
전업사	-14.8	3.1	-2.8	-18.5	-1.9	-6.3	3.3	5.6	4.5
국내외 17개사	1.0	3.3	2.6	-5.5	-1.3	-2.3	7.3	6.1	6.6

주: 1) 매출이익률 = 당기순이익 / 영업수익 당기순이익 = 영업이익 + 영업외이익 + 특별계정이익 - 법인세비용

2) 보험영업이익률 = 보험영업이익 / 영업수익(보험영업수익 + 투자영업수익)

3) 투자영업이익률 = 투자영업이익 / 영업수익(보험영업수익 + 투자영업수익)

자료: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다. 판매채널

〈모집형태별 원수보험료〉

■ FY2011 3/4분기 원수보험료 기준 모집형태의 경우 방카슈랑스 채널 비중이 전년동기대비 확대된 반면, 임직원, 설계사, 대리점 채널 비중은 축소됨.

- 방카슈랑스 채널 비중은 일부 대형 손해보험회사의 장기 저축성보험 판매 증가 등에 힘입어 2.2%p 증가한 8.4%를 차지함.
- 설계사, 대리점, 임직원 채널 비중은 방카슈랑스 채널 비중이 확대됨에 따라 각각 0.5%p, 1.2%p, 0.2%p 감소함.

〈표 35〉 손해보험 모집형태별 원수보험료

(단위: 억 원, %)

구분	FY2010					FY2011		
	1/4	2/4	3/4	4/4	연간	1/4	2/4	3/4
임직원	16,892	15,250	30,526	19,023	81,690	22,603	19,022	34,353
	14.0	12.5	20.9	14.3	15.6	16.1	13.4	20.7
설계사	40,166	41,265	43,085	43,873	168,389	45,467	47,161	48,001
	33.2	33.7	29.4	33.0	32.2	32.3	33.2	28.9
대리점	54,290	55,964	62,068	60,255	232,577	62,156	63,637	68,432
	44.9	45.7	42.4	45.3	44.5	44.2	44.8	41.2
중개사	905	971	1,402	898	4,176	1,107	1,113	1,275
	0.7	0.8	1.0	0.7	0.8	0.8	0.8	0.8
방카슈랑스	8,404	8,754	9,040	8,493	34,692	9,208	10,824	13,879
	7.0	7.2	6.2	6.4	6.6	6.5	7.6	8.4
공동인수	172	200	200	350	922	183	217	214
	0.1	0.2	0.1	0.3	0.2	0.1	0.2	0.1
전체	120,829	122,403	146,321	132,892	522,445	140,723	141,973	166,153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1) 원수보험료 실적은 분기치이며, 각 하단 수치는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임.

2) 설계사는 교차모집설계사의 실적을 포함한 수치임.

3) 원수보험료 실적은 일반계정 및 특별계정을 모두 포함함.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모집조직 규모〉

■ FY2011 3/4분기 말 손해보험 모집조직의 경우 임직원 및 설계사 수는 전분기대비 증가한 반면, 대리점 수는 감소함.

- 임직원 수는 정규직 · 비정규직 직원 증가로 410명 증가한 3만 470명을 기록함.
- 설계사 수의 경우 상위 4사 및 국내사를 중심으로 교차설계사 채널은 감소한 반면, 전속설계사 채널은 증가함에 따라 전체 312명 증가한 16만 1,441명을 나타냄.

- 대리점 수는 상위 4사의 경우 개인 및 법인대리점이 모두 감소한 반면, 국내사의 경우 개인대리점은 감소하고 법인대리점은 증가하였으며, 전체적으로는 491개 줄어든 4만 543개를 기록함.

〈표 36〉 손해보험 모집조직 규모

(단위: 명, 개)

구분	FY2010				FY2011		
	1/4	2/4	3/4	4/4	1/4	2/4	3/4
임직원	28,917	29,206	29,400	28,951	29,537	30,060	30,470
설계사	162,693	162,985	161,767	162,144	161,858	161,129	161,441
- 전속	83,562	83,765	83,597	84,144	85,372	86,517	87,893
- 교차	79,131	79,220	78,170	78,000	76,486	74,612	73,548
대리점	44,139	43,343	42,927	41,963	41,519	41,034	40,543
- 개인	32,270	31,650	31,003	30,091	29,647	29,254	28,670
- 법인	11,869	11,693	11,924	11,872	11,872	11,780	11,873

주: 교차모집설계사는 FY2008 2/4분기부터 허용되었으나, 설계사의 세분은 FY2008 4/4분기 업무보고서부터 수록됨.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IV. 해외보험시장 동향

1. 미국 동향¹⁾

가. 생명보험

■ 2011년 4/4분기(10~12월) 미국 생명보험 신계약의 연납화 보험료²⁾는 정기보험과 유니버설보험이 감소하고 종신보험, 변액유니버설보험이 증가하면서 전체적으로 전년동기대비 2% 증가함.

- 2011년 전체적으로는 생명보험 신계약 연납화 보험료가 4% 증가한 가운데, 정기보험을 제외한 모든 종목에서 동 보험료가 증가함.
- 종신보험의 경우 2011년 9% 증가하면서 생명보험 연납화 보험료 증가에 가장 크게 기여함.
 - 이는 종신보험의 상품구조가 단순하고 해약환급금을 보증하는 상품이 인기를 끌었기 때문임.
- 종신보험 다음으로 2011년 생명보험산업의 성장을 견인한 종목은 변액유니버설보험으로 22% 증가함.
 - 변액유니버설보험을 판매하는 대형 10개사 중 8개사가 큰 폭의 성장세를 나타냈으나, 변액유니버설 판매의 대부분이 비전통적인 기업소유 생명보험(Corporate Owned Life Insurance) 판매에 의한 것임.
 - 한편, 변액유니버설보험의 계약 건수는 8년째 감소세를 지속하고 있으며, 2011년 계약 건수는 8만 건으로 2004년 30만 건에 비해 대폭 감소함.
- 2011년 유니버설보험의 계약 건수는 3% 증가하면서 3년 연속 증가세를 유지했으며, 이는 정기유니버설보험과 인덱스형 유니버설보험의 판매 증가에 따른 것임.

1) 미국 보험시장의 통계 및 용어에 관한 설명은 뒤의 조사 개요 및 출처를 참고 미국 손해보험 동향은 통계자료가 미발표 중이므로 다음 호에 게재함.

2) 연납화 보험료(Annualized Premium) = 일시납보험료 × 10% + 정기납보험료

- 2011년 유니버설보험의 계약 건수는 전체 생명보험 계약 건수의 15%에 불과하나, 점유율은 가장 높은 40%대를 유지하고 있음.
- 인텍스 유니버설보험은 유니버설보험의 25%를 차지하며 전체 생명보험 연납화 보험료의 10%를 차지할 정도로 확대되었는데, 이는 인텍스 유니버설보험이 경기가 불안한 상황에 적합한 상품이기 때문임.

■ 2011년 4/4분기 신계약 보험료 기준 누적 점유율의 경우 변액유니버설보험과 종신보험의 비중이 2010년 말에 비해 확대되었으며, 정기보험 비중은 감소하고 유니버설보험 비중은 2010년 말과 같은 수준으로 나타남.

- 종목별 점유율의 경우 유니버설보험이 42%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종신보험, 정기보험, 변액유니버설보험이 각각 29%, 20%, 9%를 차지함.

〈표 1〉 미국 생명보험 신계약 연납화 보험료 증가율 추이

(단위: %, 백만 달러)

구분	CY2010			CY2011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증가율	증가율	비중	증가율	증가율	증가율	증가율	증가율	비중
유니버설	13	10	42	14	1	3	-2	3	42
기타변액	0	0	0	0	0	0	0	0	0
변액유니버설	-25	-7	8	14	3	34	36	22	9
정기	-16	-12	22	-11	-5	-4	-4	-6	20
종신	14	15	28	15	5	10	5	9	29
계	2	4	100	8	1	6	2	4	100
연납화 보험료	2,671	9,541		2,370	2,419	2,380	2,744	9,935	

주: 증가율은 전년동기대비 수치이며, 비중은 누적치임.

자료: LIMRA(2011, 12), U.S. Individual Life Insurance Sales.

나. 연금보험

■ 2011년 미국 개인연금에 대한 신규보험료는 변액연금 신규보험료 증가에 힘입어 8.0% 증가하였으나, 신규보험료 규모는 2/4분기 624억 달러를 기록한 후 두 분기 연속 전분기 대비 감소함.

○ 2011년 변액연금 신규보험료는 13.4% 증가한 가운데 4/4분기에는 금융시장 불안으로 전년동기대비 0.3% 감소함.

○ 2011년 정액연금 신규보험료는 1.1% 감소하였으나, 정액연금 중 인텍스형 연금과 즉시연금은 증가함.

〈표 2〉 미국 연금 종목별 신규보험료 추이

(단위: 십억 달러, %)

구분		CY2010			CY2011				
		3/4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변액연금	보험료	34.6	38.5	140.5	39.8	40.9	40.2	38.4	159.3
	증가율	8.5	16.7	9.8	23.6	16.2	16.2	-0.3	13.4
	비중	61.8	66.5	63.2	66.3	65.5	66.6	66.9	66.3
정액연금	보험료	21.4	19.4	81.9	20.2	21.5	20.2	19.0	81.0
	증가율	-9.3	-8.1	-25.9	4.7	-1.4	-5.6	-2.1	-1.1
	비중	38.2	33.5	36.8	33.7	34.5	33.4	33.1	33.7
합계	보험료	56.0	57.9	222.4	60.0	62.4	60.4	57.4	240.2
	증가율	0.9	7.0	-6.8	16.5	9.5	7.9	-0.9	8.0
	비중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증가율은 전년동기대비 수치임.

자료: LIMRA(2011, 12), U.S. Individual Annuities.

■ 2011년 4/4분기 채널별 개인연금 판매 현황으로는 전속설계사가 23.0%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다음으로 독립중개인이 22.1%, 독립설계사가 16.2%, 증권중개인, 은행, 직접판매 등이 각각 14.8%, 13.4%, 8.2%로 나타남.

○ 변액연금의 경우 독립중개인과 전속설계사의 비중이 각각 29.1%, 24.6%로 나타났으며, 정액연금은 독립설계사의 비중이 44.3%로 가장 높게 나타남.

〈표 3〉 미국 개인연금 판매채널 비중

(단위: %)

구분	CY2010		CY2011			
	3/4	4/4	1/4	2/4	3/4	4/4
은행	14.6	14.0	16.3	15.9	14.9	13.4
전속설계사	20.9	21.3	20.3	21.0	21.7	23.0
직접판매	7.3	7.3	7.0	8.0	7.6	8.2
독립중개인	20.4	21.5	22.6	21.0	21.2	22.1
독립설계사	19.6	17.8	15.6	17.0	17.6	16.2
증권중개인	13.0	14.2	15.1	14.9	14.9	14.8
기타	4.1	4.0	3.2	2.2	2.0	2.3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료: LIMRA(2011, 12), *U.S. Individual Annuities*.

다. 소득보상보험

■ 2011년 4/4분기 소득보상보험의 신규보험료는 보험료 변경권이 있는 Guaranteed Renewable³⁾과 Non-cancellable⁴⁾이 모두 증가하면서 전체적으로 전년동기대비 4.7% 증가함.

○ Non-cancellable의 신규보험료는 전년동기대비 5.0%, Guaranteed Renewable은 4.2% 증가함.

3) Guaranteed Renewable: 피보험자는 정해진 연령까지 계약을 갱신할 수 있고, 회사는 갱신 시 보험료를 변경할 권리를 갖지만 계약을 취소하거나 일방적인 급부 변경을 할 수 없음.

4) Non-cancellable: 피보험자는 정해진 연령까지 계약을 갱신할 수 있고, 갱신 시 보험회사는 계약을 취소하거나 보험료 또는 급부를 임의대로 변경할 수 없음.

〈표 4〉 미국 소득보상보험 신규보험료 추이

(단위: 천, 천 달러, %)

구분			CY2010			CY2011				
			3/4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계약건수	Guaranteed Renewable	건 수	83,742	80,365	344,106	107,171	76,002	81,636	83131	347940
		증가율	44.6	0.0	9.0	1.4	2.3	-2.5	3.4	1.1
		구성비	69.0	67.3	71.0	76.2	69.0	66.6	67.1	70.0
	Non-cancellable	건 수	37,552	39,043	140,480	33,427	34,075	40,852	40808	149162
		증가율	-8.8	-2.6	-7.0	8.6	2.9	8.8	4.5	6.2
		구성비	31.0	32.7	29.0	23.8	31.0	33.4	32.9	30.0
	전체	건 수	121,294	119,408	484,586	140,598	110,077	122,488	123939	497102
		증가율	22.4	-0.8	3.9	3.0	2.5	1.0	3.8	2.6
		구성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신규보험료	Guaranteed Renewable	보험료	50,856	50,985	211,133	64,144	48,781	51,525	53144	217594
		증가율	12.1	3.3	6.2	6.2	-0.2	1.3	4.2	3.1
		구성비	40.4	40.1	42.9	49.1	40.0	38.8	39.9	42.0
	Non-cancellable	보험료	74,967	76,277	280,671	66,577	73,101	81,160	80055	300893
		증가율	-6.5	-5.3	-7.0	6.6	9.2	8.3	5.0	7.2
		구성비	59.6	59.9	57.1	50.9	60.0	61.2	60.1	58.0
	전체	보험료	125,824	127,261	491,804	130,721	121,882	132,685	133199	518487
		증가율	0.2	-2.1	-1.8	6.4	5.2	5.5	4.7	5.4
		구성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증가율은 전년동기대비 수치임.

자료: LIMRA(2011, 12), U.S. Individual Disability Income Insurance.

조사 개요 및 출처

■ 미국의 보험산업은 크게 생명보험(종신보험, 정기보험 등), 연금보험, 건강보험, 손해 보험으로 구분되며, 이 중 건강보험을 제외한 나머지 종목과 장기간병보험, 소득보상 보험에 대한 분기별 통계를 입수할 수 있음.

○ 미국 민영건강보험 사업자는 비영리 민간보험조합인 Blue Shield, Blue Cross와 지역의료공급조직(HMO: Health Maintenance Organization)이 존재하고 이들이 민영의료보험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건강보험이 직장단체 보험으로 운영되는 등 우리나라와 많은 차이가 있음.

○ 생명보험에는 유니버설보험, 변액보험, 정기보험, 종신보험 등이 있으며, 연금보험 은 크게 변액연금보험과 정액연금보험으로 구분됨.

- 미국생명보험협회(ACLI: The American Council of Life Insurers)나 생명보험마케팅연구단체(LIMRA: Life Insurance Marketing and Research Association) 등은 생명 보험, 연금보험, 소득보상보험, 장기간병보험에 대한 자료만 제공함.

- 원고 작성에 사용되는 LIMRA의 분기별 자료는 신계약에 대한 보험료를 중심으로 발표됨.

○ 손해보험은 다양한 세부 종목이 존재하나, 미국손해보험협회(PCI: Property Casualty Insurers Association of America)와 보험요율단체(ISO: Insurance Services Office Limited), 보험정보원(III: Insurance Information Institute)이 공동으로 발표하는 분 기별 지표는 전체적인 영업성과 위주로 제시됨.

■ 구체적으로 미국보험시장 동향 작성을 위해 참고한 문헌은 다음과 같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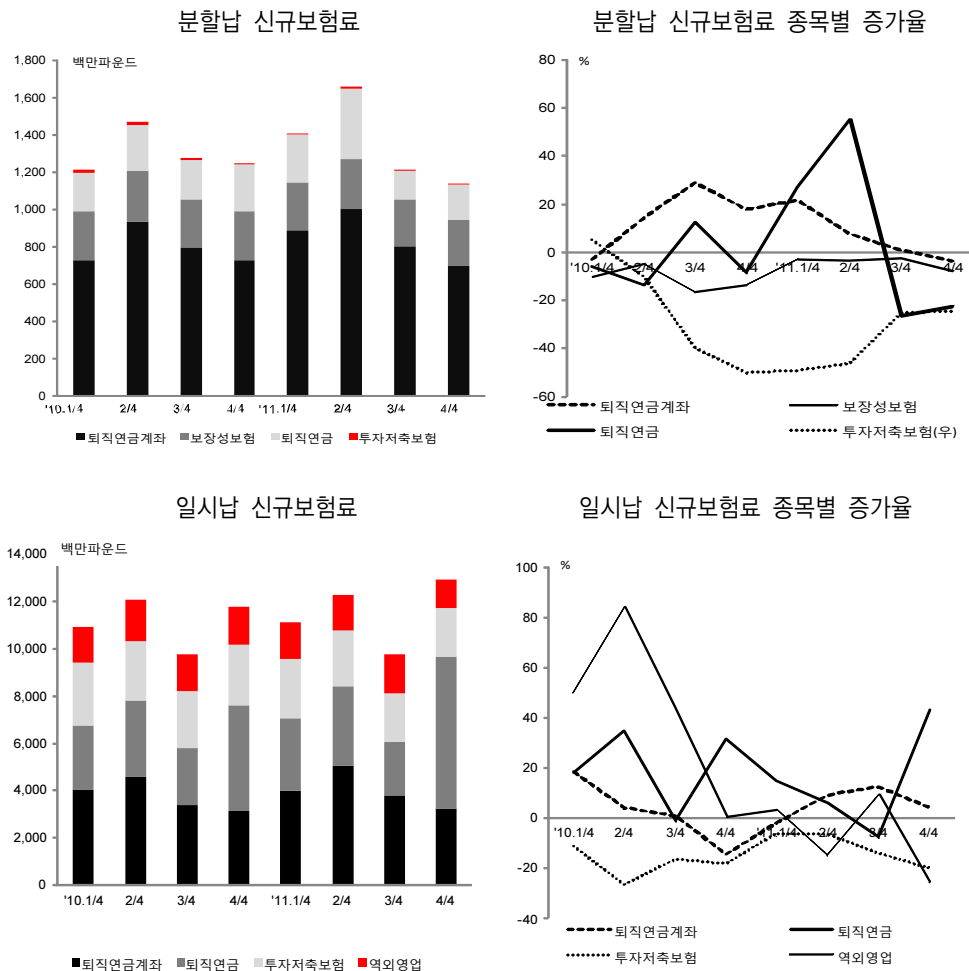
보고서	참여 회사 수	수입보험료 비중	발표 기관
U.S. Individual Life Insurance Sales	77개사	85%	LIMRA
U.S. Individual Annuities	61개사	97%	LIMRA
U.S. Individual Disability Income Insurance	18개사	-	LIMRA
U.S. Individual LTC Insurance	24개사	95%	LIMRA
손해보험 분기별 실적 보도자료	-	-	PCI, ISO, III

2. 영국 동향)

가. 생명보험 신규보험료 추이

■ 2011년 4/4분기 신규보험료(일시납+분할납)는 일시납 신규보험료 증가에 힘입어 전년동기대비 7.7% 늘어난 141억 650만 파운드를 기록함.

〈그림 1〉 생명보험 신규보험료와 종목별 증가율



주: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자료: 영국보험협회(ABI).

5) 영국 보험시장의 통계 및 용어에 관한 설명은 뒤의 조사 개요 및 출처를 참고하기 바람.

- 분할납 신규보험료는 모든 종목에서 감소하면서 9.0% 감소한 11억 4,800만 파운드를 기록함.
- 일시납 신규보험료는 퇴직연금계좌와 퇴직연금의 증가에 힘입어 9.5% 증가한 129억 5,850만 파운드가 거수됨.

■ 2011년 연간 신규보험료는 분할납과 일시납 신규보험료가 모두 상승하여 전년대비 3.5% 증가(517억 4,950만 파운드)하였으나, 아직 금융위기 이전⁶⁾ 수준을 회복하지는 못함.

- 분할납 신규보험료는 퇴직연금계좌와 퇴직연금의 양호한 실적에 힘입어 전년대비 4.0% 증가한 54억 6,180만 파운드를 기록하였으며, 2001~2007년 평균 일시납 신규보험료 수준(46억 6,500만 파운드)을 상회함.
- 일시납 신규보험료는 분할납과 마찬가지로 퇴직연금계좌와 퇴직연금에서 호조세를 보여 3.5% 증가한 462억 8,770만 파운드가 거수되었으나, 여전히 2000~2007년 평균 분할납 신규보험료 수준(505억 5,880만 파운드)에는 미치지 못함.

〈투자·저축보험 신규보험료〉

■ 2011년 4/4분기 투자 및 저축보험 분할납 신규보험료는 생사혼합저축보험(endowments-savings), 어린이신탁(stakeholder child trust)보험 등의 부진으로 전년동기대비 24.6% 감소함.

- 생사혼합저축보험(endowments-savings)과 어린이신탁⁷⁾보험의 분할납 신규보험료는 각각 12.5%, 100.0% 감소함.

■ 투자 및 저축보험의 일시납 신규보험료는 변액연동채권(unit-linked bonds), 유배당채권(with profit bonds), 투자자산(distribution bonds) 등에서 판매가 부진하면서 전년동기대비 19.9% 감소함.

6) 2001~2007년 평균 신규보험료는 552억 5,400만 파운드임.

7) 어린이신탁보험의 대부분은 stakeholder 어린이신탁보험임.

- 투자 및 저축보험 일시납 신규보험료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변액연동채권은 독립재정자문가(IFA)의 판매 저조(25.1% 감소)로 28.1% 감소함.
- 이밖에 소득인출이 정기적으로 가능한 투자자산, 유배당채권도 각각 69.8%, 10.3% 감소함.

〈퇴직연금계좌 신규보험료〉

- 2011년 4/4분기 퇴직연금계좌 분할납 신규보험료는 모든 종목의 판매 저조로 전년동기대비 3.9% 감소함.
 - 개인연금계좌(personal pensions)의 판매액은 15.9%, 사용자후원 개인퇴직계좌(employer-sponsored pensions)는 11.9% 감소함.
- 퇴직연금계좌의 일시납 신규보험료는 단체연금계좌(personal pensions)와 사용자후원 개인퇴직계좌(employer-sponsored pensions)의 판매 호조로 전년동기대비 4.0% 증가함.
 - 단체연금계좌의 경우 독립재정자문가(IFA)의 판매⁸⁾가 4/4분기에도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신규보험료가 50.1% 증가함.
 - 사용자후원 개인퇴직계좌는 IFA(13.8%)를 통한 판매 호조로 9.2% 증가함.

〈퇴직연금 신규보험료〉

- 2011년 4/4분기 분할납 퇴직연금 신규보험료는 DB형 및 DC형 퇴직연금, 기타 퇴직연금(other pension business)에서 신규보험료가 감소하면서 전년동기대비 22.7% 감소함.
 - DC형 퇴직연금은 계약 건수가 1만 3,000여 건 감소하여 신규보험료는 37.2% 감소함.⁹⁾
 - DB형 퇴직연금의 경우는 계약 건수가 1,000건에 미치지 못하면서 신규보험료도 6.6% 감소함.¹⁰⁾

8) 독립재정자문가의 판매 증가율은 각각 1/4분기 70.8%, 2/4분기 72.6%, 3/4분기 56.4%, 4/4분기 41.2%임.

9) 채널별로는 전속대리점과 직접판매의 판매가 전년동기대비 각각 71.9%, 63.6% 감소함.

10) 전속대리점을 통한 판매가 90.7% 감소함.

○ 기타 퇴직연금은 계약 건수가 8,000여 건이 감소하면서 신규보험료는 25.8% 감소함.

■ 일시납 퇴직연금의 경우 대부분의 종목에서 판매가 호조를 보여 신규보험료는 전년동기 대비 42.9% 증가함.

○ 맞춤형 퇴직연금(Trustee Investment Plans)의 경우 IFA의 판매가 40% 증가하면서 일시납 신규보험료도 17.9% 증가함.

○ DC형 퇴직연금은 전속대리점의 판매 호조로 계약 건수가 약 6,000건이 늘어남에 따라 52.3% 증가함.

○ DB형 퇴직연금은 IFA 판매 증가에 힘입어 34.2% 증가함.

〈역외영업의 신규보험료〉

■ 2011년 4/4분기 역외영업 분할납 신규보험료는 전년동기대비 51.1% 감소함.

○ 동 4/4분기 분할납 신규보험료 규모는 역외영업 일시납 신규보험료의 0.4%에 불과한 수준임.

■ 역외영업 일시납 신규보험료는 공동투자채권(personal bonds (pooled))¹¹⁾의 판매 부진으로 전년동기대비 25.3% 감소함.

○ 역외영업 일시납 신규보험료 중 가장 규모가 큰 공동투자채권은 IFA의 판매 부진(전년동기대비 -29.6%)으로 29.0% 감소함.

〈보장성보험 신규보험료〉

■ 2011년 4/4분기 보장성보험 분할납 신규보험료는 거의 모든 종목이 전년동기에 비해 판매가 부진하거나 정체되면서 전년동기대비 7.7% 감소함.

11) 뮤추얼 펀드, 투자신탁, Unit Trusts 등과 같은 공동투자 채권임.

○ 단체생명보험(group life), 단체CI보험(group critical illness), 종합생명보험(collective life), 모기지 연계 개인사망보험(mortgage-related term)이 각각 17.8%, 66.7%, 75.0%, 5.7% 감소함.

■ 분할납 보장성 보험료의 23.2%에 해당하는 일시납 보장성 보험료는 장기간병보험(long term care)의 판매 부진으로 전년동기대비 3.6% 감소함.

〈표 5〉 영국 생명보험 분할납 및 일시납 신규보험료

(단위: 백만 파운드, %)

분할납 신규보험료		CY2010		CY2011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투자 및 저축보험	보험료	9.9	57.3	9.1	9.1	9.4	7.5	35.0
	증가율	-50.2	-25.4	-49.1	-46.5	-25.7	-24.6	-38.9
	구성비	0.8	1.1	0.6	0.5	0.8	0.7	0.6
퇴직연금계좌	보험료	730.2	3,185.6	886.2	1,003.6	800.2	701.9	3,391.9
	증가율	17.5	13.4	22.0	7.4	0.7	-3.9	6.5
	구성비	57.9	60.7	62.3	60.2	65.4	62.1	62.1
퇴직연금	보험료	249.1	909.6	258.6	381.2	154.0	192.5	986.4
	증가율	-8.7	-5.6	26.7	54.9	-26.7	-22.7	8.4
	구성비	19.8	17.3	18.2	22.9	12.6	18.1	18.1
역외영업	보험료	10.8	36.7	10.9	8.7	7.1	5.3	31.9
	증가율	74.6	73.7	38.2	-0.1	-23.6	-51.1	-12.9
	구성비	0.9	0.7	0.8	0.5	0.6	0.6	0.6
보장성보험	보험료	260.9	1,060.7	257.5	265.2	253.0	240.8	1,016.5
	증가율	-13.5	-11.3	-2.9	-3.5	-2.6	-7.7	-4.2
	구성비	20.7	20.2	18.1	15.9	20.7	18.6	18.6
합계	보험료	1,261.0	5,249.8	1,422.2	1,667.7	1,223.8	1,148.0	5,461.8
	증가율	3.2	3.6	16.4	12.6	-4.9	-9.0	4.0
	구성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일시납 신규보험료		CY2010		CY2011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투자 및 저축보험	보험료	2,557.1	10,153.9	2,523.5	2,333.8	2,069.9	2,047.7	8,974.9
	증가율	-18.3	-18.4	-6.3	-6.6	-13.9	-19.9	-11.6
	구성비	21.6	22.7	22.6	18.9	21.1	15.8	19.4
퇴직연금계좌	보험료	3,119.5	15,155.0	3,984.3	5,033.2	3,785.6	3,244.0	16,047.2
	증가율	-14.6	2.1	-2.0	9.4	12.4	4.0	5.9
	구성비	26.4	33.9	35.6	40.9	38.5	25.0	34.7
퇴직연금	보험료	4,477.0	12,802.1	3,066.4	3,397.2	2,260.6	6,399.5	15,123.7
	증가율	31.3	21.6	14.8	6.0	-7.7	42.9	18.1
	구성비	37.8	28.6	27.4	27.6	23.0	49.4	32.7
역외영업	보험료	1,621.5	6,403.4	1,554.3	1,498.1	1,662.8	1,211.4	5,926.7
	증가율	0.7	38.4	3.4	-14.8	9.4	-25.3	-7.4
	구성비	13.7	14.3	13.9	12.2	16.9	9.3	12.8
보장성보험	보험료	58.0	229.5	53.9	54.3	51.2	55.9	215.2
	증가율	-12.3	-3.2	-12.6	0.5	-8.5	-3.6	-6.2
	구성비	0.5	0.5	0.5	0.4	0.5	0.4	0.5
합계	보험료	11,833.2	44,743.8	11,182.5	12,316.7	9,830.1	12,958.5	46,287.7
	증가율	-0.3	4.8	1.7	1.6	0.3	9.5	3.5
	구성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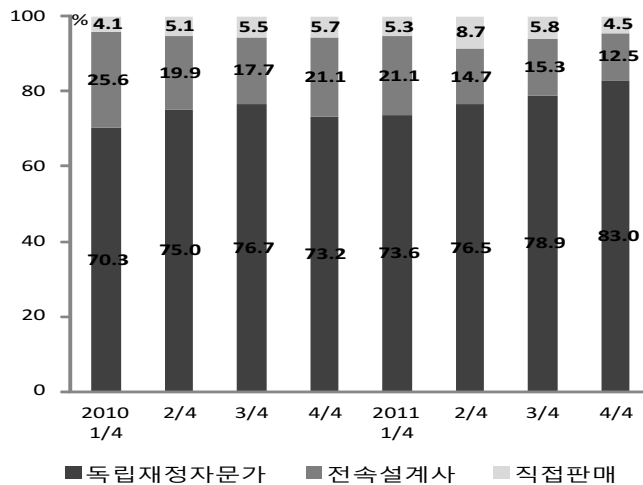
주: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자료: 영국보험협회(ABI).

나. 판매채널별 신규보험료

■ 2011년 4/4분기 판매채널별 분할납 신규보험료에서 독립재정자문가(IFA)의 비중은 전년 동기대비 증가한 반면, 직접판매와 전속설계사의 비중은 감소함.

- 분할납 신규보험료에서 독립재정자문가의 판매 비중은 퇴직연금, 보장성보험, 퇴직연금계좌 판매 증가에 힘입어 9.8%p 증가한 83.0%를 기록함.
- 직접판매의 경우 퇴직연금 판매 부진으로 비중이 1.2%p 감소한 4.5%로 나타남.
- 전속설계사의 비중은 퇴직연금 판매 부진에 따라 8.6%p 감소한 12.5%를 기록함.

〈그림 2〉 판매채널별 분할납 보험료 비중¹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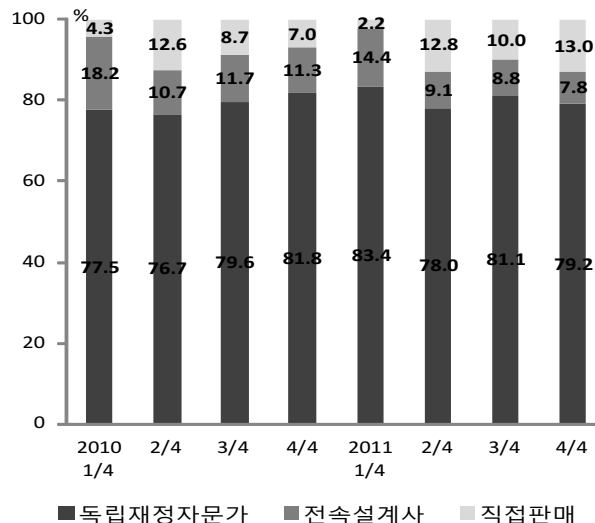
자료: 영국보험협회(ABI).

12) Limited Range는 금융상품에 대해 제한적인 설명만 하도록 규정됨.

■ 한편, 일시납 신규보험료 채널별 판매 비중의 경우 직접판매가 전년동기대비 증가하였으나, 독립재정자문가(IFA)와 전속설계사의 비중은 감소함.

- 직접판매는 퇴직연금의 판매 증가로 6.0%p 증가한 13.0%의 판매 비중을 기록함.
- 독립재정자문가의 경우 퇴직연금과 퇴직연금계좌의 판매 부진으로 일시납 신규보험료 판매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6%p 감소한 79.2%를 기록함.
- 전속설계사의 판매가 투자 및 저축보험, 퇴직연금, 보장성보험 등에서 부진함에 따라 동 비중이 3.5%p 감소한 7.8%를 나타냄.

〈그림 3〉 판매채널별 일시납 보험료 비중



자료: 영국보험협회(ABI).

■ 한편, 방카슈랑스를 통한 2011년 4/4분기 분할납 및 일시납 신규보험료는 전년동기대비 0.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방카슈랑스 분할납 신규 판매액은 보장성보험의 판매 부진(-10.3%)으로 8,600만 파운드를 기록하면서 1.1% 감소함.
- 일시납 신규 판매액은 10억 500만 파운드로 0.1% 감소함.
 - 방카슈랑스의 경우 퇴직연금계좌(26.3%), 퇴직연금(11.4%), 역외영업(56.1%) 판매 실적은 양호하였으나, 투자 및 저축보험(-9.6%)과 보장성보험(-27.3%)에서는 부진한 실적을 기록함.

조사 개요 및 출처

- 영국의 보험산업은 영국보험협회(ABI: Association of British Insurers)에서 분기별로 발표하는 생명보험의 신규 보험료 통계를 바탕으로 기술함.
 - 영국의 경우 생명보험의 신규 보험료를 제외하고, 생명보험의 기타 통계 및 손해보험의 통계 입수가 어려운 상황임.
- 영국보험협회에서 발표하는 분기별 생명보험 신규계약은 6개 종목으로 구분되는데, 보장성보험을 제외하면 신규계약은 개인과 단체로 분리되지 않음.
 - 보장성보험이 신규계약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아주 작기 때문에 개인보장성보험과 단체보장성보험을 보장성보험으로 통합하여 분류함.
- ABI가 발표한 용어를 편의상 우리식 용어로 의역함.

원문	의역
Investment & Savings	투자 · 저축성보험
Individual Pensions	퇴직연금계좌
Occupational Pensions	퇴직연금
Offshore Business	역외영업
Individual Protection & Group Protection	보장성보험

3. 일본 동향¹³⁾

가. 생명보험

〈신규계약 현황〉

■ FY2011 3/4분기 생명보험 신규계약액의 경우 비중이 큰 개인보험이 증가하고 개인연금과 단체보험도 증가세로 전환됨에 따라 전년동기대비 9.6% 증가한 20조 9,582억 엔을 기록함.

〈표 6〉 일본 생명보험 신규계약액

(단위: 억 엔, 전년동기대비 %)

구분			FY2010			FY2011		
			3/4	4/4	연간	1/4	2/4	3/4
개 인 성	개 인	금 액	172,207	155,430	653,871	154,803	174,097	178,917
		증가율	5.7	-3.6	3.9	-1.4	2.9	3.9
		구성비	90.1	87.0	87.3	85.1	88.5	85.4
	- 사 망	금 액	141,569	126,877	532,941	126,306	145,014	146,156
		증가율	7.6	-2.0	5.7	-0.4	5.3	3.2
		구성비	74.1	71.0	71.2	69.4	73.7	69.7
	- 생 사 혼 합	금 액	29,191	27,309	115,697	27,080	27,407	30,885
		증가율	-2.5	-10.6	-3.3	-6.4	-9.5	5.8
		구성비	15.3	15.3	15.5	14.9	13.9	14.7
	- 생 존	금 액	1,447	1,244	5,233	1,417	1,676	1,876
		증가율	4.6	-1.6	1.8	9.1	34.8	29.6
		구성비	0.8	0.7	0.7	0.8	0.9	0.9
	개인연금	금 액	16,135	16,290	69,759	16,487	18,615	26,131
		증가율	-17.9	-25.7	-16.2	-6.5	-5.5	62.0
		구성비	8.4	9.1	9.3	9.1	9.5	12.5
단체보험		금 액	2,807	6,909	24,828	10,561	4,063	4,533
		증가율	-29.2	-5.6	-15.2	1.3	-13.3	61.5
		구성비	1.5	3.9	3.3	5.8	2.1	2.2
합계		금 액	191,174	178,665	748,579	181,908	196,792	209,582
		증가율	2.5	-6.3	0.9	-1.7	1.6	9.6
		구성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료: 일본생명보험협회.

13) 일본 보험시장의 통계 및 용어에 관한 설명은 뒤의 조사 개요 및 출처를 참고하기 바람.

- 개인보험 신규계약액의 경우 사망, 생사혼합, 생존보험이 각각 3.2%, 5.8%, 29.6% 증가함에 따라 전체 3.9% 증가한 17조 8,917억 엔을 기록함.
 - 사망보험 신규계약액의 경우 종신보험, 정기부종신보험, 정기보험이 각각 26.8%, 23.1%, 7.3% 증가함에 따라 3.2% 증가함.
 - 생사혼합보험 신규계약액의 경우 양로보험과 변액보험이 각각 2.9%, 279% 증가함에 따라 5.8% 증가함.
- 개인연금보험 신규계약액의 경우 변액연금보험 신규계약액이 수익률 악화로 36% 감소하였으나, 정액연금보험이 수요 회복으로 72.4% 증가함에 따라 전체 62.0% 증가한 2조 6,131억 엔을 기록함.
- 단체보험 신규계약액의 경우 단체정기보험의 고성장(216%)과 종합복지단체정기보험 증가(22.6%)로 전체 61.5% 증가한 4,533억 엔을 기록함.

〈자산 현황〉

- FY2011 3/4분기 말 총자산 규모는 현금 및 예금 감소에도 불구하고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유가증권이 소폭 증가함에 따라 전분기대비 0.1% 증가한 319조 1,672억 엔을 기록함.
 - 현금 및 예금의 경우 22.8% 감소한 반면, 단기자금의 경우 18.9% 증가함.
 - 유가증권은 안전자산 선호 현상으로 국채와 지방채가 각각 1.4%, 2.4% 증가한 반면, 사채, 주식의 경우 각각 0.4%, 4.0% 감소함에 따라 전체 0.7% 증가함.
 - 대출금은 일반대출금이 감소함에 따라 0.3% 감소하였으며, 부동산도 1.0% 감소함.

〈표 7〉 일본 생명보험회사 주요 자산 현황 및 비중 추이

(단위: 억 엔, 전분기대비 %)

구분	FY2010				FY2011					
	3/4		4/4		1/4		2/4		3/4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현금 및 예금	28,765	-31.9	56,560	96.6	31,286	-44.7	46,006	47.0	35,512	-22.8
단기자금	22,249	4.6	20,096	-9.7	18,496	-8.0	21,533	16.4	25,595	18.9
매입금전채권	32,146	-1.9	30,458	-5.3	31,552	3.6	30,515	-3.3	31,189	2.2
금전신탁	20,478	0.2	20,712	1.1	20,067	-3.1	19,517	-2.7	19,737	1.1
유가증권	2,469,106	0.1	2,479,810	0.4	2,493,798	0.6	2,483,074	-0.4	2,500,557	0.7
- 국 채	1,315,255	0.3	1,323,987	0.7	1,344,865	1.6	1,374,469	2.2	1,393,340	1.4
- 지방채	115,055	0.9	119,164	3.6	122,923	3.2	126,128	2.6	129,152	2.4
- 사 채	261,014	-1.6	252,836	-3.1	252,272	-0.2	252,680	0.2	251,689	-0.4
- 주 식	167,731	2.9	162,149	-3.3	151,322	-6.7	140,236	-7.3	134,667	-4.0
- 외화증권	444,877	-0.7	457,384	2.8	459,622	0.5	438,671	-4.6	440,819	0.5
대출금	449,448	-0.8	438,772	-2.4	436,174	-0.6	426,622	-2.2	425,334	-0.3
부동산	68,192	-0.4	66,909	-1.9	65,965	-1.4	66,223	0.4	65,570	-1.0
운용자산	3,107,627	-0.2	3,131,288	0.8	3,112,022	-0.6	3,108,847	-0.1	3,119,521	0.3
비운용자산	77,295	10.1	75,623	-2.2	77,948	3.1	79,187	1.6	72,151	-8.9
총자산	3,183,287	0.0	3,206,912	0.7	3,189,970	-0.5	3,188,034	-0.1	3,191,672	0.1

주: 1) 기간별 수치는 해당기간 말에 대한 누적 잔액이며, 증가율은 전분기대비임.

2) 운용자산은 상기 주요자산, 채권대차거래지불보증금 등의 합계임.

3) 총자산은 운용자산과 유형 고정자산, 무형 고정자산 및 기타 자산 등의 합계임.

4) 연말 최종 집계되는 수치와 다소 상이할 수 있음.

자료: 일본생명보험협회.

나. 손해보험

〈보험료 현황〉

- FY2011 3/4분기 손해보험 원수보험료는 해상보험을 제외한 모든 종목에서 증가함에 따라 전년동기대비 4.0% 증가한 2조 10억 엔을 시현함.

- 화재보험 원수보험료는 재해 관련 보험 수요 확대로 5.0% 증가한 3,614억 엔을 시현하였으며, 손해보험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8.1%로 높아짐.
- 자동차보험 원수보험료는 1.5% 증가한 8,772억 엔을 기록하였으며, 자동차배상책임 원수보험료도 16.9% 증가한 2,217억 엔을 시현하며 고성장함.
- 상해보험 원수보험료는 수요 회복세와 기저효과 등으로 5.8% 증가한 2,626억 엔을 기록하였으나, 특종보험 원수보험료는 0.6% 증가한 2,158억 엔에 그침.
- 해상보험 원수보험료의 경우 0.8% 감소한 469억 엔을 기록함.

〈표 8〉 일본 손해보험 원수보험료

(단위: 억 엔, %)

구분		FY2010			FY2011		
		3/4	4/4	연간	1/4	2/4	3/4
화 재	보험료	3,441	3,239	13,159	3,384	3,234	3,614
	증가율	-11.7	-4.6	-5.9	2.1	2.3	5.0
	구성비	17.9	17.3	17.0	16.5	16.5	18.1
해 상	보험료	473	495	1,965	521	481	469
	증가율	5.7	2.3	5.8	1.4	-0.5	-0.8
	구성비	2.5	2.6	2.5	2.5	2.5	2.3
운 송	보험료	151	146	608	166	148	154
	증가율	-3.3	-2.3	-2.9	0.1	2.6	2.3
	구성비	0.8	0.8	0.8	0.8	0.8	0.8
자동차	보험료	8,643	8,489	34,314	8,812	8,448	8,772
	증가율	0.3	0.6	0.5	0.1	0.9	1.5
	구성비	44.9	45.2	44.3	42.9	43.2	43.8
자동차 배상책임	보험료	1,897	1,996	8,063	2,222	2,211	2,217
	증가율	-5.5	1.1	0.1	2.7	1.0	16.9
	구성비	9.9	10.6	10.4	10.8	11.3	11.1
상 해	보험료	2,482	2,293	10,403	2,895	2,747	2,626
	증가율	-3.7	-2.4	1.4	-1.6	2.3	5.8
	구성비	12.9	12.2	13.4	14.1	14.0	13.1
특 종	보험료	2,145	2,103	8,966	2,539	2,289	2,158
	증가율	3.4	-2.5	0.5	0.4	4.6	0.6
	구성비	11.2	11.2	11.6	12.4	11.7	10.8
합계	보험료	19,232	18,761	77,478	20,541	19,558	20,010
	증가율	-2.7	-1.0	-0.5	0.5	2.7	4.0
	구성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주: 1) 기간별 수치는 해당기간에 대한 실적치임.
 2) 증가율은 전년동기대비 수치이며, 구성비는 손해보험 전체 실적 대비임.
 3) 일본의 원수정미보험료, 신종보험을 각각 원수보험료, 특종보험으로 의역함.
 4) 연말 최종 집계되는 수치와 다소 상이할 수 있음.

자료: 일본손해보험협회.

〈자산 현황〉

■ FY2011 3/4분기 말 손해보험회사 총자산은 단기자금, 유가증권 등의 감소로 운용자산이 전분기대비 2.7% 감소하고 비운용자산도 0.8% 감소함에 따라 전체 2.5% 감소한 27조 1,820억 엔을 기록함.

- 현금 및 예금의 경우 28.3% 증가한 9,119억 엔을 기록한 반면, 단기자금의 경우 56% 감소한 2,691억 엔을 나타냄.
- 유가증권의 경우 안전자산 선호 현상으로 국채가 4.6% 증가했으나, 회사채, 주식, 외화증권이 각각 4.5%, 8.5%, 3.8% 감소함에 따라 전체 3.0% 감소한 18조 6,914억 엔을 기록함.

〈표 9〉 일본 손해보험회사 주요 자산 현황 및 비중 추이

(단위: 억 엔, 전분기대비 %)

구분		FY2010				FY2011					
		3/4		4/4		1/4		2/4		3/4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현금 및 예금		7,871	-12.6	9,043	14.9	7,235	-20.0	7,107	-1.8	9,119	28.3
단 기 자 금		2,498	-38.2	7,574	203.1	3,136	-58.6	6,114	94.9	2,691	-56.0
환매조건부채권		2,509	-20.3	1,675	-33.3	2,384	42.4	2,125	-10.9	3,730	75.6
매입금전채권		9,511	-16.3	9,489	-0.2	7,693	-18.9	7,971	3.6	7,430	-6.8
금 전 신 탁		1,184	8.3	780	-34.1	762	-2.3	794	4.1	658	-17.1
유가증권	국 채	52,017	1.6	50,984	-2.0	51,390	0.8	52,386	1.9	54,786	4.6
	지 방 채	5,613	4.9	5,311	-5.4	5,207	-2.0	4,693	-9.9	4,457	-5.0
	회 사 채	34,241	-4.6	32,925	-3.8	31,981	-2.9	31,282	-2.2	29,871	-4.5
	주 식	66,666	5.3	64,394	-3.4	62,804	-2.5	55,645	-11.4	50,904	-8.5
	외화증권	47,788	-0.3	47,518	-0.6	47,146	-0.8	45,725	-3.0	44,009	-3.8
	기타증권	3,486	-13.9	3,242	-7.0	3,200	-1.3	2,869	-10.4	2,886	0.6
	소 계	209,810	1.0	204,374	-2.6	201,729	-1.3	192,600	-4.5	186,914	-3.0
대 출 금		22,547	-2.4	21,679	-3.8	21,240	-2.0	20,291	-4.5	19,776	-2.5
부 동 산		10,788	-0.8	10,718	-0.6	10,637	-0.8	10,571	-0.6	10,489	-0.8
운 용 자 산		266,718	-1.3	265,331	-0.5	254,817	-4.0	247,572	-2.8	240,807	-2.7
비 운 용 자 산		29,784	-3.0	31,401	5.4	45,757	45.7	31,255	-31.7	31,011	-0.8
총 자 산		296,503	-1.5	296,733	0.1	300,575	1.3	278,827	-7.2	271,820	-2.5

주: 1) 기간별 수치는 해당기간 말에 대한 누적 잔액이며, 증가율은 전분기대비임.

2) 비운용자산은 현금, 건설 중인 자산, 유·무형고정자산, 대리점비용, 재보험비용, 이연세금자산, 지불충납담보 등을 말함.

3) 연말 최종 집계되는 수치와 다소 상이할 수 있음.

자료: 일본손해보험협회.

조사 개요 및 출처

■ 일본 보험산업은 크게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으로 구분되는데, 각각 일본생명보험협회(<http://www.seiho.or.jp>)와 일본손해보험협회(<http://www.sonpo.or.jp>)를 통해 입수한 통계를 바탕으로 기술함.

- 매월/분기에 공개되는 누적 통계(raw data)를 분기별로 전환해 분석함.
- 생명보험은 신계약종목별통계표(新契約種類別統計表)의 신규계약액을 중심으로 분석하였으며, 자산 현황은 생명보험사업개황(生命保険事業概況) 중 주요자산운용현황(主要資産運用状況) 통계를 분석함.
- 손해보험은 종목별통계표(種目別統計表)의 원수정미보험료(元受正味保険料)와 원수정미보험금(元受正味保険金) 통계를 활용해 보험료 및 지급보험금 현황을 분석하였으며, 자산 현황은 손해보험회사자금운용상황표(損害保険会社総合資金運用状況一覽表)를 이용하여 분석함.

■ 생명보험의 경우 종목 특성을 고려하여 개인성보험과 단체성보험으로 구분하여 분석함.

- 개인성보험은 개인보험(個人保險)과 개인연금보험(個人年金保險)으로, 단체성보험은 단체보험(団体保險), 단체연금보험(団体年金保險), 재형보험(財形保險), 재형연금보험(財形年金保險), 의료보장보험(医療保障保險), 취업불능보험(就業不能保障保險)으로 분류함.
- 단체성보험 중 실적이 미미한 재형보험, 재형연금보험, 의료보장보험, 취업불능보험은 기타로 분류함.

■ 일본식 보험용어를 편의상 우리식 용어로 의역함.

원문	의역
원수정미보험료(元受正味保険料)	원수보험료
원수정미보험금(元受正味保険金)	지급보험금
신종보험(新種保險)	특종보험

4. 중국 동향¹⁴⁾

가. 중국 보험산업 총괄

〈수입보험료와 지급보험금〉

■ 2011년 4/4분기 전체 보험산업의 수입보험료는 3,085억 위안으로 전년동기대비 3.7% 감소함.

○ 2011년 전체 보험산업 수입보험료는 인보험 실적이 부진하면서 1조 4,339억 위안으로 전년대비 1.3% 감소함.

〈표 10〉 중국 보험산업의 수입보험료, 지급보험금, 사업비

(단위: 억 위안, %)

구분		CY2010		CY2011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수입보험료	금액	3,204	14,528	4,617	3,440	3,197	3,085	14,339
	증가율	25.3	30.4	1.7	-0.5	-3.9	-3.7	-1.3
지급보험금	금액	938	3,200	980	979	914	1,056	3,929
	증가율	19.8	2.4	33.9	32.1	15.8	12.6	22.8
사업비	금액	493	1,538	385	437	466	594	1,882
	증가율	27.7	24.7	20.6	22.4	26.3	20.6	22.4

주: 1) 기간별 수치는 해당기간에 대한 실적치이며, 증가율은 전년동기대비 수치임.

2) 상기 수치는 각 회사가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에 보고한 것으로 감사를 거치지 않음.

3) 연말 최종 집계되는 수치와 다소 상이할 수 있음.

자료: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

■ 2011년 4/4분기 보험산업의 지급보험금은 1,056억 위안으로 전년동기대비 12.6% 증가함.

○ 2011년 지급보험금은 1/4~2/4분기 동안 30% 이상 증가하였으나, 3/4~4/4분기에는 10%대 증가로 보험금 지급 압력이 다소 완화됨.

14) 중국 보험시장의 통계 및 용어에 관한 설명은 뒤의 조사 개요 및 출처를 참고 바람.

- 한편, 2011년 4/4분기 사업비는 594억 위안으로 전년동기대비 20.6% 증가하였으며, 2011년 사업비는 1,882억 위안으로 전년대비 22.4% 증가함.

〈자산운용〉

- 2011년 4/4분기 말 보험산업의 총자산은 전분기대비 5.0% 증가한 6조 138억 위안으로 나타남.
 - 운용자산의 경우 5.4% 증가한 5조 5,474억 위안, 비운용자산은 0.4% 증가한 4,664억 위안으로 나타남.
- 2011년 4/4분기 말 운용자산에서 예치금 및 투자금의 비중이 전분기보다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은행 예치금은 1조 7,737억 위안으로 3/4분기 감소세에서 3.2% 증가세로 전환됨.
 - 한편, 투자금은 6.5% 증가함에 따라 그 비중이 62.8%에 달하는 등 투자금 비중이 증가세에 있음.

〈표 11〉 중국 보험산업 자산운용 포트폴리오

(단위: 억 위안, %)

구분		CY2010	CY2011			
		4/4	1/4	2/4	3/4	4/4
운용자산계	금 액	46,047	50,067	52,051	52,611	55,474
	증가율	3.9	8.7	4.0	1.1	5.4
	구성비	91.2	92.6	90.6	91.9	92.2
- 예치금	금 액	13,910	16,257	17,658	17,183	17,737
	증가율	6.4	16.9	8.6	-2.7	3.2
	구성비	27.6	30.1	30.7	30.0	29.5
- 투자금	금 액	32,137	33,810	34,393	35,428	37,737
	증가율	2.8	5.2	1.7	3.0	6.5
	구성비	63.7	62.5	59.8	61.9	62.8
비운용자산계	금 액	4,435	3,997	5,419	4,646	4,664
	증가율	20.8	-9.9	35.6	-14.3	0.4
	구성비	8.8	7.4	9.4	8.1	7.8
총자산	금 액	50,482	54,064	57,470	57,257	60,138
	증가율	5.2	7.1	6.3	-0.4	5.0
	구성비	100	100	100	100	100.0

주: 1) 기간별 수치는 해당기간의 누적치이며, 증가율은 전분기대비임.
 2) 상기 수치는 각 회사가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에 보고한 것으로 감사를 거치지 않음.
 3) 연말 최종 집계되는 수치와 다소 상이할 수 있음.
 자료: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

나. 인보험

〈수입보험료 현황〉

■ 2011년 인보험 수입보험료의 경우 판매채널 위축, 금리인상, 인플레이션 지속 등에 따라 경쟁력이 약화되면서 감소세가 확대됨.

○ 4/4분기 인보험 수입보험료는 1,942억 위안¹⁵⁾으로 전년동기대비 14.2% 감소함.

15) 인보험 수입보험료의 경우 인보험회사 수입보험료뿐만 아니라 손해보험회사의 단기의료보험과 상

- 이러한 인보험 수입보험료 감소세는 방카슈랑스 관련 규정 시행에 따른 판매채널 위축과 금리인상에 따른 보험상품의 경쟁력 약화가 그 원인임.
- 2010년 10월 은행감독관리위원회가 시행한 보험회사 파견 설계사의 은행 활동 불허와 각 은행 지점에 대해 3개사 이하의 보험상품만 판매할 수 있는 규제로 방카슈랑스가 크게 위축됨.
- 또한, 지준율의 지속적 인상에 따른 은행의 단기 금융상품의 금리 인상과 낮은 보험상품의 투자수익률로 인보험산업의 경쟁력이 약화됨.
- 2011년 1월 새로운 기업회계기준 시행으로 변액보험과 유니버설 수입보험료 대부분이 생명보험 수입보험료에서 제외된¹⁶⁾ 것도 인보험 수입보험료 감소의 원인임.

■ 인보험 중 2011년 4/4분기 생명보험 수입보험료는 감소한 반면, 건강보험과 상해보험은 증가함.

- 생명보험 수입보험료는 1,942억 위안으로 16.6% 감소함.
- 건강보험은 4.4% 증가하여 159억 위안을, 상해보험은 25.2% 증가한 70억 위안을 기록함.

■ 2011년 중국의 자산운용시장이 부진하면서 변액보험 수익률이 대폭 하락함.

- 2011년 들어 180개 변액보험 수익률은 -11.4%로 전년대비 12.2%p 하락함.
- 이 중 2개사가 판매하고 있는 변액연금¹⁷⁾ 수익률이 각각 -4.5%, -5.9%로 나타남.

해보험, 그리고 연금보험회사가 운영하는 인보험 상품의 수입보험료(5개 연금보험회사 중 2개)가 포함됨.

16) 동 회계기준에 따르면 보험상품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위험률 차익률이 5년 이상 10%를 초과하고, 보험상품 기간이 5년 이하인 경우 절반 이상 보험기간의 위험률 차익률이 10%를 초과한 보험계약 수입보험료만이 생명보험 수입보험료에 산입됨.

17) 중국은 2011년 8월부터 변액연금상품을 출시하였는데, 현재 Axa-minmetals, Metlife 2개 회사가 동 상품을 판매하고 있음.

〈표 12〉 인보험 수입보험료

(단위: 억 위안, %)

구분		CY2010		CY2011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인보험	보험료	2,263	10,632	3,484	2,213	2,082	1,942	9,721
	증가율	18.2	28.7	-1.8	-9.1	-12.9	-14.2	-8.6
	구성비	100	100	100	100	100	100.0	100.0
- 생명보험	보험료	2,054	9,680	3,210	1,943	1,829	1,714	8,696
	증가율	18.5	29.8	-2.5	-10.8	-15.1	-16.6	-10.2
	구성비	90.8	91.0	92.1	87.8	87.8	88.2	89.4
- 건강보험	보험료	152	677	187	181	165	159	692
	증가율	11.4	18.0	1.3	0.6	2.5	4.4	2.2
	구성비	6.7	6.4	5.4	8.2	7.9	8.2	7.1
- 상해보험	보험료	56	275	87	89	88	70	334
	증가율	26.7	19.7	23.3	18.7	20.5	25.2	21.5
	구성비	2.5	2.6	2.5	4.0	4.2	3.6	3.4

주: 1) 기간별 수치는 해당기간에 대한 실적치이며, 증가율은 전년동기대비 수치임.

2) 인신보험, 인수보험, 의외상해보험을 각각 인보험, 생명보험, 상해보험으로 의역함.

3) 상기 수치는 각 회사가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에 보고한 것으로 감사를 거치지 않음.

4) 연말 최종 집계되는 수치와 다소 상이할 수 있음.

자료: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

〈지급보험금 현황〉

■ 2011년 4/4분기 인보험 지급보험금은 전년동기대비 6.2% 감소한 358억 위안으로 나타났으며, 1/4~3/4분기 동안 증가세에 있던 지급보험금이 감소세로 전환됨.

○ 특히, 1/4~2/4분기 지급보험금의 높은 증가세는 3~5년 만기 보험상품들의 만기일이 동 기간에 집중된 데다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거절 허용범위 축소 등 감독당국의 피보험자 보호규제 강화정책 등이 원인임.

○ 4/4분기 생명보험, 건강보험, 상해보험의 지급보험금은 각각 6.3%, 13.6%, 19.2% 감소함.

〈표 13〉 인보험 지급보험금

(단위: 억 위안, %)

구분		CY2010		CY2011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인보험	보험금	382	1,444	551	471	362	358	1742
	증가율	18.0	-6.8	49.7	36.1	4.0	-6.2	20.7
- 생명보험	보험금	287	1,109	437	332	263	269	1301
	증가율	13.3	-12.6	50.7	23.4	0.0	-6.3	17.3
- 건강보험	보험금	76	264	96	120	78	66	360
	증가율	38.6	21.7	54.8	100.0	18.2	-13.6	36.2
- 상해보험	보험금	20	71	18	19	21	24	82
	증가율	21.5	11.7	5.9	18.8	10.5	19.2	15.3

주: 1) 기간별 수치는 해당기간에 대한 실적치이며, 증가율은 전년동기대비 수치임.

2) 인신보험, 인수보험, 의외상해보험을 각각 인보험, 생명보험, 상해보험으로 의역함.

3) 상기 수치는 각 회사가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에 보고한 것으로 감사를 거치지 않음.

4) 연말 최종 집계되는 수치와 다소 상이할 수 있음.

자료: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

〈회사그룹별 시장점유율〉

■ 2011년 4/4분기 수입보험료 기준 인보험 상위 5개사와 외자계 보험회사의 시장점유율은 전년동기대비 다소 하락한 반면, 중소형사는 상승함.

○ 2011년 4/4분기 전체 인보험회사의 수입보험료¹⁸⁾는 1,910억 위안으로 전년동기 대비 14.7% 감소함.

○ 2011년 4/4분기 중국계 인보험회사 시장점유율은 94.8%로 1.7%p 상승하였으며, 그 중 상위 5개사가 69.1%로 0.4%p 하락하였으나, 중소형사는 25.7%로 2.1%p 상승함.

○ 한편, 외자계 보험회사는 1.7%p 하락한 5.2%를 기록함.

18) 전체 인보험회사의 수입보험료는 인보험 수입보험료에서 손해보험회사의 단기의료보험 및 상해보험과 연금보험회사의 인보험상품 수입보험료(5개 연금보험회사 중 2개)를 제외한 것임.

〈표 14〉 인보험 회사그룹별 시장점유율(수입보험료 기준)

(단위: %)

구분			CY2010		CY2011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인보험	중국계	상위 5개사	69.5	72.8	75.4	72.4	72.1	69.1	72.8
		중소형사	23.6	21.6	21.2	23.0	24.5	25.7	23.2
		소 계	93.1	94.4	96.6	95.4	96.6	94.8	96.0
	외자계		6.9	5.6	3.4	4.6	3.4	5.2	4.0

주: 1) 기간별 점유율은 해당기간에 대한 수치임.

2) 인보험의 상위 5개사는 중국인수생명보험, 평안인수생명보험, 신화인수생명보험, 타이핑양인수생명보험, 타이강인수생명보험 등임.

3) 중소형사는 상위사와 외자계를 제외한 보험회사들임.

4) 상기 수치는 각 회사가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에 보고한 것으로 감사를 거치지 않음.

5) 연말 최종 집계되는 수치와 다소 상이할 수 있음.

자료: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

다. 손해보험

〈수입보험료 현황〉

■ 2011년 4/4분기 손해보험 수입보험료는 1,143억 위안으로 전년동기대비 21.5% 증가함.

○ 2011년 손해보험 수입보험료의 증가세 둔화는 기저효과와 함께 주력 종목인 자동차 보험의 실적부진이 그 원인으로 풀이됨.

○ 일부 대도시의 자동차구매 자격제한¹⁹⁾과 유가상승 등으로 2011년 4/4 분기 중국 자동차의 판매액이 2.5% 증가에 그침.

19) 베이징의 경우 2011년 1월부터 자동차 구매자를 베이징 호적인 자로 제한했을 뿐만 아니라, '베이징 사람'의 경우에도 10~30대 1의 경쟁률 속에서 추첨을 통해 구매자격을 가질 수 있음.

〈표 15〉 손해보험 수입보험료

(단위: 억 위안, %)

구분		CY2010		CY2011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손해보험	보험료	941	3,896	1,133	1,227	1,115	1,143	4,618
	증가율	46.6	35.5	13.9	19.9	19.0	21.5	18.5

주: 1) 기간별 수치는 해당기간에 대한 실적치이며, 증가율은 전년동기대비 수치임.

2) 재산보험을 손해보험으로 의역함.

3) 상기 수치는 각 회사가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에 보고한 것으로 감사를 거치지 않음.

4) 연말 최종 집계되는 수치와 다소 상이할 수 있음.

자료: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

〈지급보험금 현황〉

■ 2011년 4/4분기 손해보험의 지급보험금은 전년동기대비 25.5% 증가한 698억 위안으로 나타남.

○ 지급보험금의 경우 감독당국의 피보험자 보호규제 강화정책으로 두 자리 수 증가율이 지속되고 있음.

〈표 16〉 손해보험 지급보험금

(단위: 억 위안, %)

구분		CY2010		CY2011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손해보험	보험금	556	1,756	429	508	552	698	2,187
	증가율	21.1	11.4	17.9	28.6	25.2	25.5	24.5

주: 1) 기간별 수치는 해당기간에 대한 실적치이며, 증가율은 전년동기대비 수치임.

2) 재산보험을 손해보험으로 의역함.

3) 상기 수치는 각 회사가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에 보고한 것으로 감사를 거치지 않음.

4) 연말 최종 집계되는 수치와 다소 상이할 수 있음.

자료: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

〈회사그룹별 시장점유율〉

■ 2011년 4/4분기 전체 손해보험회사의 수입보험료(단기의료보험과 상해보험 포함)가 1,175억 위안으로 전년동기대비 21.7% 증가한 가운데, 중국계 및 외자계 회사의 시장점유율은 전년동기와 같은 수준으로 나타남.

- 중국계 손해보험회사의 수입보험료가 1,162억 위안으로 98.9%의 시장점유율을 기록하였고, 외자계 보험회사는 13억 위안으로 1.1% 점유율에 그침.
- 손해보험 상위 3개사인 중국인민재산보험, 타이핑양재산, 평안재산이 각각 34.7%, 12.7%, 18.5%의 점유율로 총 손해보험시장의 65.9%를 차지하였으며, 동 점유율은 전년동기대비 1.1%p 하락한 수준임.

〈표 17〉 손해보험 회사그룹별 시장점유율(수입보험료 기준)

(단위: %)

구분			CY2010		CY2011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손해 보험	중국계	상위 3개사	67.0	66.4	68.2	66.2	66.2	65.9	66.6
		중소형사	31.9	32.5	30.7	32.8	32.7	33.0	32.3
		소 계	98.9	98.9	98.9	98.9	98.9	98.9	98.9
	외자계		1.1	1.1	1.1	1.1	1.1	1.1	1.1

주: 1) 기간별 점유율은 해당기간에 대한 수치임.

2) 손해보험의 상위 3개사는 중국인민재산, 평안재산, 타이핑양재산 등임.

3) 중소형사는 상위사와 외자계를 제외한 보험회사들임.

4) 상기 수치는 각 회사가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에 보고한 것으로 감사를 거치지 않음.

5) 연말 최종 집계되는 수치와 다소 상이할 수 있음.

자료: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

라. 연금보험

■ 2011년 4/4분기 중국 연금보험회사의 총 수탁보험료는 109억 위안으로 전년동기대비 19.3% 감소하였고, 누적 운용보험료 규모는 1,378억 위안으로 전분기대비 8.9% 증가함.

- 중국 연금보험시장의 경우 2007년 연금보험회사의 기업연금 수탁업무가 전국에 걸쳐 허용되면서 4년간 급성장하였으나, 기업연금 가입률은 여전히 낮은 수준임.

- 2011년 12월 현재 중국 기업 및 근로자의 기업연금 가입률과 동 연금의 소득대체율이 모두 1%에도 미치지 못함에 따라 향후 기업연금시장의 성장 잠재력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음.

〈표 18〉 중국 연금보험 수입보험료 및 자산 운용 현황

(단위: 억 위안, %)

구분		CY2010			CY2011				
		3/4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수탁보험료	금액	71	135	357	169	45	87	109	410
	증가율	-	-	35.2	128.4	-41.6	22.5	-19.3	14.8
누적 운용 보험료	금액	920	1,039	1,039	1,147	1,216	1,265	1,378	1,378
	증가율	10.2	12.9	46.8	10.4	6.0	4.0	8.9	32.6

주: 1) 수탁보험료는 해당기간에 대한 실적치이며, 증가율은 전년동기대비 수치임.

2) 누적 운용보험료 증가율은 전분기대비 수치임.

3) 2010년 3/4~4/4분기 수탁보험료 증가율은 결측치임.

4) 상기 수치는 각 회사가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에 보고한 것으로 감사를 거치지 않음.

5) 연말 최종 집계되는 수치와 다소 상이할 수 있음.

자료: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

조사 개요 및 출처

■ 중국 보험산업은 크게 생명보험에 해당하는 인보험(人身保險)과 손해보험에 해당하는 재산보험(財產保險)으로 구분되는데, 중국 보험산업을 감독하는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http://www.circ.gov.cn>)에서 입수한 통계를 바탕으로 기술함.

- 월별 누적 통계(raw data)를 분기별로 전환해 분석함.
- 수입보험료, 지급보험금 및 주요 경영실적 등 경영지표 분석을 위해 보험산업 경영 현황표(保險業經營情況表)를 사용함.
- 또한, 인보험회사 수입보험료 현황표(人身保險公司保費收入情況表)와 손해보험 회사 수입보험료 현황표(財產保險公司保費收入情況表)를 활용해 회사그룹별 시장점유율 분석을 시도함.

■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의 〈중국보험연감〉 분류 기준에 근거해 인보험을 상해보험, 건강보험, 생명보험으로 분류해 기술함.

- 생명보험은 신종보험인 투자연동형보험, 만능형보험(변액, 유니버설), 배당형보험과 저축성 위주의 전통적 생명보험으로 분류함.

■ 중국 보험용어를 편의상 우리식 용어로 의역함.

변경 전	변경 후
재산보험(財產保險)	손해보험
인신보험(人身保險)	인보험
인수보험(人壽保險)	생명보험
의외상해보험(人身意外傷害保險)	상해보험

■ 실적치는 보험회사들이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에 보고한 속보 자료로 연말에 최종 집계되는 데이터와 다소 상이할 수 있음.

V. 국내외 보험·금융 주요 뉴스

■ 국내 보험·금융 뉴스

KiRi Weekly 수록호	제목 및 주요 내용
제163호 (1, 2)	2012년 1월 업황 전망 기업경기실사지수(BSI) 하락 · 2011년 12월 제조업 업황 실적 기업경기실사지수(BSI)는 전월대비 3p 하락한 80으로 나타났으며, 2012년 1월 제조업 업황 전망 BSI도 전월대비 4p 하락한 79를 기록함. (2011 12월 기업경기실사지수(BSI) 등, 한은, 12/28)
제164호 (1, 9)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 · 금융위가 2012년 1월 3일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발표한 가운데, 주요 내용에 보험계약 체결 시 전자서명 허용, 해외 자회사에 대한 채무보증금지 예외 인정, 농협 관련 조항이 포함됨.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주요 내용, 금융위, 1/3)
제165호 (1, 16)	지경부, 2011년 자동차 산업 실적 발표 · 지경부는 2011년 자동차 산업 실적을 잠정 집계한 결과, 수출은 글로벌 경기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인 성장세를 유지한 반면, 내수는 4/4분기 접어들면서 소비심리 악화 등으로 성장세가 둔화되었다고 발표함. (2011년 자동차 산업 실적, 지경부, 1/11)
제166호 (1, 25)	금감원, 보험산업의 소비자 신뢰도 제고방안 마련 · ‘보험산업 신뢰도 제고방안’에는 보험상품에 대한 소비자 이해도 제고, 보험소비자 중심의 영업정책 확산, 보험금 지급의 불만요소 제거, 보험민원 발생원인의 사전 차단, 사회구성원으로서의 보험위상 정립 방안이 포함됨. (보험에 대한 소비자 신뢰도 제고방안 마련, 금감원, 1/18)
제167호 (1, 30)	금감원, 기업의 직접금융 조달 실적 발표 · 2011년 기업의 직접금융 조달규모는 전년대비 16.3% 증가한 143조 3,937억 원을 기록함. ·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경기가 회복됨에 따라 기업의 직접금융 조달금액은 전반적으로 증가 추세를 나타내고 있음. (2011년 중 기업의 직접금융 조달금액, 금감원, 1/25)

■ 국내 보험·금융 뉴스

KiRi Weekly 수록호	제목 및 주요 내용
제168호 (2. 6)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안) 국무회의 통과 · 2012년 1월 31일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입법예고,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국무회의를 통과함. · 금번 국무회의 통과안은 당초 입법예고안과 비교하여 등록규제, 과징금 부과기준, 제재수준 조정과 관련한 내용이 수정 및 보완됨.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안 국무회의 통과, 금융위, 1/31)
제169호 (2. 13)	금감원, 2011년 퇴직연금시장 현황 발표 · 금감원에 따르면 2011년 말 퇴직연금 적립금은 퇴직보험·신탁의 효력 만료와 사외에 적립하지 않은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한도 축소 등의 영향으로 2010년 말 대비 71.3% 증가한 49조 9,168억 원을 기록함. (2011년 말 퇴직연금시장 규모는 50조 원으로 성장, 금감원, 2/7)
제170호 (2. 20)	2011년 말 국내은행의 부실채권 현황 · 2011년 말 국내은행의 부실채권 비율은 2010년 말 대비 0.54%p 하락한 1.36%로 나타났으며, 부실채권 규모는 2010년 말 대비 6조 원 감소한 18조 8,000억 원을 기록함. (국내은행의 부실채권 현황 및 향후 감독방향, 금감원, 2/10)
제171호 (2. 27)	금감원, 보험사기 예방을 위한 계약인수 모범규준 마련 · 금감원은 2012년 1/4분기 중 금감원, 보험협회, 보험회사 직원들로 구성된 T/F를 운영하여 보험회사가 준수해야 할 보험사기 예방을 위한 보험 계약인수 모범규준을 마련하기로 함. (보험사기 예방을 위한 계약인수 모범규준 마련 추진, 금감원, 2/22)
제172호 (3. 5)	정부, 제2금융권 가계대출 보완대책 발표 · 정부는 제2금융권 가계대출의 높은 증가세가 금융권 건전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짐에 따라 제2금융권 가계대출 보완대책을 마련하여 발표함. · 상호금융 가계대출 관리 방안으로 예대출 관리 강화, 고위험 대출 감독 강화, 비조합원 대출한도와 조합원 간주범위 축소, 대출심사 관행 개선, 강화된 자산건전성 분류 및 대손충당금 적립기준 단계적 상향 적용이 제시됨. (제2금융권 가계대출 보완대책, 금융위 등, 2/27)
제173호 (3. 12)	NH농협생명·NH농협손해보험 출범 · 2012년 3월 2일 농협금융지주회사 출범과 함께 NH농협생명과 NH농협손해보험이 본격적인 영업을 시작함. · 특히, 농협의 보험산업 진출과 관련하여 생명보험업계가 더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NH농협생명 단숨에 Big 4, 중앙일보 등, 3/2)

■ 국내 보험 · 금융 뉴스

KiRi Weekly 수록호	제목 및 주요 내용
제174호 (3. 19)	금감원, 2011년 방카슈랑스 영업 현황 발표 · 금감원에 따르면 2011년 12월 말 기준 보험회사와 방카슈랑스 판매제휴 계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이 총 122개로 나타남. · 2011년 동안 방카슈랑스 채널을 통한 신계약 초회보험료는 전년대비 15.8% 증가한 7조 3,534억 원을 기록함. (2011년 중 금융기관 보험대리점의 방카슈랑스 영업 현황, 금감원, 3/13)
제175호 (3. 26)	한은, 2011년 중 자금순환 발표 · 국내부문의 경우 금융자산이 전년대비 544조 9,000억 원 증가한 9,926조 6,000억 원으로 나타났으며, 금융부채는 537조 6,000억 원 증가한 8,040조 9,000억 원을 기록함. (2011년 중 자금순환, 한은, 3/16)
제175호 (3. 26)	통계청, '2011 한국의 사회지표' 발간 · 통계청은 우리나라의 사회상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전반적인 경제 및 사회의 변화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2011 한국의 사회지표'를 발간함. (2011 한국의 사회지표, 통계청, 3/15)

■ 미국 보험·금융 뉴스

KiRi Weekly 수록호	제목 및 주요 내용
제163호 (1. 2)	미국 경기지표 혼조 양상 · 미 상무부는 11월 소비지출이 전월대비 0.1% 증가했으며, 기업의 내구재 주문은 항공기 주문 증가로 4개월 만에 가장 높은 3.8%의 증가했다고 발표함. (LA Times, 12/27 등)
제164호 (1. 9)	미국 ISM 제조업지수, 6개월 만에 최고치 기록 · 미국 공급관리협회(ISM)는 2011년 12월 제조업지수가 전월대비 1.2%p 상승한 53.9%를 기록했다고 발표했으며, 이는 6개월래 최고치에 해당함. (Market Watch, 1/3 등)
제165호 (1. 16)	미 연준, 주택시장 활성화 방안 촉구 · 1월 5일 미 연준은 대규모 채권매입과 초저금리 정책에도 불구하고 주택시장 불황으로 동 정책효과가 반감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의회가 주택시장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요구함. (Wall Street Journal, 1/5 등)
제166호 (1. 25)	미국 제조업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 상승 · 미국 제조업 고용증가율이 생산성 증가와 낮은 임금상승률에 힘입어 다른 G7국가들에 비해 높게 나타나면서 제조업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짐. (Financial Times, 1/17)
제167호 (1. 30)	미국 경제지표 호조세 지속 · 1월 주택시장 지수가 2007년 6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고 2011년 4/4분기 주택착공 실적도 호조세를 나타내면서 주택시장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짐. (Wall Street Journal, 1/18)
제168호 (2. 6)	연준, 추가 양적완화정책 시행 가능성 시사 · 1월 26일 미 연준은 1월 FOMC회의 이후 발표한 성명을 통해 경기상황에 따라 추가 양적완화 정책을 시행할 수 있다고 밝히고 2012년과 2013년 경제성장률 전망을 하향조정함. (LA Times, 2/1 등)
제169호 (2. 13)	미 실업률, 5개월 연속 하락세 지속 · 미국의 1월 실업률이 5개월 연속 하락세를 지속하고 신규고용자 수도 크게 증가하면서 노동시장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확대됨. (LA Times, 2/3 등)

■ 미국 보험 · 금융 뉴스

KiRi Weekly 수록호	제목 및 주요 내용
제170호 (2. 20)	오바마 대통령, 2013 회계연도 예산안 발표 · 2월 13일 오바마 대통령은 정부지출을 삭감하고 부유층에 대한 증세를 통해 향후 10년간 4조 달러의 재정적자를 감축하는 동시에 운송 및 교육 부문에 대한 지출을 확대하는 단기부양책을 포함한 2013 회계연도(2012년 10월 1일 ~ 2013년 9월 30일) 예산안을 발표함. (USA Today, 2/13 등)
제171호 (2. 27)	미국, 고용 및 주택지표 개선 · 2월 16일 노동부는 2월 둘째주 주간 실업수당 청구건수가 전주에 비해 13,000명 감소한 348,000명을 기록했다고 발표하였으며, 이는 2008년 3월 이후 가장 적은 것으로 고용시장 개선 신호로 해석됨. (LA Times, 2/16 등)
제172호 (3. 5)	유가상승 불구, 소비자 신뢰도 개선 · 2월 28일 컨퍼런스보드는 2월 소비자신뢰지수가 전월에 비해 9.3포인트 상승한 70.8을 나타냈으며, 이는 2011년 2월 이후 가장 높은 수치라고 발표함. (USA TODAY, 2/28 등)
제173호 (3. 12)	미 연준, 물가상승 없는 새로운 양적완화 방안 검토 · 3월 7일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연준이 인플레이션을 유발하지 않는 새로운 형태의 채권매입 프로그램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Wall Street Journal, 3/7)
제174호 (3. 19)	미국 경제, 낙관론 확산 · 미국 노동부가 발표한 2월 실업률은 1월과 같은 8.3%에 머물렀으나 신규 일자리 증가세가 지속되는 한편 가계의 순부(net worth)와 부채가 동시에 증가하는 등 소비여건이 개선되는 모습이 나타남. (Chicago tribune, 3/13 등)
제175호 (3. 26)	2월 소비자물가지수, 0.4% 상승 · 2월 미국 소비자물가지수가 휘발유 가격 상승의 영향으로 전월대비 0.4% 상승하면서 10개월래 최고수준을 기록함에 따라 소비자 신뢰지수도 하락하였으나, 전문가들은 소비자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함. (Boston Globe, 3/17 등)

■ 유럽 보험 · 금융 뉴스

KiRi Weekly 수록호	제목 및 주요 내용
제163호 (1. 2)	유로존 붕괴 가능성에 대한 우려 증대 · 국제 신용평가사들의 유로존 국가 신용등급 강등 경고가 계속되면서 유럽은 2012년 1월 중 중대 고비를 맞을 것으로 보임. 유럽 은행들은 유로화 폐지를 가정하고 대책을 마련함. (Wall Street Journal, 12/27)
제164호 (1. 9)	스페인 재정적자 비율 급등 발표로 구제금융설 대두 · 스페인의 재정적자 급등 발표 이후 스페인이 유럽재정안정기금(EFSF)과 국제통화기금(IMF)에 은행권 대출자금 요청을 검토하고 있다는 내용이 보도되면서 금융시장은 다시 경색됨. (Wall Street Journal, 1/4)
제165호 (1. 16)	피치, 이탈리아 신용등급 강등 가능성 시사 · 피치는 1월 10일 이탈리아의 위기해소안 부재, 막대한 부채, 높은 국채 발행 금리로 인해 이탈리아의 신용등급을 1월 말경에 강등시킬 가능성이 크다고 발표함. (Wall Street Journal, 1/10)
제166호 (1. 25)	유로존 신용등급 강등에도 불구하고 국채금리 하락 · 스페인과 프랑스 등은 유럽중앙은행(ECB)이 국채매입 대안으로 취했던 시중은행 신용경색 완화 정책이 효과를 발휘하면서 신용등급 강등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 낮은 금리로 국채를 발행함. (Financial Times, 1/17)
제167호 (1. 30)	IMF, 유로존 재정위기 심화로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치 하향 조정 · 국제통화기금(IMF)은 유로존 재정위기 심화로 2012~13년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큰 폭으로 하향 조정함. · 2012년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2011년 9월(4.0%)보다 0.7%p, 2011년 6월(4.5%)보다 1.2%p 낮아짐. (IMF, 1/24)
제168호 (2. 6)	유럽 노동시장 개선 필요성 대두 · Bloomberg는 스페인 노동시장의 경직성은 극단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만, 이러한 노동시장 구조는 일부 국가를 제외한 대부분의 유로존 국가들에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라고 주장 (Bloomberg, 1/31)
제169호 (2. 13)	그리스, 긴축(안) 최종합의로 디폴트 위기 모면 · 2월 10일 그리스는 연금 삭감 대신 다른 방법을 통해 EU, ECB, IMF 등이 제시한 긴축안을 수용할 수 있게 됨으로써 예정대로 1,300억 유로의 제2차 구제금융을 받으면서 디폴트 위기를 모면함. (Spiegel 2/5)

■ 유럽 보험 · 금융 뉴스

KiRi Weekly 수록호	제목 및 주요 내용
제170호 (2. 20)	중국, 유럽에 대한 투자 급증 · 2011년 중국의 해외투자(outbound direct investment)는 680억 달러로 2010년 688억 달러보다 다소 줄었으나 대유럽 투자규모는 2배 이상 증가함. 기업 및 국부펀드(CIC)가 재정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유럽에서 해외인수 및 합병(M&A), 인프라 건설 프로젝트 등에 투자함. (Wall Street Journal, 2/14)
제171호 (2. 27)	그리스 제2차 구제금융 지원에 대한 평가 · 그리스에 대한 추가 구제금융(안) 지원 합의에도 불구하고 일부 국가의 의회 승인, 시장에서의 신뢰회복, 긴축에 대한 그리스 국민들의 반발 등의 난제로 그리스 위기는 여전히 상존함. 추가 구제금융 지원에도 불구하고 그리스 사태는 여전히 해결되지 못할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됨. (Financial Times, 2/22)
제172호 (3. 5)	유럽중앙은행(ECB)의 제2차 장기대출프로그램에 대한 평가 · 유럽중앙은행은 2월 29일 제2차 장기대출프로그램을 통해 유로존 시중 은행에 총 5,295억 유로의 3년 만기 초저금리 대출을 시행함. 그러나 시중은행에 자금 공급을 늘리는 데에 따른 리스크가 발생하며, 궁극적으로 금융시장 안정을 해칠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됨. (Wall Street Journal, 3/1)
제173호 (3. 12)	유로존, 기술적 경기침체 진입 · EU는 유로존 경제가 2011년 4/4분기에 이어 2012년 1/4분기에도 마이너스 성장할 것으로 보여 2012년 현재 기술적 경기침체에 들어선 것으로 평가함. (Wall Street Journal, 3/6)
제174호 (3. 19)	유럽중앙은행 출구전략 시사 · 유럽중앙은행(ECB)은 두 차례에 걸친 장기대출프로그램(LTRO)이 유로존 금융시장 안정에 크게 기여했다고 평가하면서 출구전략이 필요한 시점에 도달했음을 시사 함. (Bloomberg, 3/14)
제175호 (3. 26)	EU, 그림자금융(shadow banking) 규제 시사 · EU 집행위원회는 3월 19일 금융위기 재발방지를 위해 그림자금융(shadow banking)에 대한 감시와 규제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발표함. 그림자금융 감독 권한에 대한 문제부터 시작하여 그림자금융권에 현재보다 높은 자본요구 기준을 설정하는 등 다방면에 걸쳐 그림자금융 감시 및 규제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힘. (Wall Street Journal, 3/19)

■ 일본 보험·금융 뉴스

KiRi Weekly 수록호	제목 및 주요 내용
제163호 (1. 2)	일본 정부, 2012회계연도 차입 예산안 발표 · 일본 정부는 12월 24일 노다 일본총리 주재로 각료회의를 열어 2012회계연도 일반회계 예산안을 90.3조 엔으로 확정함. · 국채 원리금 상환액은 21.9조 엔으로 2011년도 대비 약 5,000억 엔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마이니치신문 등, 12/29)
제164호 (1. 9)	일본 교통사고 사망자 11년째 감소 · 2012년 1월 4일 일본 경찰청은 2011년 동안 일본 내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4,611명으로 2010년보다 252명 감소함에 따라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 추세가 11년 연속 이어지고 있다고 발표함. (니혼게이자이신문 등, 1/3)
제165호 (1. 16)	동경해상, 미국 Delphi 지주회사 인수 · 동경해상은 미국에서 생·손보업을 겸영하는 보험지주회사인 Delphi Financial Group과 산하 자회사를 26억 6,400만 달러에 2011년 12월 21일 인수하여 모회사인 동경해상HD에 계열화하여 편입시킴. (동경해상보도자료 등, 1/6)
제166호 (1. 25)	미치이스미토모해상, 인터넷 전용 해외여행자보험 판매실적 호조 · 일본 미치이스미토모해상이 취급하고 있는 인터넷 전용 해외여행자보험의 판매실적이 전년대비 30% 이상 증가하는 등 소비자들의 반응이 높은 것으로 평가됨. (일본보험매일신문 등, 1/16)
제167호 (1. 30)	손보재팬과 니혼코아 합병으로 일본 최대 손보사 탄생 예정 · 일본의 NKSJ홀딩스는 손해보험업계 2위 업체인 손보재팬과 5위 업체인 니혼코아손해보험이 2014년 상반기를 목표로 합병할 계획이라고 발표함. (요미우리신문 등, 1/25)
제168호 (2. 6)	일본 인구추계 결과, 급격한 인구 감소와 고령층 증가 · 일본 후생노동성은 장기 인구추계 결과 2048년 인구가 1억 명 이하로 감소하고 2060년 고령자의 비율이 40%에 달할 것이라고 전망함. (일본 통계청 등, 1/31)
제169호 (2. 13)	2011년 일본 경상수지 흑자 15년 만에 최저치 갱신 · 일본 재무성은 2월 8일 2011년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9조 6,289억 엔으로 전년대비 43.9% 급감하는 등 1996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발표함. (마이니치신문 등, 11/9)

■ 일본 보험·금융 뉴스

KiRi Weekly 수록호	제목 및 주요 내용
제170호 (2. 20)	일본은행, 추가 양적완화 및 명시적 물가 목표치 제시 · 일본은행은 2월 14일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엔화강세 지속과 경기침체에 대비하기 위해 추가 양적완화를 단행하고 물가 목표치를 명확히 제시하기로 결정함. (니혼게이자이신문 등, 2/15)
제171호 (2. 27)	비정규직 비율 사상 최고치 기록 · 일본 총무성이 2월 20일 발표한 2011년 노동력조사에 따르면 임금근로자 중 비정규직 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전년대비 0.8%p 상승한 35.2%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함. (아사히신문 등, 2/23)
제172호 (3. 5)	일본 대형 연금운용회사 부실운용으로 가입자 피해 발생 · 일본 금융청은 퇴직연금 운용회사인 AIJ 투자자문사가 수탁한 연금자산을 부실 운용하여 거액의 손실이 발생한 것을 확인하고 동 회사의 영업을 정지시켰으며, 연금운용사의 부실 운용에 대해 조사를 확대할 방침임. (니혼게이자이신문 등, 2/29)
제173호 (3. 12)	일본, 파트타임 근로자 사회보험 강화 방안 추진 · 일본정부는 파트타임 근로자의 사회보장 강화를 위해 후생연금과 건강보험의 적용대상에 이들을 포함할 것을 결정하고 최종 조율 중에 있음. (니혼게이자이신문 등, 3/7)
제174호 (3. 19)	일본기업, 엔고 영향으로 M&A 실적 세계 3위로 · 2011년 일본이 전 세계 M&A 시장에서 미국과 영국 다음으로 세계 3위의 실적을 기록한 것으로 조사됨. (니혼게이자이신문 등, 12/14)
제175호 (3. 26)	일본은행, 경기판단 하향조정과 기존 통화정책 유지 · 일본은행은 21일 통화정책회의를 열어 경기판단을 종전보다 하향조정하고, 현행 0~0.1%의 기준금리를 유지하는 등 경제가 안정될 때까지는 기존의 초저금리 통화정책을 유지할 것이라고 발표함. (마이니치신문 등, 12/21 뉴스 종합)

■ 중국 보험·금융 뉴스

KiRi Weekly 수록호	제목 및 주요 내용
제163호 (1. 2)	중·일 화폐협정 체결, 위안화 위상 부상 전망 · 지난 26일 중국과 일본정부 간 양국 정상회담에서 상호간의 금융협력을 강화하는 화폐협정을 체결하였으며, 동 협정은 양국 무역거래 시 위안화와 엔화의 직접거래, 일본의 중국 국채매입, 일본 정부기구와 기업의 위안화 표시 채권발행 등의 내용을 포함함. (신라재경 12/26, 화선, WSJ, 12/27 등)
제164호 (1. 9)	2011년 보험산업 자금조달 총액 433% 증가 · 2011년 동안 중국 정부의 긴축정책 등으로 중국 금융산업이 자금압박을 크게 겪었으나, 채권발행이 확대되면서 자금문제가 어느 정도 완화되어 보험산업의 자금조달 금액이 2010년보다 433.6% 증가하였음. (증권일보, 신라망, 1/4 등)
제164 (1. 9)	중국은행들 대규모 부실자산 처분 예상 · 부실증권 투자를 전문으로 하는 홍콩 소재의 펀드관련 담당자에 따르면 중국은 2008년 금융위기 당시 경기부양책의 결과 발생한 대량의 무수익 여신에 대한 처분이 빠른 시일내에 대거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함. (Financial Times, 12/30 등)
제165호 (1. 16)	2011년 보험산업 투자수익률 3.6% 기록 · 2011년 중국 보험산업의 투자 수익률이 3.6%로 2005년이래의 최저치를 기록했으며, 보험상품 수익률이 낮은 것은 2011년 매출채널 위축으로 인한 보험산업 실적부진을 조장한 것으로 분석됨. (신라 재경, 중국증권보, 1/11 등)
제166호 (1. 25)	2011년 4/4분기 중국 외환보유액 감소 · 2011년 4/4분기 중국 외환보유고규모가 전분기대비 14.5% 하락하여 1998년 2/4분기 이후의 첫 감소를 기록했으며, 핫머니의 대량 유출이 이번 외환보유고 감소의 주요인으로 분석되고 있음. (봉황재경, WSJ, 1/13 등)
제167호 (1. 30)	2011년 4/4분기 중국경제 성장률 8.9% 기록 · 중국 국가통계국은 2011년 4/4분기 중국경제 성장률이 8.9%를 기록한 것을 발표했으며, 정제성장 둔화의 원인으로 유럽재정위기로 인한 수출 부진, 물가 상승 및 부동산경기 과열을 방지하기 위한 건축정책 등이 있음. (Financial Times 등 1/17, 1/25 등)

■ 중국 보험 · 금융 뉴스

KIRI Weekly 수록호	제목 및 주요 내용
제168호 (2. 6)	중국 양로기금(국민연금), 중시 투자 허용 전망 · 중국 증권시보에 따르면 인력자원 및 사회보장부가 '양로기금중시투자 방법'을 2012년 1/4분기 내에 제정할 것을 계획함에 따라 현재 지방 정부 및 지방 세무부가 거수하고 관리하는 양로기금(즉, 국민연금)의 중시 투자가 허용될 전망이다. (증권시보, 인민망, WSJ, 2/1, 등)
제169호 (2. 13)	시티그룹, 중국 내 신용카드 발급자격 취득 · 2월 6일 시티금융그룹(Citi Group)이 중국은행감독관리위원회로부터 중국 현지고객에게 신용카드를 발급할 수 있는 자격을 취득했다고 발표함에 따라 시티은행은 홍콩계은행을 제외하고 최초로 중국에서 독자적으로 신용카드를 발급할 수 있는 외자계 은행이 될 예정이다. (중국경제망, 인민망 2/7 등)
제169호 (2.13)	독일 총리 중국 방문 후, 중국의 유럽지원 가능성 부각 · 2012년 2월 2~5일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중국을 방문하는 기간 동안 원자바오 중국 총리가 중국이 유럽에 대한 지원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입장을 수차례에 걸쳐 밝히는 등 세계 최대 외환보유국인 중국이 유럽재정안정기금(EFSF)에 대한 투자를 대폭 확대할 가능성이 높아졌음. (인민일보 2/3, 서울 경제 2/3, WSJ, 2/5 등)
제170호 (2. 20)	2011년 중국 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 비율 8연래 최저치 기록 · 중국 외환관리국이 2월 10일 GDP에서 차지하는 경상수지 흑자 비율이 2010년 3.0%에서 2011년 2.7%로 하락했다고 발표한 가운데 동 비율은 2003년 이래 최저치에 해당함. (회통망 11/07, 톈쉬 재경 11/15 등)
제171호 (2. 27)	은행계 보험회사 설립 본격화, 기존 보험회사 판매채널 위축 우려 · 2009년 은행감독관리위원회가 상업은행의 보험업 진출을 허용한 후 현재까지 4개의 은행계 보험회사가 설립되었는데, 2011년 들어 그 설립 속도도 빨라지고 있어 상업은행 보험산업 진입의 본격화가 기존 보험회사에게 타격을 줄 것으로 예측됨. (봉황망, 중국경제신문, 등 2/22)
제 171호 (2. 27)	외자계 손해보험회사에게 자동차책임보험시장 개방 결정 · 미국 시간 2월 14일 미국을 방문 중인 중국 국가부주석 시진핑과 오바마의 정상회담 이후 발표된 '중·미 경제관계 강화 연합 성명'에 따르면 중국은 외자계 보험회사를 대상으로 자동차책임보험시장을 개방할 예정이다. (중국보험보, 인민망, 등 2/16)

■ 중국 보험·금융 뉴스

KiRi Weekly 수록호	제목 및 주요 내용
제172호 (3. 5)	중국 경제체제에 대한 개혁 논의 진전 · 세계은행이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중국이 경제성장 유지를 위해 전반적인 경제체제 혁신과 이에 따른 정치적 도전을 극복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기했는데, Financial Times는 현재 중국 정부가 개혁에 기울이는 자세를 보이지만, 실제적 실시는 아직 미지수인 것으로 분석함. (Financial Times, WSJ, 2/27 등)
제173호 (3. 12)	2012년 중국경제 목표 성장률 7.5%, 2005년 이래 최저수준 · 3월 5일 중국정부가 2012년 경제성장률 목표를 2005년 이래 최저수준인 7.5%로 설정함에 따라 경제성장 둔화를 부분적으로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여줌. (Financial Times, WSJ, 3/6 등)
제174호 (3. 19)	2월 중국 무역수지 사상 최대 적자 기록 · 2012년 2월 중국의 무역수지가 315억 달러 적자를 기록하였으며, 동 적자 규모는 월별 기준으로 사상 최대 수준임. (신화망, 신랑망, WSJ, 3/12 등)
제175호 (3. 26)	중국 인민은행, 2012년 1/4분기 부동산 구입의향 조사보고서 발표 · 2012년 3월 20일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이 발표한 2012년 1/4분기 부동산 구입의향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3개월 이내 부동산 구입의향이 있는 주민비중이 13년래 최저치를 기록함. (금융계, 봉황재경, 3/21 등)

Ⅵ. 통계표

〈표 1〉 주요 경제지표

(단위: 백만 달러, %)

구분		2010				2011			
		1/4	2/4	3/4	4/4	1/4	2/4	3/4	4/4
국내총생산 성장률		8.5	7.5	4.4	4.7	4.2	3.4	3.5	3.4
경상수지		68	10,735	10,122	8,469	2,610	5,492	6,896	10,430
수 출		100,951	117,120	116,756	126,617	127,691	142,723	141,394	140,369
수 입		96,655	104,813	105,190	114,704	121,849	135,062	134,196	131,208
실업률		4.7	3.5	3.5	3.3	4.2	3.4	3.1	2.9
금리	국고채(3년)	4.14	3.74	3.70	3.30	3.80	3.68	3.60	3.41
	회사채(3년)	5.25	4.61	4.63	4.16	4.59	4.46	4.34	4.26
소비자물가지수		99.0	99.6	100.4	100.9	102.8	103.6	104.7	104.9
환율	원/달러	1,130.80	1,210.30	1,142.00	1,138.90	1,107.20	1,078.10	1,179.50	1,145.70
	원/엔화	1,217.68	1,364.56	1,363.34	1,397.08	1,331.89	1,335.69	1,536.61	1,485.16
KOSPI		1,692.9	1,698.3	1,872.8	2,051.0	2,106.7	2,100.7	1,769.7	1,849.8
외환보유고		272,331	274,219	289,775	291,571	298,618	304,485	303,384	306,402

주: 1) 환율, 주가지수는 월말, 마감기준임.
2) 국내총생산 성장률은 2000년 기준임.

〈표 2〉 금융기관 순수신 증감 추이

(단위: 억 원)

구분	2010				2011			
	1/4	2/4	3/4	4/4	1/4	2/4	3/4	4/4
보 험	90,965	113,206	106,839	97,513	95,956	109,637	117,629	123,927
- 생 보	65,558	79,340	80,183	68,578	64,883	78,241	89,732	97,036
- 손 보	25,407	33,866	26,655	28,935	31,073	31,396	27,897	26,891
은 행	217,133	265,044	33,397	274,211	201,600	145,827	242,881	263,282
- 일 반	176,891	247,333	44,878	150,020	123,112	162,787	197,704	173,064
- 신 탁	40,242	17,711	-11,481	124,191	78,488	-16,960	45,177	90,218
증 권	45,027	15,820	-7,803	18,619	34,410	-33,405	34,901	10,078
투 신	107,354	-83,616	-78,660	-111,569	-131,059	-10,171	80,566	-105,662
중 금	38,000	-22,687	-13,827	9,480	-10,921	-40,343	-2,093	-52,656

주: 보험의 순수신은 수입(원수)보험료에서 지급보험금(원수손해액)을 차감하여 산출함.
자료: 보험개발원, 한국은행.

〈표 3〉 생명보험 종목별 수입보험료 증가율 및 구성비 추이

(단위: 억 원, %)

구분		FY2010					FY2011		
		1/4	2/4	3/4	4/4	연간	1/4	2/4	3/4
생존	보험료	40,313	41,775	44,312	44,496	170,897	40,937	43,061	43,773
	증가율	17.2	12.9	8.6	8.8	11.6	1.5	3.1	-1.2
	구성비	21.0	21.7	19.0	21.0	20.6	19.4	20.8	18.5
사망	보험료	71,767	71,868	71,895	71,632	287,162	71,520	71,649	71,772
	증가율	-0.2	-1.1	-1.0	-1.0	-0.8	-0.3	-0.3	-0.2
	구성비	37.3	37.4	30.8	33.8	34.6	34.0	34.6	30.3
생사 혼합	보험료	24,183	24,875	27,370	28,786	105,215	27,350	28,489	29,406
	증가율	33.6	28.7	28.8	23.1	28.2	13.1	14.5	7.4
	구성비	12.6	12.9	11.7	13.6	12.7	13.0	13.8	12.4
변액 보험	보험료	44,983	45,598	50,600	52,949	194,130	52,972	54,714	52,149
	증가율	10.0	8.3	14.0	18.9	12.9	17.8	20.0	3.1
	구성비	23.4	23.7	21.7	25.0	23.4	25.2	26.4	22.0
개인계	보험료	181,247	184,116	194,177	197,863	757,403	192,778	197,913	197,100
	증가율	9.7	7.6	8.4	9.2	8.7	6.4	7.5	1.5
	구성비	94.2	95.8	83.2	93.3	91.2	91.5	95.6	83.2
단체	보험료	11,156	8,033	39,241	14,242	72,672	17,839	9,040	39,798
	증가율	12.6	-3.1	-11.9	38.6	-0.5	59.9	12.5	1.4
	구성비	5.8	4.2	16.8	6.7	8.8	8.5	4.4	16.8
합계	보험료	192,402	192,149	233,418	212,105	830,074	210,617	206,953	236,899
	증가율	9.8	7.1	4.4	10.8	7.9	9.5	7.7	1.5
	구성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1) 단체보험은 퇴직보험 특별계정이 포함됨.

2) 증가율은 전년동기대비(분기) 또는 전년대비(연간)임.

자료: 보험개발원, 『보험통계월보』, 각 월호.

〈표 4〉 생명보험 종목별 지급보험금 · 지급보험금 증가율 및 보험금 지급률 추이

(단위: 억 원, %)

구분		FY2010					FY2011		
		1/4	2/4	3/4	4/4	연간	1/4	2/4	3/4
생존 보험	지급보험금	20,570	21,441	27,107	26,149	95,267	22,312	26,191	25,789
	증가율	-1.3	2.7	27.4	18.3	12.0	8.5	22.2	-4.9
	지급률	51.0	51.3	61.2	58.8	55.7	54.5	60.8	58.9
사망 보험	지급보험금	36,009	36,698	36,739	37,843	147,289	36,023	37,941	38,191
	증가율	-3.1	-6.1	2.5	1.8	-1.3	0.0	3.4	4.0
	지급률	50.2	51.1	51.1	52.8	51.3	50.4	53.0	53.2
생사 혼합 보험	지급보험금	12,028	12,509	18,789	14,872	58,198	12,250	13,020	13,229
	증가율	-6.0	-15.7	-18.8	-24.8	-17.5	1.8	4.1	-29.6
	지급률	49.7	50.3	68.6	51.7	55.3	44.8	45.7	45.0
변액 보험	지급보험금	25,859	28,701	39,263	35,562	129,385	33,532	26,282	23,464
	증가율	73.3	36.4	79.1	52.1	59.2	29.7	-8.4	-40.2
	지급률	57.5	62.9	77.6	67.2	66.6	63.3	48.0	45.0
개인 보험계	지급보험금	94,466	99,349	121,899	114,425	430,139	104,117	103,433	100,672
	증가율	10.2	3.6	19.3	11.7	11.4	10.2	4.1	-17.4
	지급률	52.1	54.0	62.8	57.8	56.8	54.0	52.3	51.1
단체 보험계	지급보험금	18,597	12,617	42,941	32,797	106,952	28,259	13,788	39,190
	증가율	16.8	8.5	17.4	40.0	22.1	52.0	9.3	-8.7
	지급률	166.7	157.1	109.4	230.3	147.2	158.4	152.5	98.5
전체	지급보험금	113,063	111,966	164,841	147,222	537,091	132,376	117,221	139,863
	증가율	11.2	4.2	18.8	17.0	13.4	17.1	4.7	-15.2
	지급률	58.8	58.3	70.6	69.4	64.7	62.9	56.6	59.0

주: 1) 보험금 지급률=지급보험금/수입보험료이며 기타 사항은 앞의 표와 동일함.

2) 단체보험은 퇴직보험 포함된 실적이며, 개인보험 종목별 변액보험이 포함됨.

3) 증가율은 전년동기대비(분기) 또는 전년대비(연간)임.

자료: 보험개발원, 『보험통계월보』, 각 월호.

〈표 5〉 생명보험 종목별 사업비 · 사업비증가율 및 사업비율 추이

(단위: 억 원, %)

구분		FY2010					FY2011		
		1/4	2/4	3/4	4/4	연간	1/4	2/4	3/4
생존 보험	사업비	7,837	7,797	8,336	8,972	32,942	8,802	9,138	8,827
	증가율	13.9	1.6	0.6	17.7	8.1	12.3	17.2	5.9
	사업비율	19.4	18.7	18.8	20.2	19.3	21.5	21.2	20.2
사망 보험	사업비	18,672	18,329	18,185	20,460	75,645	19,017	20,312	20,788
	증가율	5.7	0.1	-6.9	11.9	2.5	1.8	10.8	14.3
	사업비율	26.0	25.5	25.3	28.6	26.3	26.6	28.3	29.0
생사 혼합 보험	사업비	4,779	5,089	5,745	6,232	21,844	6,058	6,147	5,878
	증가율	-1.9	4.5	9.7	24.0	9.2	26.8	20.8	2.3
	사업비율	19.8	20.5	21.0	21.6	20.8	22.2	21.6	20.0
개인 보험계	사업비	31,288	31,215	32,265	35,663	130,431	33,877	35,597	35,493
	증가율	6.4	1.2	-2.4	15.3	5.0	8.3	14.0	10.0
	사업비율	17.3	17.0	16.6	18.0	17.2	17.6	18.0	18.0
단체 보험계	사업비	1,097	955	953	1,212	4,216	979	1,052	1,209
	증가율	25.5	10.8	-5.5	23.0	13.1	-10.7	10.2	26.9
	사업비율	9.8	11.9	2.4	8.5	5.8	5.5	11.6	3.0
전체	사업비	32,385	32,170	33,218	36,875	134,647	34,857	36,649	36,702
	증가율	6.9	1.4	-2.5	15.5	5.2	7.6	13.9	10.5
	사업비율	16.8	16.7	14.2	17.4	16.2	16.5	17.7	15.5

주: 1) 사업비는 신계약비 이연을 감안하지 않은 실제 집행 사업비를 기준으로 함.
 2) '사업비율 = 사업비 / 수입보험료'이며 기타 사항은 앞의 표와 동일함.
 3) 단체보험은 퇴직보험 포함된 실적임.
 4) 증가율은 전년동기대비(분기) 또는 전년대비(연간)임.
 5) 변액보험 사업비는 일반계정에 포함됨에 따라 표에 기재되지 않음.
 자료: 보험개발원, 『보험통계월보』, 각 월호.

〈표 6〉 손해보험 보험종목별 원수보험료 증가율 및 비중 추이

(단위: 억 원, %)

구분		FY2010					FY2011		
		1/4	2/4	3/4	4/4	연간	1/4	2/4	3/4
화재	보험료	622	602	779	657	2,660	624	598	758
	증가율	-5.0	-4.7	-2.4	-3.2	-3.7	0.4	-0.7	-2.7
	구성비	0.5	0.5	0.5	0.5	0.5	0.4	0.4	0.5
해상	보험료	2,084	1,970	1,939	1,728	7,721	2,393	2,138	1,833
	증가율	-5.9	-2.0	4.4	-12.1	-4.1	14.8	8.5	-5.5
	구성비	1.7	1.6	1.3	1.3	1.5	1.7	1.5	1.1
자동차	보험료	29,307	30,581	32,103	32,143	124,133	31,977	33,128	32,803
	증가율	7.6	8.3	12.7	13.8	10.6	9.1	8.3	2.2
	구성비	24.3	25.0	21.9	24.2	23.8	22.7	23.3	19.7
보증	보험료	3,194	2,978	3,417	3,483	13,074	3,547	3,634	3,908
	증가율	0.9	3.1	10.0	11.4	6.4	11.0	22.0	14.4
	구성비	2.6	2.4	2.3	2.6	2.5	2.5	2.6	2.4
특종	보험료	9,665	9,030	9,955	8,469	37,120	10,409	10,270	11,026
	증가율	15.8	7.2	11.6	11.4	11.5	7.7	13.7	10.8
	구성비	8.0	7.4	6.8	6.4	7.1	7.4	7.2	6.6
해외 원보험	보험료	433	568	702	623	2,326	636	667	854
	증가율	13.1	13.6	6.2	16.6	11.9	46.9	17.4	21.8
	구성비	0.4	0.5	0.5	0.5	0.4	0.5	0.5	0.5
장기 손해	보험료	66,651	69,459	72,151	73,551	281,813	76,818	81,166	86,877
	증가율	25.5	21.2	21.4	16.5	21.0	15.3	16.9	20.4
	구성비	55.2	56.7	49.3	55.3	53.9	54.6	57.2	52.3
개인 연금	보험료	5,527	5,818	6,444	6,908	24,697	7,586	8,200	9,145
	증가율	51.3	43.7	29.6	33.6	38.4	37.2	40.9	41.9
	구성비	4.6	4.8	4.4	5.2	4.7	5.4	5.8	5.5
퇴직 보험	보험료	960	273	3,940	111	5,284	516	4	92
	증가율	26.7	-47.5	-42.3	-80.7	-39.1	-46.3	-98.6	-97.7
	구성비	0.8	0.2	2.7	0.1	1.0	0.4	0.0	0.1
퇴직 연금	보험료	2,385	1,123	14,890	5,218	23,616	6,218	2,169	18,857
	증가율	346.4	107.4	194.9	161.7	190.9	160.7	93.2	26.6
	구성비	2.0	0.9	10.2	3.9	4.5	4.4	1.5	11.3
계	보험료	120,829	122,403	146,321	132,891	522,444	140,723	141,973	166,153
	증가율	20.8	16.5	21.8	17.5	19.2	16.5	16.0	13.6

주: 1) 증가율은 전년동기대비 수치임.

2) 부수사업의 원수보험료는 제외되었으며, 특종보험에는 권원보험의 원수보험료가 포함, 퇴직보험은 퇴직연금을 포함함.

3) 기간별 수치는 해당 기간에 대한 실적치임.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표 7〉 손해보험 보험종목별 손해율 · 사업비율 및 합산비율 추이

(단위: %)

구분		FY2010			FY2011		
		2/4	3/4	4/4	1/4	2/4	3/4
화재보험	경과손해율	50.1	-7.2	300.2	47.4	61.0	66.3
	사업비율	51.3	49.6	55.1	49.8	55.9	45.3
	합산비율	101.4	42.4	355.3	97.2	116.9	111.6
해상보험	경과손해율	55.2	143.6	109.6	58.7	42.2	63.5
	사업비율	31.5	37.1	30.8	22.3	35.2	31.3
	합산비율	101.4	180.7	140.4	81.1	77.4	94.7
보증보험	경과손해율	70.9	27.8	33.8	43.9	43.0	65.0
	사업비율	20.8	20.7	19.4	8.1	11.0	14.6
	합산비율	91.8	48.5	53.2	52.0	54.0	79.6
특종보험	경과손해율	66.4	62.2	66.4	61.6	69.2	70.9
	사업비율	23.1	21.9	27.5	21.1	19.4	17.2
	합산비율	89.5	84.1	93.9	82.7	88.5	88.2
해외원보험	경과손해율	36.1	43.8	41.9	43.5	56.6	53.8
	사업비율	56.9	60.7	70.0	50.0	41.3	46.0
	합산비율	93.0	104.5	111.9	93.5	97.9	99.8
해외수재	경과손해율	51.1	82.3	69.9	54.4	78.5	112.1
	사업비율	26.5	25.1	26.8	26.7	27.5	29.4
	합산비율	77.6	107.5	96.7	81.1	106.0	141.5
자동차보험	경과손해율	82.5	85.9	77.1	79.6	83.3	85.4
	사업비율	31.1	30.2	30.0	20.7	20.2	20.8
	합산비율	113.6	116.1	107.1	100.2	103.5	106.2
장기보험*	경과손해율	81.3	81.6	80.5	81.7	82.6	83.2
	사업비율	17.8	17.4	17.8	16.8	16.8	16.4
	합산비율	99.2	99.0	98.4	98.5	99.4	99.6
전체	경과손해율	79.3	80.2	77.8	78.2	80.7	82.7
	사업비율	22.3	21.7	22.3	18.3	18.2	18.1
	합산비율	101.6	101.9	100.1	96.5	98.9	100.8

주: 1) 기간별 수치는 개인연금, 퇴직보험 및 퇴직연금을 제외한 분기치임.

2) 손해율 = 발생손해액 / 경과보험료, 사업비율 = 순사업비 / 보유보험료, 합산비율 = 손해율 + 사업비율임.

3) *는 위험손해율 개념이 아닌 재무손해율(적립보험료 및 각종 환급금 감안) 개념임.

자료: 손해보험회사, 『월말보고서』, 각 월호.

보험연구원(KIRI) 발간물 안내

■ 연구보고서

- 2008-1 보험회사의 리스크 중심 경영전략에 관한 연구 / 최영목, 장동식, 김동겸 2008. 1
2008-2 한국 보험시장과 공정거래법 / 정호열 2008. 6
2008-3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의 자산운용 / 류건식, 이경희, 김동겸 2008. 3
2009-1 보험설계사의 특성분석과 고능률화 방안/ 안철경, 권오경 2009. 1
2009-2 자동차사고의 사회적 비용 최소화 방안 / 기승도 2009. 2
2009-3 우리나라 가계부채 문제의 진단과 평가 / 유경원, 이해은 2009. 3
2009-4 사적연금의 노후소득보장 기능제고 방안 / 류건식, 이창우, 김동겸 2009. 3
2009-5 일반화선형모형(GLM)을 이용한 자동차보험 요율상대도 산출방법 연구 / 기승도, 김대환 2009. 8
2009-6 주행거리에 연동한 자동차보험제도 연구 / 기승도, 김대환, 김혜란 2010. 1
2010-1 우리나라 가계 금융자산 축적 부진의 원인과 시사점 / 유경원, 이해은 2010. 4
2010-2 생명보험 상품별 해지율 추정 및 예측 모형 / 황진태, 이경희 2010. 5
2010-3 보험회사 자산관리서비스 사업모형 검토 / 진익, 김동겸 2010. 7

■ 정책보고서

- 2008-2 환경오염리스크관리를 위한 보험제도 활용방안 / 이기형 2008. 3
2008-3 금융상품의 정의 및 분류에 관한 연구 / 유지호, 최원 2008. 3
2008-4 2009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 이진면, 이태열, 신종협, 황진태, 유진아, 김세환, 이정환, 박정희, 김세중, 최이섭 2008. 11
2009-1 현 금융위기 진단과 위기극복을 위한 정책제언 / 진익, 이민환, 유경원, 최영목, 최형선, 최원, 이경아, 이해은 2009. 2
2009-2 퇴직연금의 급여 지급 방식 다양화 방안 / 이경희 2009. 3
2009-3 보험분쟁의 재판외적 해결 활성화 방안 / 오영수, 김경환, 이종욱 2009. 3
2009-4 2010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 이진면, 황진태, 변혜원, 이경희, 이정환, 박정희, 김세중, 최이섭 / 2009. 12
2009-5 금융상품판매전문회사의 도입이 보험회사에 미치는 영향 / 안철경, 변혜원, 권오경 2010. 1
2010-1 보험사기 영향요인과 방지방안 / 송윤아 2010. 3
2010-2 2011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 이진면, 김대환, 이경희, 이정환, 최원, 김세중, 최이섭 2010. 12

- 2011-1 금융소비자 보호 체계 개선방안 / 오영수, 안철경, 변혜원, 최영목, 최형선, 김경환, 이상우, 박정희, 김미화 2010. 4
- 2011-2 일반공제사업 규제의 합리화 방안 / 오영수, 김경환, 박정희 2011. 7
- 2011-3 퇴직연금 적립금의 연금전환 유도방안 / 이경희 2011. 5
- 2011-4 저출산·고령화와 금융의 역할 / 윤성훈, 류건식, 오영수, 조용운, 진익, 유진아, 변혜원 2011. 7
- 2011-5 소비자보호를 위한 보험유통채널 개선방안 / 안철경, 이경희 2011. 11
- 2011-6 2012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 윤성훈, 황진태, 이정환, 최원, 김세중, 오병국 2011. 12

■ 경영보고서

- 2009-1 기업휴지보험 활성화 방안 연구 / 이기형, 한상용 2009. 3
- 2009-2 자산관리서비스 활성화 방안 / 진익 2009. 3
- 2009-3 탄소시장 및 녹색보험 활성화 방안 / 진익, 유시용, 이경아 2009. 3
- 2009-4 생명보험회사의 지속가능성장에 관한 연구 / 최영목, 최원 2009. 6
- 2010-1 독립판매채널의 성장과 생명보험회사의 대응 / 안철경, 권오경 2010. 2
- 2010-2 보험회사의 윤리경영 운영실태 및 개선방안 / 오영수, 김경환 2010. 2
- 2010-3 보험회사의 퇴직연금사업 운영전략 / 류건식, 이창우, 이상우 2010. 3
- 2010-4(1) 보험환경변화에 따른 보험산업 성장방안 / 산업연구실, 정책연구실, 동향분석실 2010. 6
- 2010-4(2) 종합금융서비스를 활용한 보험산업 성장방안 / 금융제도실, 재무연구실 2010. 6
- 2010-5 변액보험 보증리스크 관리연구 / 권용재, 장동식, 서성민 2010. 4
- 2010-6 RBC 내부모형 도입방안 / 김해식, 최영목, 김소연, 장동식, 서성민 2010. 10
- 2010-7 금융보증보험 가격결정모형 / 최영수 2010. 7
- 2011-1 보험회사의 비대면채널 활용방안 / 안철경, 변혜원, 서성민 2011. 1
- 2011-2 보증보험의 특성과 리스크 평가 / 최영목, 김소연, 김동겸 2011. 2
- 2011-3 충성도를 고려한 자동차보험 마케팅 전략 연구 / 기승도, 황진태 2011. 3
- 2011-4 보험회사의 상조서비스 기여방안 / 황진태, 기승도, 권오경 2011. 5
- 2011-5 사기성클레임에 대한 최적조사방안 / 송윤아, 정인영 2011. 6
- 2011-6 민영의료보험의 보험리스크 관리방안 / 조용운, 황진태, 김미화 2011. 8
- 2011-7 보험회사의 개인형 퇴직연금 운영방안 / 류건식, 김대환, 이상우 2011. 9
- 2011-8 퇴직연금시장의 환경변화에 따른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운영방안 / 김대환, 류건식, 이상우 2011. 10

■ 조사보고서

- 2008-1 보험회사 글로벌화를 위한 해외보험시장 조사 / 양성문, 김진억, 지재원, 박정희, 김세중 2008. 2
- 2008-2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도입에 대응한 장기간병보험 운영 방안 / 오영수 2008. 3
- 2008-3 2008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안철경, 기승도, 이상우 2008. 4
- 2008-4 주요국의 보험상품 판매권유 규제 / 이상우 2008. 3
- 2009-1 2009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안철경, 이상우, 권오경 2009. 3
- 2009-2 Solvency II의 리스크평가모형 및 측정방법 연구 / 장동식 2009. 3
- 2009-3 이슬람 보험시장 진출방안 / 이진면, 이정환, 최이섭, 정중영, 최태영 2009. 3
- 2009-4 미국 생명보험 정산거래의 현황과 시사점 / 김해식 2009. 3
- 2009-5 헤지펀드 운용전략 활용방안 / 진익, 김상수, 김종훈, 변귀영, 유시용 2009. 3
- 2009-6 복합금융 그룹의 리스크와 감독 / 이민환, 전선애, 최원 2009. 4
- 2009-7 보험산업 글로벌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방안 / 서대교, 오영수, 김영진 2009. 4
- 2009-8 구조화금융 관점에서 본 금융위기 분석 및 시사점 / 임준환, 이민환, 윤건용, 최원 2009. 7
- 2009-9 보험리스크 측정 및 평가 방법에 관한 연구 / 조용운, 김세환, 김세중 2009. 7
- 2009-10 생명보험계약의 효력상실 · 해약분석 / 류건식, 장동식 2009. 8
- 2010-1 과거 금융위기 사례분석을 통한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 전망 / 신종협, 최형선, 최원 2010. 3
- 2010-2 금융산업의 영업행위규제 개선방안 / 서대교, 김미화 2010. 3
- 2010-3 주요국의 민영건강보험의 운영체제와 시사점 / 이창우, 이상우 2010. 4
- 2010-4 2010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변혜원, 박정희 2010. 4
- 2010-5 산재보험의 운영체제에 대한 연구 / 송윤아 2010. 5
- 2010-6 보험산업 내 공정거래규제 조화방안 / 이승준, 이종욱 2010. 5
- 2010-7 보험종류별 진료수가 차등적용 개선방안 / 조용운, 서대교, 김미화 2010. 4
- 2010-8 보험회사의 금리위험 대응전략 / 진익, 김해식, 유진아, 김동겸 2011. 1
- 2010-9 퇴직연금 규제체계 및 정책방향 / 류건식, 이창우, 이상우 2010. 7
- 2011-1 생명보험설계사 활동실태 및 만족도 분석 / 안철경, 황진태, 서성민 2011. 6
- 2011-2 2011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김대환, 최원 2011. 5
- 2011-3 보험회사 녹색금융 참여방안 / 진익, 김해식, 김혜란 2011. 7
- 2011-4 의료시장변화에 따른 민영실손의료보험의 대응 / 이창우, 이기형 2011. 8
- 2011-5 아세안 주요국의 보험시장 규제제도 연구 / 조용운, 변혜원, 이승준, 김경환, 오병국 2011. 11

■ 영문발간물

- 10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08 / Korea Insurance Research Institute, 2008. 9
- 11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09 / Korea Insurance Research Institute, 2009. 9
- 12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10 / Korea Insurance Research Institute, 2010. 9
- 13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11 / Korea Insurance Research Institute, 2011. 9

■ CEO Report

- 2008-1 자동차보험 물적담보 손해를 관리 방안 / 기승도 2008. 6
- 2008-2 보험산업 소액지급결제시스템 참여 관련 주요 이슈 / 이태열 2008. 6
- 2008-3 FY2008 수입보험료 전망 / 동향분석실 2008. 8
- 2008-4 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의 영향과 보험회사 대응과제 / 류건식, 서성민 2008. 12
- 2009-1 FY2009 보험산업 수정전망과 대응과제 / 동향분석실 2009. 2
- 2009-2 퇴직연금 예금보험요율 적용의 타당성 검토 / 류건식, 김동겸 2009. 3
- 2009-3 퇴직연금 사업자 관련규제의 적정성 검토 / 류건식, 이상우 2009. 6
- 2009-4 퇴직연금 가입 및 인식실태 조사 / 류건식, 이상우 2009. 10
- 2010-1 복수사용자 퇴직연금제도의 도입 및 보험회사의 대응과제 / 김대환, 이상우, 김혜란 2010. 4
- 2010-2 FY2010 수입보험료 전망 / 동향분석실 2010. 6
- 2010-3 보험소비자 보호의 경영전략적 접근 / 오영수 2010. 7
- 2010-4 장기손해보험 보험사기 방지를 위한 보험금 지급심사제도 개선 / 김대환, 이기형 2010. 9
- 2010-5 퇴직금 중간정산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 류건식, 이상우 2010. 9
- 2010-6 우리나라 신용카드시장의 특징 및 개선논의 / 최형선 2010. 11
- 2011-1 G20 정상회의의 금융규제 논의 내용 및 보험산업에 대한 시사점 / 김동겸 2011. 2
- 2011-2 영국의 공동계정 운영체계 / 최형선, 김동겸 2011. 3
- 2011-3 FY2011 수입보험료 전망 / 동향분석실 2011. 7
- 2011-4 근퇴법 개정에 따른 퇴직연금 운영방안과 과제 / 김대환, 류건식 2011. 8

■ Insurance Business Report

- 26호 퇴직연금 중심의 근로자 노후소득보장 과제 / 류건식, 김동겸 2008. 2
- 27호 보험부채의 리스크마진 측정 및 적용 사례 / 이경희 2008. 6
- 28호 일본 금융상품판매법의 주요내용과 보험산업에 대한 영향 / 이기형 2008. 6
- 29호 보험회사의 노인장기요양 사업 진출 방안 / 오영수 2008. 6
- 30호 교차모집제도의 활용의향 분석 / 안철경, 권오경 2008. 7

- 31호 퇴직연금 국제회계기준의 도입영향과 대응과제 / 류건식, 김동겸 2008. 7
 32호 보험회사의 헤지펀드 활용방안 / 진익 2008. 7
 33호 연금보험의 확대와 보험회사의 대응과제 / 이경희, 서성민 2008. 9

※ 2008년 이전 발간물은 보험연구원 홈페이지(<http://www.kiri.or.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기간행물

■ 간행물

- 보험동향 / 계간
- 보험금융연구 / 연 4회

『 도서 회원 가입 안내 』

회원 및 제공자료

	법인회원	특별회원	개인회원
연회비	₩ 300,000원	₩ 150,000원	₩ 150,000원
제공자료	- 연구보고서 - 정책/경영보고서 - 조사보고서 - 기타보고서 - 정기간행물 · 보험금융연구 · 보험동향	- 연구보고서 - 정책/경영보고서 - 조사보고서 - 기타보고서 - 정기간행물 · 보험금융연구 · 보험동향	- 연구보고서 - 정책/경영보고서 - 조사보고서 - 기타보고서 - 정기간행물 · 보험금융연구 · 보험동향
	- 본원 주최 각종 세미나 및 공청회 자료(PDF) - 영문보고서	-	-

※ 특별회원 가입대상 :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공도서관 및 대학도서관

가입문의

보험연구원 도서회원 담당

전화 : (02)3775-9113, 9080 팩스 : (02)3775-9102

회비납입방법

- 무통장입금 : 국민은행 (400401-01-125198)

예금주 : 보험연구원

가입절차

보험연구원 홈페이지(www.kiri.or.kr)에 접속 후 도서회원가입신청서를 작성·등록 후 회비입금을 하시면 확인 후 1년간 회원자격이 주어집니다.

자료구입처

서울 : 보험연구원 보험자료실, 교보문고, 영풍문고, 반디앤루니스

부산 : 영광도서

『보험동향』 2012년 봄호 (통권 61호)

발행일 2012년 4월

발행인 김 대 식

발행처 보 험 연 구 원

주 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5-4

연락처 02-3775-9000

인쇄소 경성문화사 / 02-786-2999

파본은 교환해 드립니다.

본 자료에 실린 내용에 대한 문의는 보험연구원의
동향분석실(☎3775-9057, 3775-9059)로 연락하여 주십시오.